

건축사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칼럼

대한민국건축사협회(KA)의 출범을 앞두고

### 시론

녹색성장시대의 건축 역할과 녹색성장위원 구성의 유감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 회원작품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동안교회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_경기테크노파크

목은재(木隱齋)

고등제일교회

### 특집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 참가업체 탐방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200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482  
<http://www.kira.or.kr>  
200906

# 녹색성장시대의 건축 역할과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의 유감

## Roles of Architects in the Age of Green Growth and Regrets about Organization of Committee on Green Growth

건축은 사회와 함께 변화하면서 그 시대를 반영한다. 해방 후 6.25 전쟁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건축물은 많이 파괴되었고 폐허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건축역사는 지금까지 팔복한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5.16 혁명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시작된 건축 붐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작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이 건축경기를 멈칫 거리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욱 선진화하면서 첨단 기술이 이용되는 건설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은 시대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아름답고, 튼튼하고, 페적한 공간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창출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도시환경문제, 지구환경문제가 사회적,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 되면서 건축은 지금까지의 「품질」, 「비용」이라는 목표에 추가하여 「환경」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건축은 설계, 자재생산, 시공, 유지관리,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Life cycle)를 통하여 방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며, 특히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건물의 냉난방, 조명 등의 건축설비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化石燃料)를 연소하면서 CO<sub>2</sub>를 발생하는데 이것은 지구 온난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PC)」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처럼 아무 대책 없이 화석 연료의 소비가 증가하고, 계속되는 삼림자연의 파괴를 막지 않으면 폭풍우나 가뭄 등 다양한 자연 재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식량 등의 생산에도 차질이 생겨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조차 위험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회의, 협약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세계적 움직임은 우리의 관심과 의식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최근 건축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 '친환경 건축', '건강주택', '생태 주택' 등의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정부는 작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후 범국민적으로 지구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위기에 대처하면서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주요 정부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로 지구의 일원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 늦은 감이 있기도 하다.

정부에서 제시한 녹색성장 추진방향은 신 성장 동력확충, 삶의 질과 환경개선, 국가의상·건립의 3대 분야의 10대 정책으로 되어 있다. 10대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성장 국가를 이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과 기술의 홍보, 보급, 산업체가 필요한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정책지원, 금융지원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전자의 기술개발의 경우에는 모든 기술분야가 역량을 모아야 할 것 같으며 많은 부분이 건축과 깊은 관계가 있고, 건축가 또는 건축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다. 아니 건축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이 녹색성장의 기술개발을 위하여서는 현재에 우리의 역량과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한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녹색성장에 관련된 건축전문가 또는 건축기술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건축단체연합(FIKA)에 속해 있는 건축 3단체를 비롯한 많은 전문학회, 협회 등의 단체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단체들은 국가적 사업을 위하여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 정부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추진방향결정의 중심체가 될 것 같은 「녹색성장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건축전문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찌된 일인가? 그동안 우리 건축인이 너무나 「품질」, 「비용」만을 강조하고 「환경」의 가치를 등한시 해 옴으로서 건축계를 보는 사회적 시각이 녹색성장과는 관계없는 분야가 된 것인가? 생각해보면, 녹색성장 10대 정책에 열거되는 녹색도시, 그린홈 등은 건축과 직접 관계가 있으며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 재생에너지와 LED 조명 등 고효율 제품의 적용, 보금 확대도 많은 부분 건축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 등에도 건축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건축인, 건축단체는 힘을 모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건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에서는 건축인, 건축단체가 그 역할을 세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 더불어 정부와 관련기관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성공하기 위하여 건축의 역할이 중요 한 것을 이해하고 많은 건축인의 의견을 반영하며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 ■



손장열 / Sohn, Jang-yeul  
대한건축학회 회장, FIKA 대표회장

### 약력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 일본 등경 공업대학(TIT) 대학원 건축학과 졸업(공학박사)
- 한양대학교 교수, 건축대학 학장
- 한국생활환경학회 회장, 명예회장
- 한교공기청정협회 회장, 명예회장

##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결과를 받고 생각해보는  
건축 저작권과 그를 둘러싼 건축산업

### Prize Winners has the Copyright of their design

공공건축의 발주와 또 대기업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현상공모 프로젝트에서 그간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약관 및 계약조항이 실행되어 왔다. 물론 발주 시 과거 발주 지침서와 유사 계약서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은연중 발생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 은연중 발생한 것으로 다루기에는 저작권자인 건축사에게 많은 고통을 주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각종 약관 및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겠지만 그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즉, 저작권 계약과 설계 계약을 동시에 진행함으로 설계 계약상 약자인 건축사가 저작권의 발주자 귀속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공정거래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저작자인 설계자(건축사)가 그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금번 공정위 심사의 결론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런 결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건축을 잘 모르는 공공이나, 민간이 발주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소위 건축의 전문가라는 집단에서 발주될 경우와 건축 관련 전담조직이 있는 발주처는 거의 예외 없이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되어 왔다. 실제로 금번, 공정위 심사 대상인 주택공사, 토지공사, 조달청, 안양시, 용인시는 모두 건축의 전문가 집단이거나, 건축과 관련된 전문부서들이 있는 발주처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소속된 각 발주처에서 발주할 경우,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 되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재미있는 현상은 최근에 발주된 국제현상설계에서의 저작권은 일관성 없이 반영된 듯하다. 필자가 확인한 농대문디자인파크와 노들섬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저작권이 일방적으로 발주처에 귀속되자 않고, 오히려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있었다. 반대로 국내 건축사만을 대상으로 지명하였던, 서울시청 아이디어현상공모의 경우 그 명칭을 아이디어 현상이라고 하고, 저작권을 갑에게 귀속하였다. 이건 크게 잘못된 상황이다. 결국 발주처가 한국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를 차별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 건축사의 경우, 저작권을 갖고 오고 싶으나, 국제적 체면과 문화적, 지적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 분위기상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외국건축사와 반대로 국내 건축사는 상대적 무시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금번 공정위의 심의결과에 의거 이제,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약관조항이 무효화 되었고, 또 관련 기관들이 자진시정 한다는 금번 결론에 따라 건축설계의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 나시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게 되겠는가? 안타깝게도 건축설계 저작권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지도 몇 건의 저작권 승소 판결이 있었고, 간간히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언제나 해당 건축에 한한 내용이었을 뿐 건축 산업 전반에 저작권이 영향을 전혀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번의 값진 결론도 그냥 둔다면 또한 과거의 여느 판결들 중 하나 정도로 취급되고 말 것이다. 저작권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란 생각으로 건축 산업 전반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향후 우리 건축사뿐 아니라, 건축 산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감시와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설계의 의미가, 시공, 유지관리, 행정업무 등 다양한 업무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업무로 각 관련 업역 간의 정합은 설계 업무에 주어진 또 하나의 업무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간략하게 생각해 본 건축 산업내에서 저작권 관련 후속 조치들은, 물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국내의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설계가 절대로 건축 설계자들만의 업무가 아닌, 관련인들과 지속적으로 연관되는 업무임을 상호 인정하여야만 한다.

돌이켜 보건데, 설계 고유 업무의 중요도만 강조하고, 주변의 상황과 업무를 간과한 것이 오늘의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고, 본 저작권 판결을 계기로 건축 산업내에서 설계의 역할과 의미를 바로 세우고, 이에 따른 실행 대책을 기대해 본다.



박인수 / Park In-soo, KIRA  
(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교수
- 희망제작소 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회원작품 | Works



이용우/정회원, 칸·도시건축사사무소  
by Lee, Yong-woo, KIRA

### 작곡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대학원
- 김종업 건축연구소
-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

### 주요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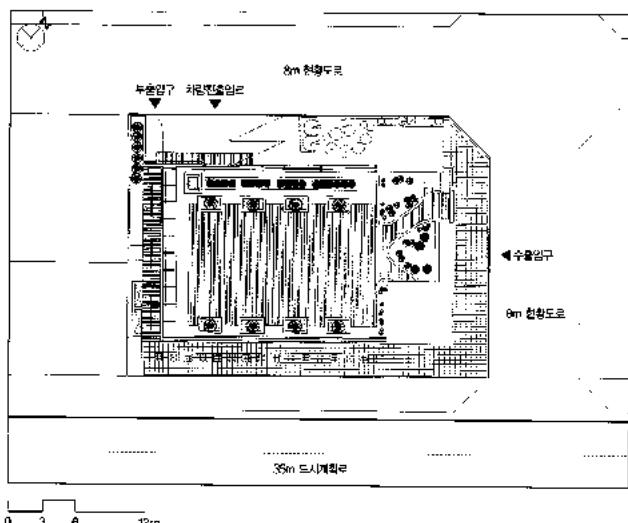
연운제, 회기16~96, 백운호텔, 송주 삼한교회, 미스바  
기도원교회, 인동 광덕교회, 순천 나눔의 교회, 대구  
포도원 교회 외

#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동안교회

ILSAN Dongan Presbyterian Church

### ● 배치도

###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77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729.9m<sup>2</sup>

건축면적 434.34m<sup>2</sup>

연면적 2,325.27m<sup>2</sup>

건폐율 59.51%

용적률 160.55%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노출 콘크리트, 샌드스톤, 징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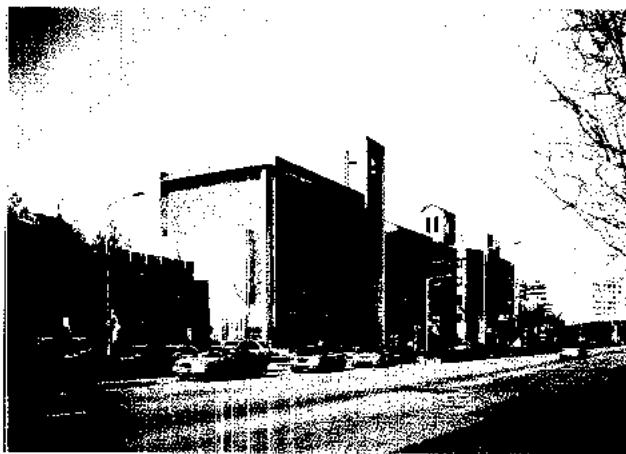
내부마감 석고보드위 VP, 대리석, 유리블록, 노출콘크리트

구조설계 베이스구조기술사사무소

설비설계 주원ENG

시공사 (주)슬로몬종합건설

설계담당 김용담, 구유동, 정문주



Location 1177, Baekseok-dong, Ilsandong-gu, Gyeonggi-do, Korea

Site area 729.9m<sup>2</sup>

Bldg area 434.34m<sup>2</sup>

Gross floor area 2,325.27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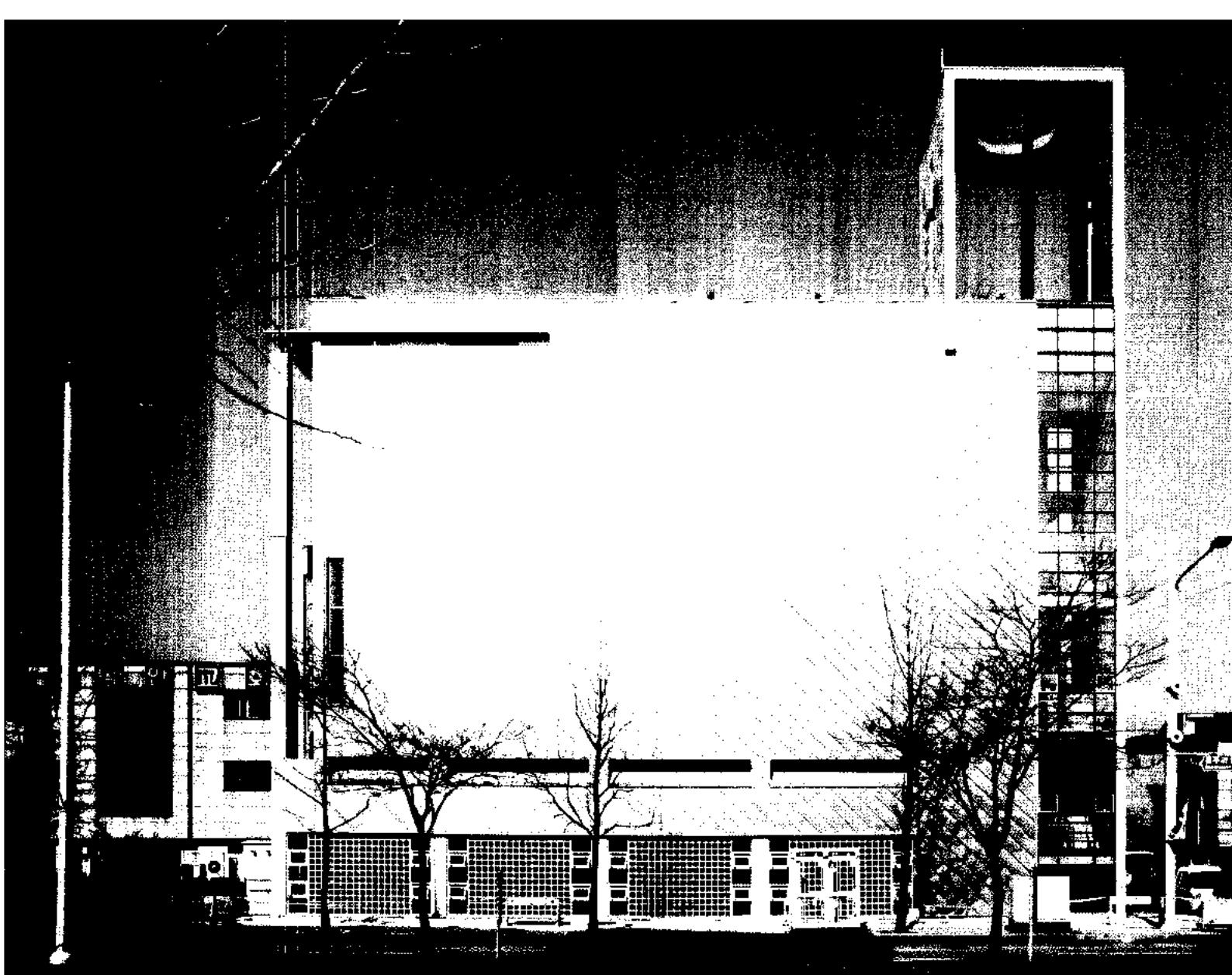
Bldg coverage ratio 59.51%

Gross floor ratio 160.55%

Structure R.C+S.C

Bldg. Scale B2, F4

1. 신도  
2. 남측 정면



신도시의 종교부지는 경직되어 있다. 이웃한 대지와 합병이 되지 않는다. 교회는 지난 10여 년간 성장을 거듭하여 이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처음 지어질 당시의 건폐율에 맞게 단층으로 지어진 교회는 400여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었다. 교회 층은 2배 이상 더 넓은 예배공간을 위했으나 대지조건에 의해 수평증축은 불가능 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수직으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4층에 예배당은 2층부터 3개 층에 걸치는 빌코니가 2개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자구단위계획에 의해 건폐율, 층수, 건축선 등의 규제를 받고 교회가 요구하는 최대한의 용적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형태는 직육면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정된 형태는 최소한의 조작과 재료를 통해 교회의 이미지를 나타내야 했다. 순수, 정직, 절제가 교회건축의 미덕이라고 생각해 왔기기에 그에 순응하여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마무리 하려 하였다.

일산동안교회의 표어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다.

생명은 빛이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성경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이다. 빛에서 생명이 태어났다.

빛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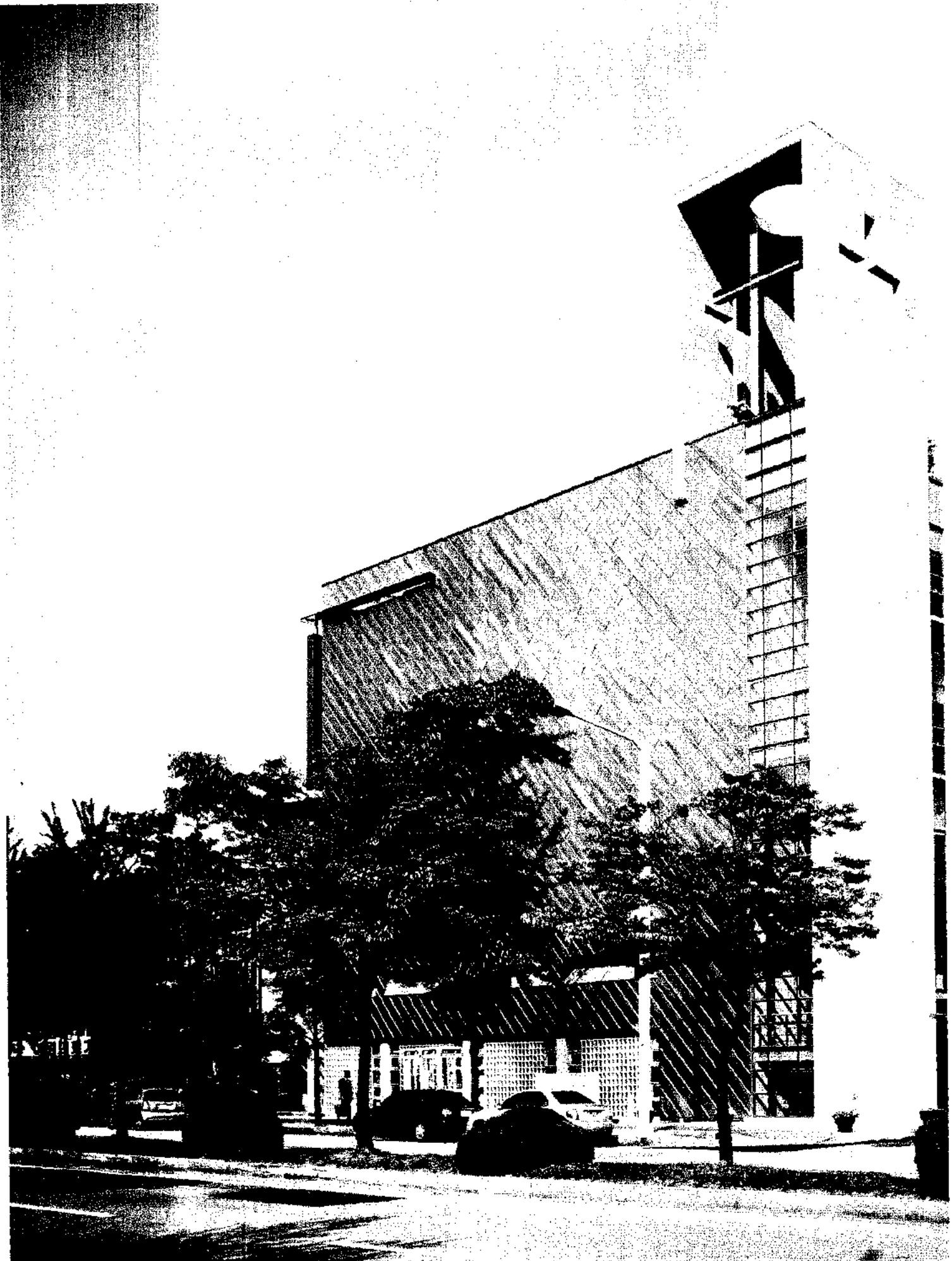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빛은 교회의 상징이다. 어디에나 넘치도록 허해서 보이지 않는 빛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빛을 느끼도록 해야했다. 어디 선지 모르게 스며드는, 빛으로 충만한 교회가 첫 번째 목표이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됨은 불문가지이다. 이 생명의 물을 이웃에게 돌려주려 했다. 건물을 세워자는 동시에 건축주의 것만이 아닌 공공재이다. 이웃에게, 시민에게 베풀고 돌려주지 못한다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웃에게 베푸는 심정으로 가로변에 분수를 설치했다. 우선은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무엇이 지나는 이들에게 이처럼 흔들기 시원함을 선사할 수 있으려나.

건물은 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또 붉게 물든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으로 인해 건물은 생명을 얻는다. 좋은 건물은 도시 속에서 배경으로 조용히 있다가 날이 밝으면 환한 모습으로 그 윤곽을 들어낸다.

교회건물은 과장된 모습으로 스스로를 내세우며 거드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교회의 성장을 과시하여서도 안 된다. 차분하게 이웃의 모든 이들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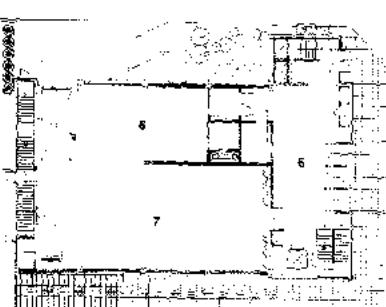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





01. 전경  
02. 현장 촬영  
03. 현장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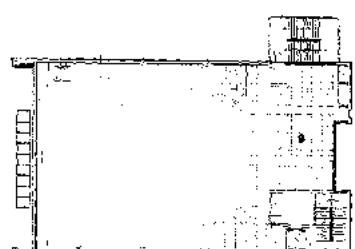
01. 휴게실 05. 소그룹실 09. 대여방실  
02. 간이주방 06. 로비 10. 강대  
03. 청년연습실 07. 소생대수  
04. 생약실 08. 유아실 및 기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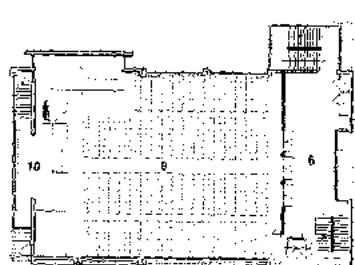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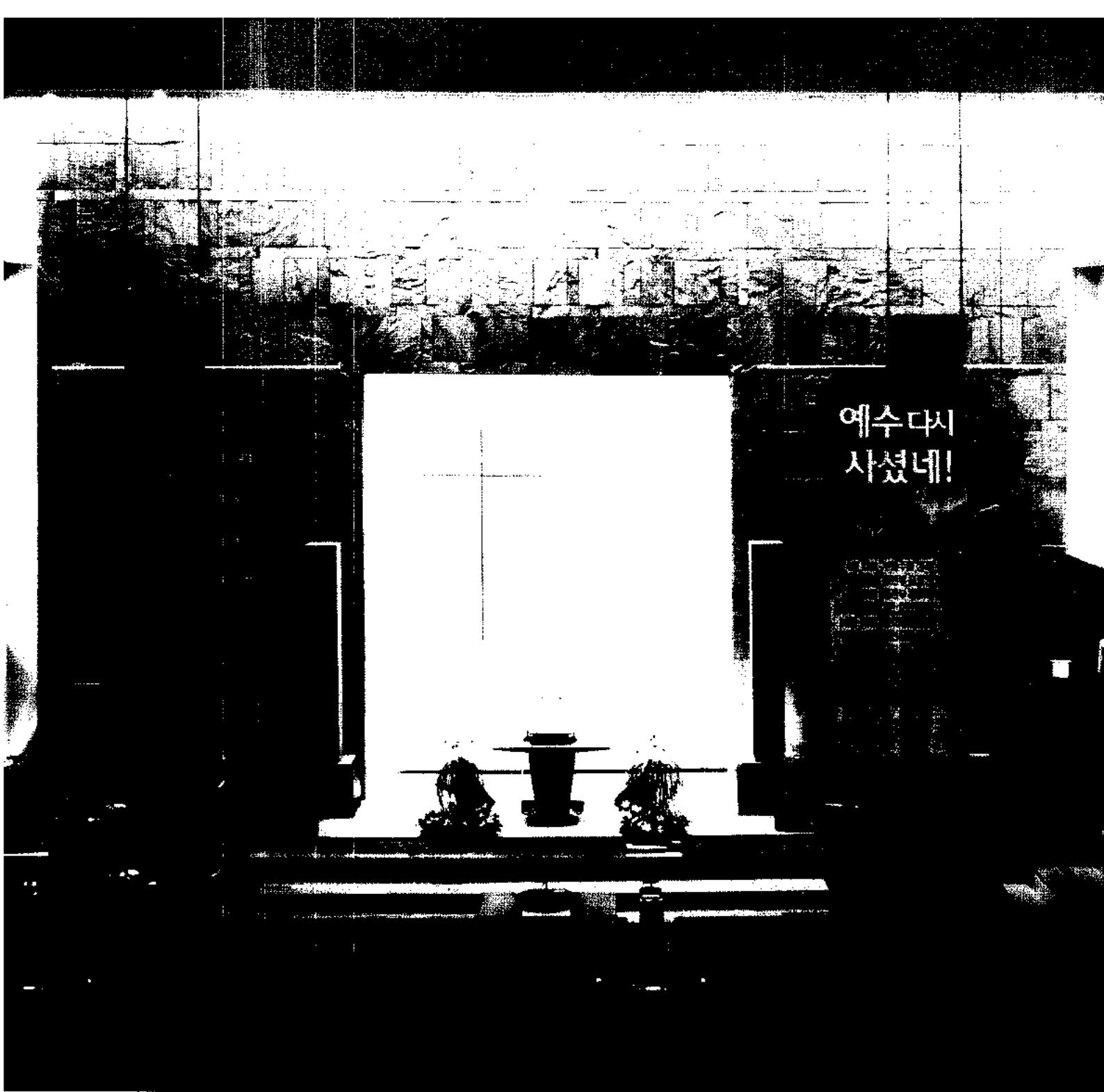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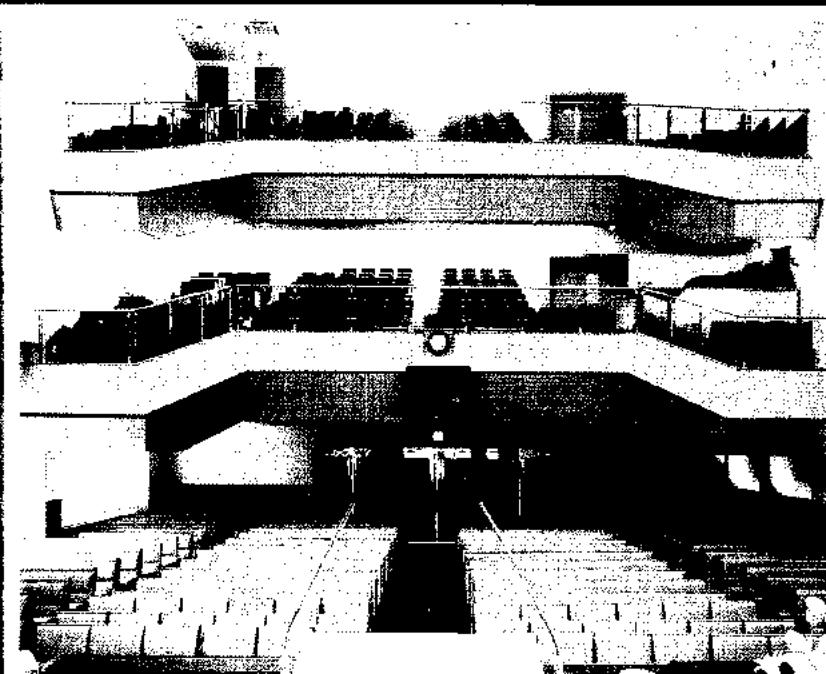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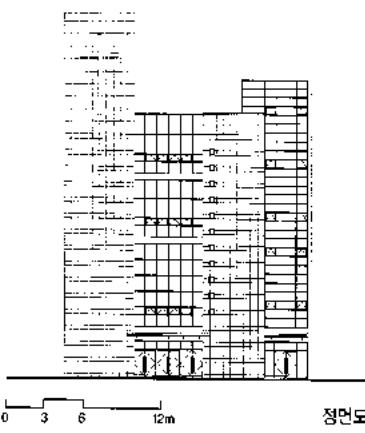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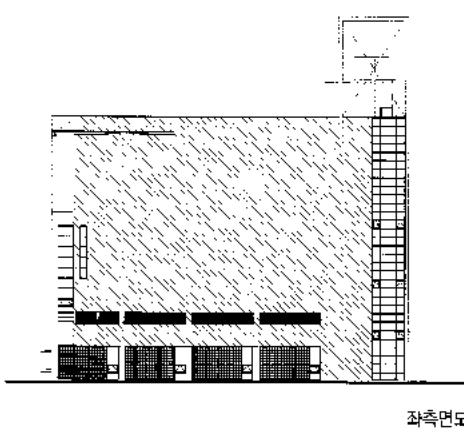


예수다시  
사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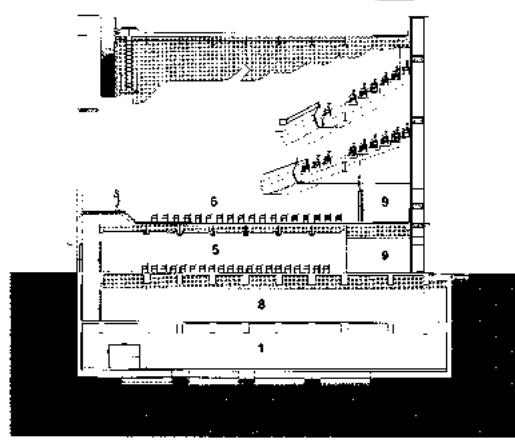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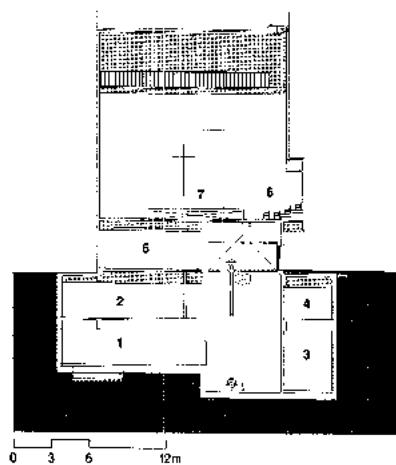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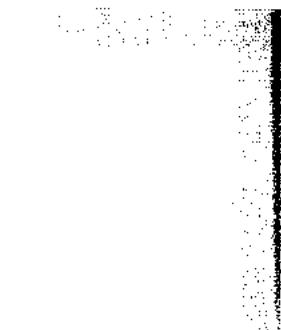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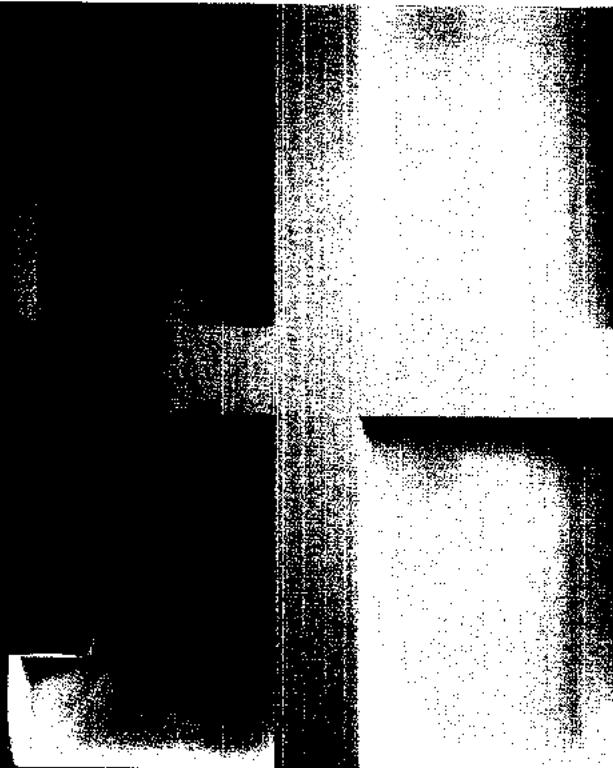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1 예배당 나무	3 회중석
2 분수	4 벽면 가벽화관



- 01\_주지소
- 02\_전방연습실
- 03\_기계실
- 04\_스그룹실
- 05\_스에배설
- 06\_내예배실
- 07\_상대
- 08\_카페
- 09\_로비

## 회원작품 | Works



최기철 / 정회원,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by Choi, Ki-chul, KIRA

### 학력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환경영향평가 과정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석사,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
- 대한주택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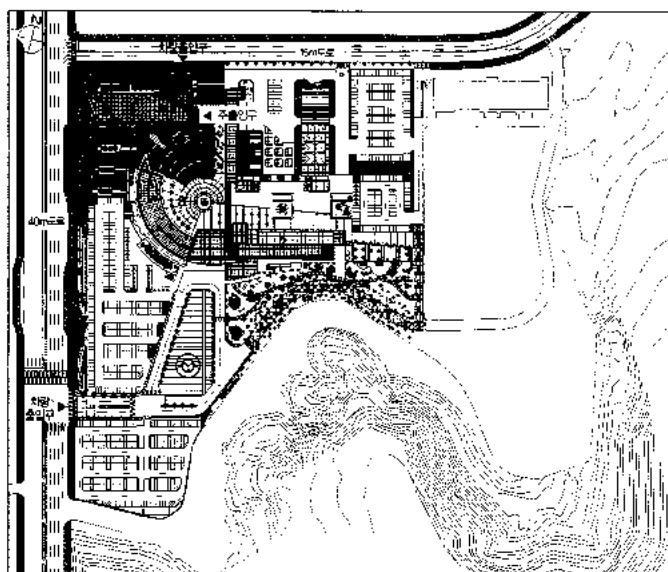
### 주요작품

광주 도시철도 종합사령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사옥,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 · 수자원 정보센터, 무형문화유산전당 당선 외

##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_경기테크노파크 Specialized Technology Business Center\_Gyeonggi Technopark

### ● 배치도

### ● 건축개요



1.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2. 기술고도화센터(신기술창업센터)
3. 지원편의시설
4. 파이롯프랜트등

**대지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2,510.90m<sup>2</sup>

**건축면적** 13,143.07m<sup>2</sup>

**연면적** 54,272.48m<sup>2</sup>

**건폐율** 15.64%

**용적률** 72.62%

**규모** 지하 1층, 지상 8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 칼라로이 복층유리, 알루미늄 복합패널

**구조설계** 형상구조

**전기설계** 일신E&C

**토목설계** 유경기술단

**기계설계** 무애 엔지니어링

**인테리어** aandd건축

**발주처** 경기테크노파크

**시공사** 아주종합건설

**설계총괄** 이수열

**설계담당** 홍창성, 이선정, 김용대, 김명호, 신온정, 최윤상

**사진** 염승훈

**Location** 1271-11, Sa1-dong,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66,655.9m<sup>2</sup>

**Bldg area** 2,510.90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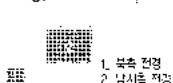
**Gross floor area** 13,143.07m<sup>2</sup>

**Bldg coverage ratio** 1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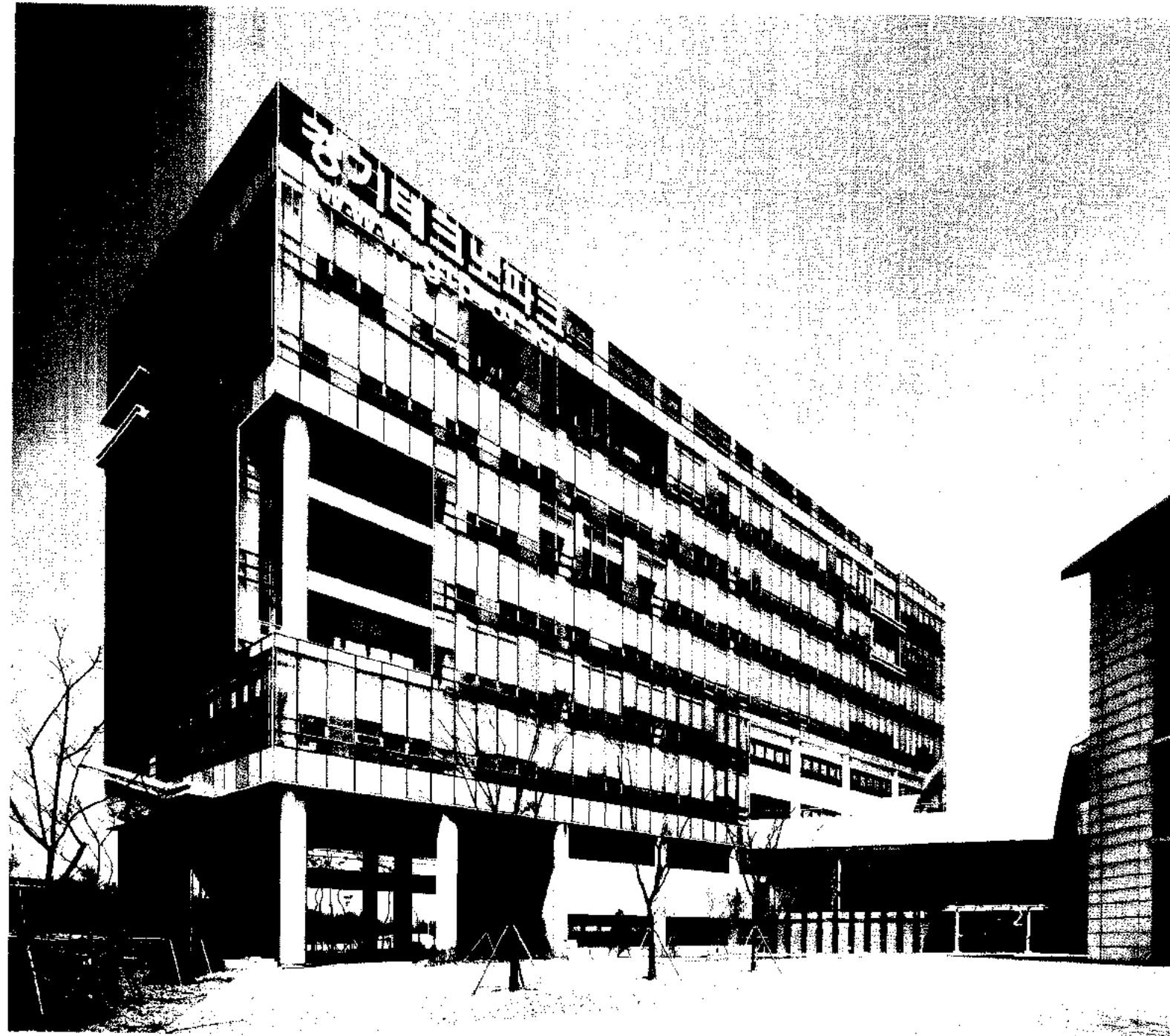
**Gross floor ratio** 72.62%

**Structure** R.C+S.R.C

**Bldg. Scale** B1, F8



1. 북측 전경  
2. 남서측 전경



이 프로젝트는 애사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우수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설계는 기존 경기테크노파크 규모를 분석하여 그 체계를 이해하고, 문제점과 잠재력 등을 도출하여 이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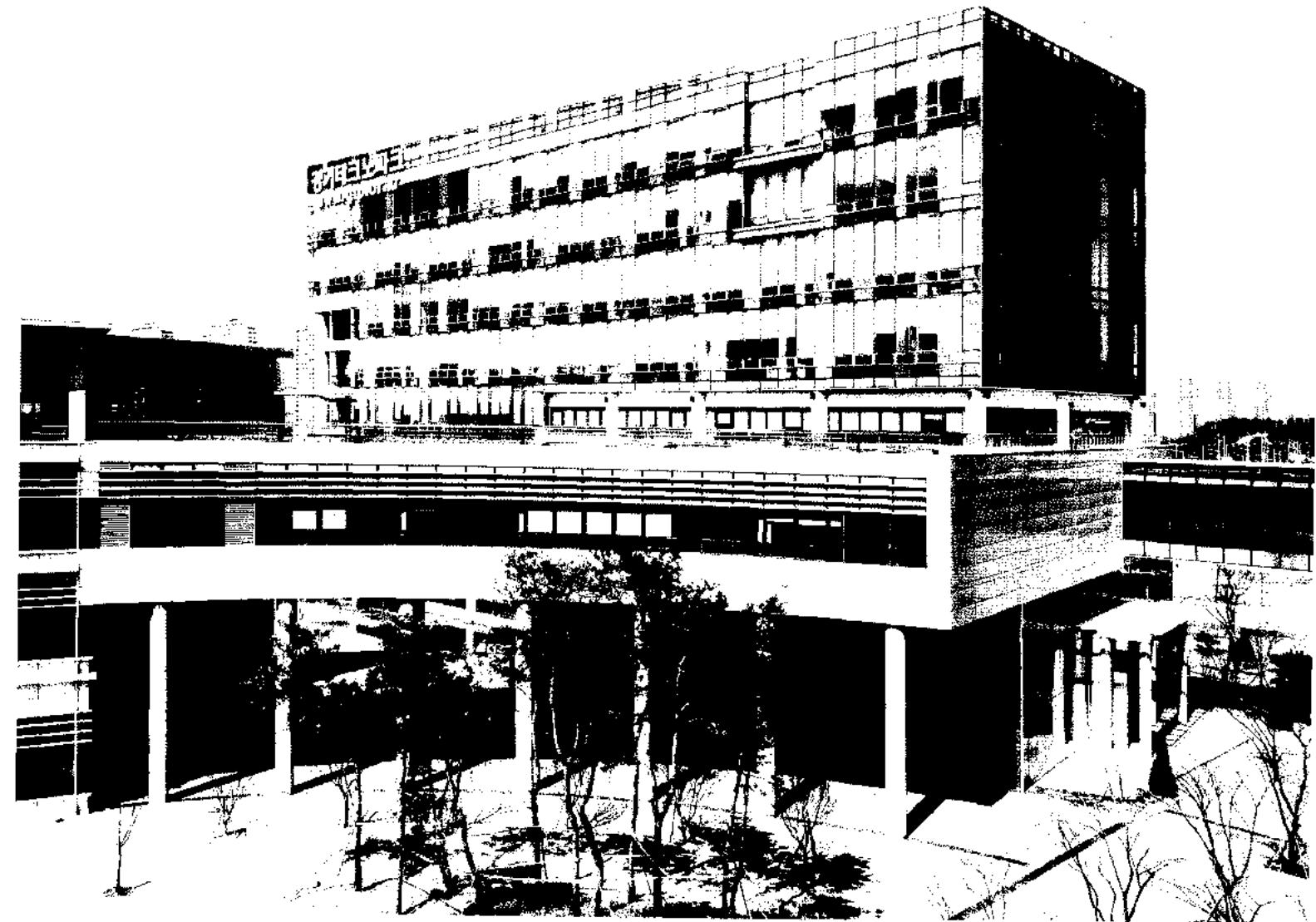
증축으로 발주된 프로젝트인 만큼 새로 계획되는 부분과 기존 시설이 전체적으로 완성되고 완결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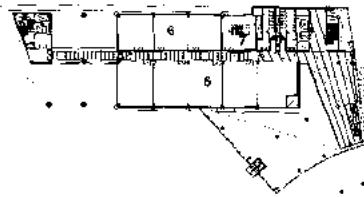
먼저, 기존 시설 중 남북으로 열린 주 간돌과 마천가지로 징방형의 긴 매스를 평행하게 배치하여, 중축되는 시설이 전체 단지 내에서 주요 시설로서의 위계를 갖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로, 계획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단지 전체가 쉽게 파악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앙광장은 원형으로 둘러싼 기존 지원편의동을 길이 방향으로 연장하여 닦아

줌으로써 지나치게 열려있어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내부 광장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에 일부를 필로티로 계획하여 광장에서 대부분 외부 공간으로의 시각적, 기능적 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 하였다. 또한 복층유리 커튼월인 주 외관은 알미늄 복합판넬을 주 재료로 한 기존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 Old & New가 명확히 인지되도록 하면서도 기존 건물의 수직, 수평도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전체가 통일감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과거 로마 카피톨리아 광장에서 마켈란젤로가 했던 생각과, 피렌체 안눈치아토 광장에서 미켈란젤로가 고민했던 것의 공통점은 증축되는 부분과 함께 전체를 보다 완성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오늘에 있어서도 이 두 예들은 시대를 끌리지만 오늘날 똑같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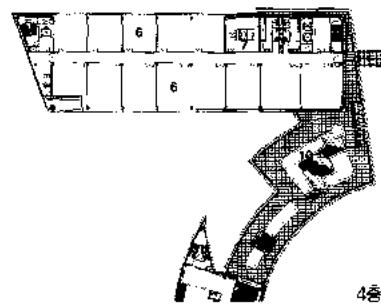


1. 남동측 계단  
2. 동동측 계단  
3. 운상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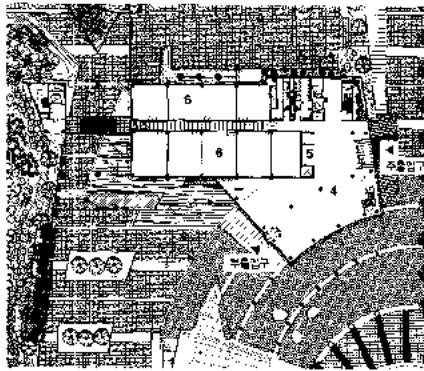
01\_ 전기실  
02\_ 기계실  
03\_ 조암김사실  
04\_ 토비  
05\_ 안내  
06\_ 연구실  
07\_ 관조실  
08\_ 유개실  
09\_ 회의실  
10\_ 옥상정원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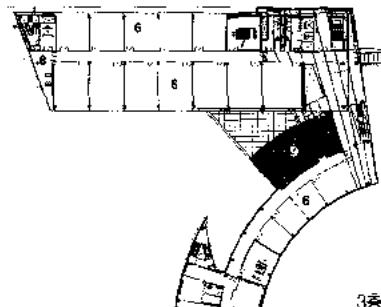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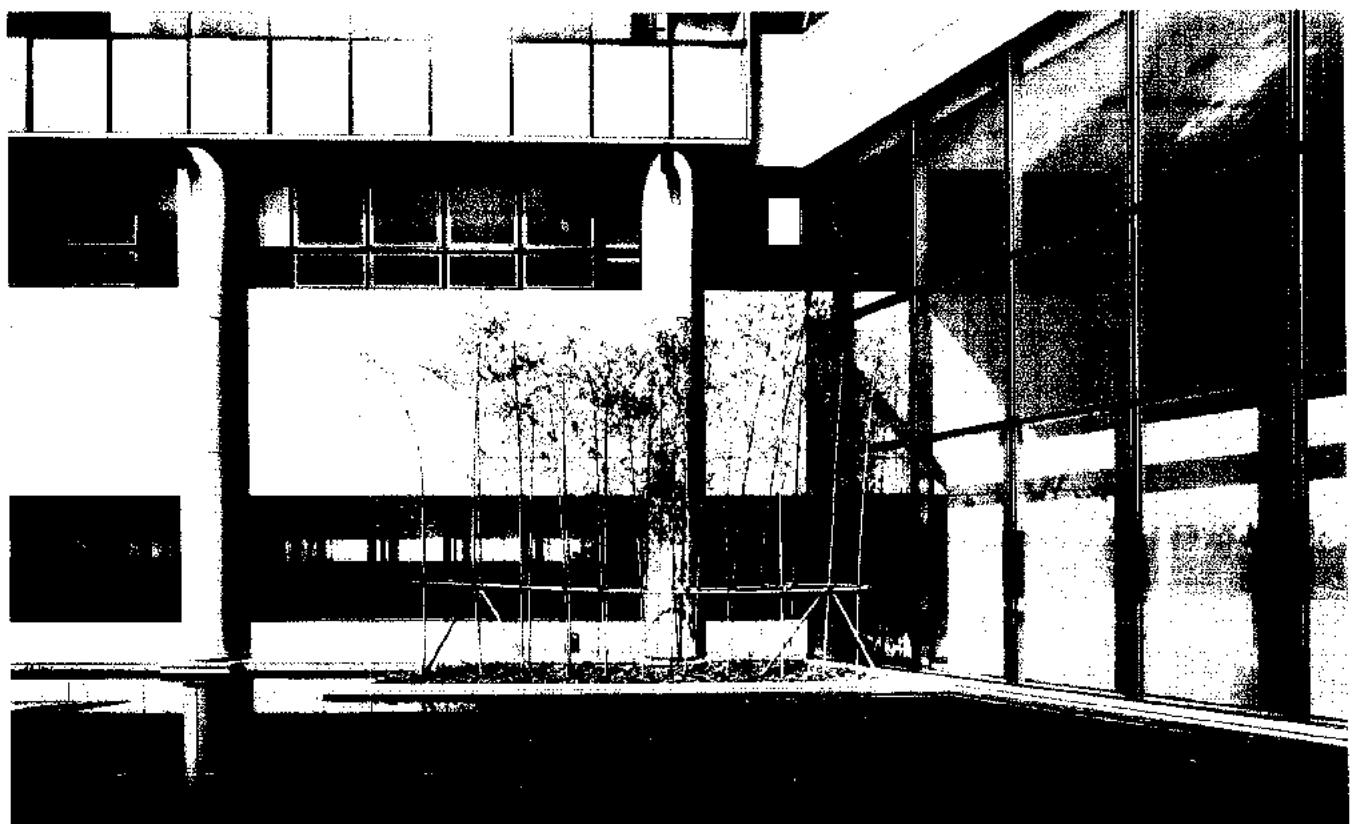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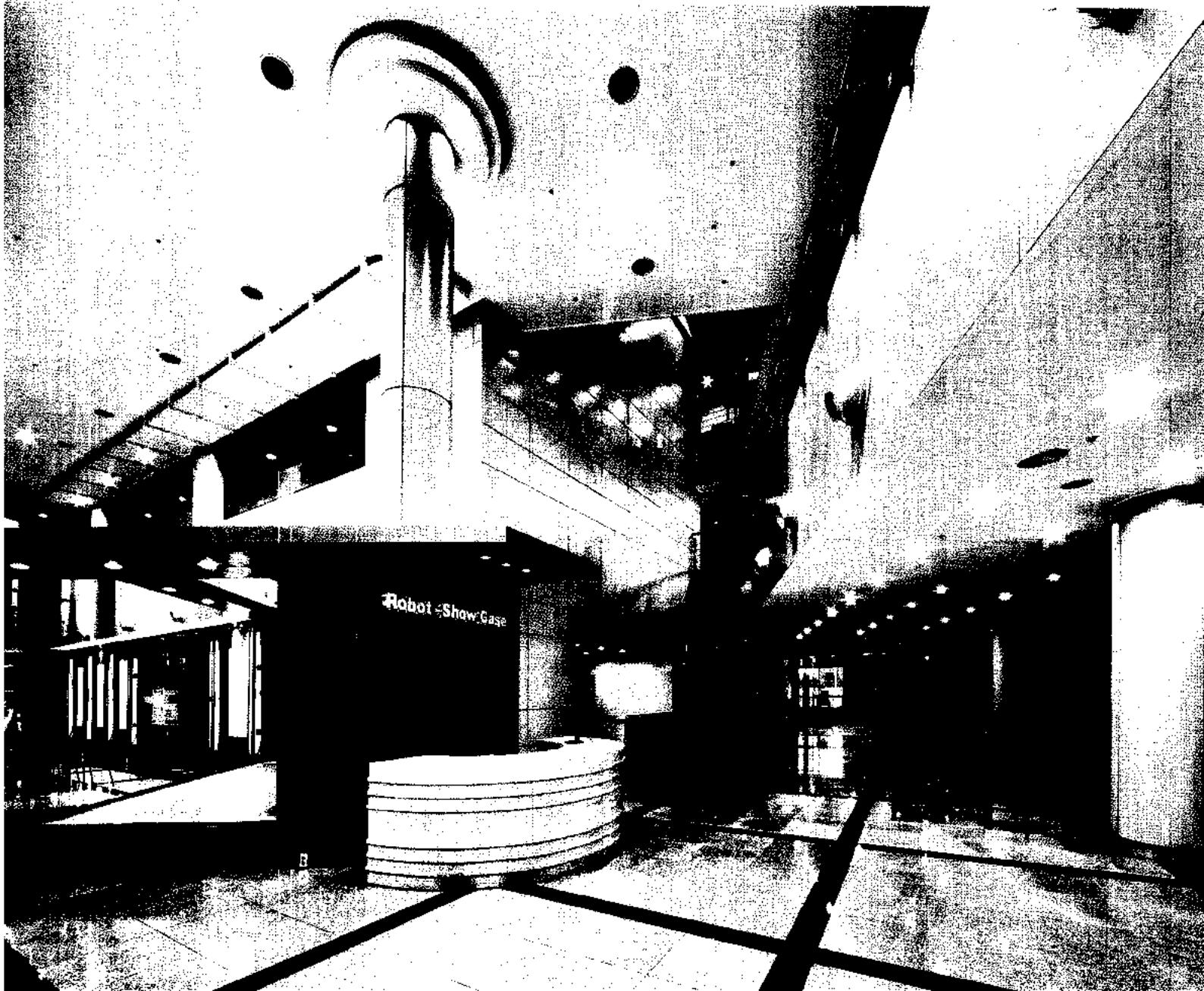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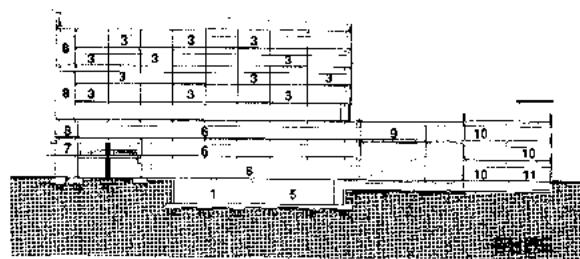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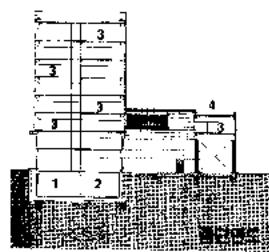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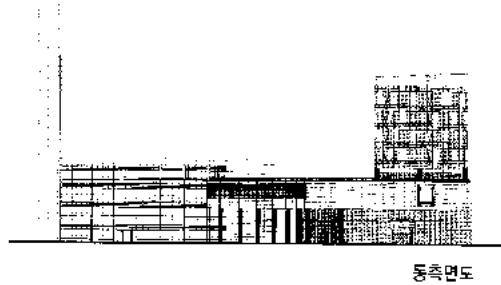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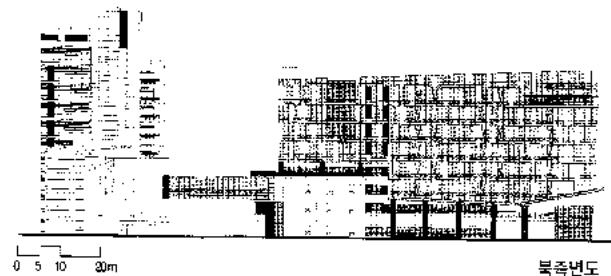
3층 평면도





1. 기동인구  
2. 페트나에서 바라본 주출입구  
3. 대기

01\_ 기계실 05\_ 창고 09\_ 연결통로  
02\_ 선기실 06\_ 목도 10\_ 임대공장  
03\_ 연구실 07\_ 홀 11\_ 공작기계실  
04\_ 옥상정원 08\_ 휴게실



## 화원작품 | Works



박준영 / 정학원 건축사사무소 주기인  
by Park, Jun-young, KIRA

### 의력

- 서울산업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사람의 도시(환경 도시 연구소정학원)
- 2009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상 수상
- 2008 한국건축가협회상 최종대상 선정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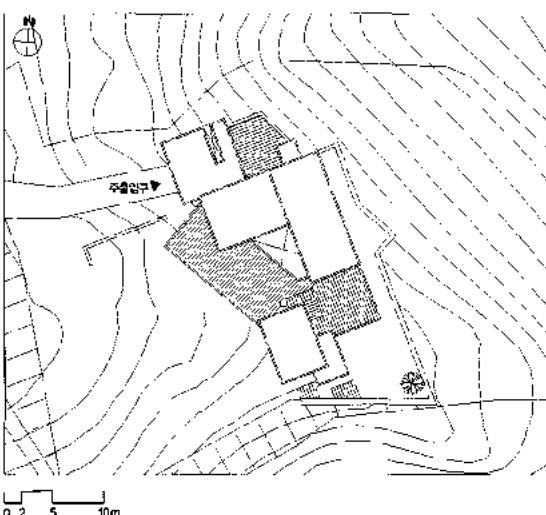
### 주요작품

초우재, MJ빌딩, 퍼즐하우스 팬텀사옥,  
인회현 외

## 목은재(木隱齋) MOKEUJE

### ● 배치도

###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지역/지구	관리지역, 한강수변구역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360m <sup>2</sup>
건축면적	309.06m <sup>2</sup>
연면적	501.14m <sup>2</sup>
건폐율	13.10%
용적률	12.18%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석고보드위 비닐페인트, 노출콘크리트
구조설계	BD ENG.
설비·전기	성우설계 엔지니어링
시공사	주식회사 미래탑
설계담당	심관총, 방현기

Location Asin-ri, Okcheon-myeon, Yangpyeong-gun,  
Gyeonggi-do, Korea

Site area 2,360m<sup>2</sup>

Bldg area 309.06m<sup>2</sup>

Gross floor area 501.14m<sup>2</sup>

Bldg coverage ratio 13.10%

Gross floor ratio 12.18%

Structure R.C

Bldg. Scale B1, F2





### 아신리 목은재(木隱齋)

경주 육산리 독락당(獨樂堂)의 미로간은 길은 공간의 전이(轉移)로 유도되어지는 길이 아니라 이동에 의한 공간의 치환(置換)으로 공간반전의 길이다.

계정(溪亭)의 일덟의 건축과 주변의 4산과 5대 바위들의 의미부여는 담장안의 건축이 자연으로 확장된 관념(觀念)의 건축이다.

육감의 종족이 아닌 사유(思惟)의 확장이며 반전인 것이다.

회재(晦齋)는 그렇게 휘돌아가는 세상의 반전을 꿈꿨던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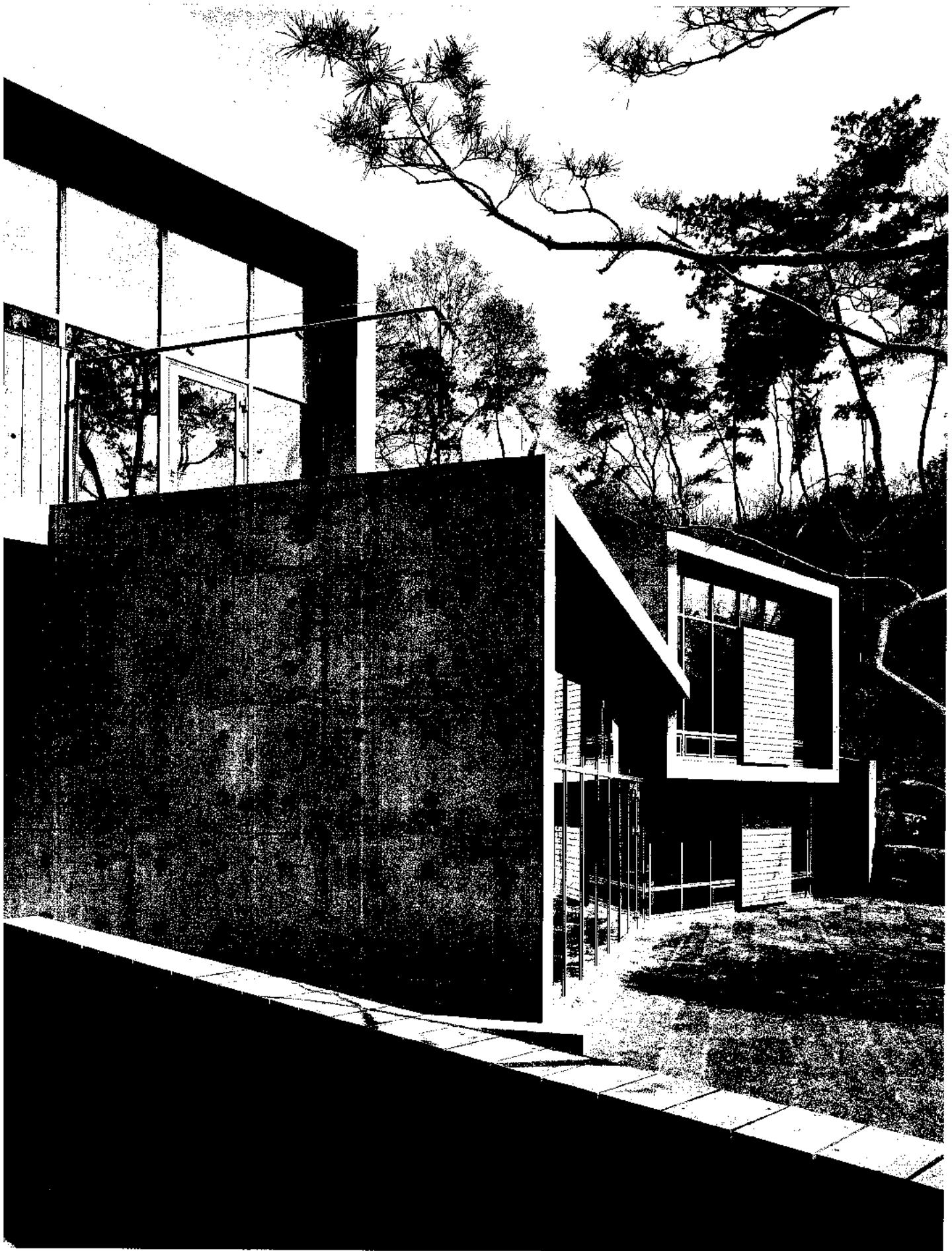
아신리 '목은재'는 '독락당'의 그것에 주목한다.  
가로지른 담장과 뒤로 숨은 Shelter, 일탈을 꿈꾸는 Mass들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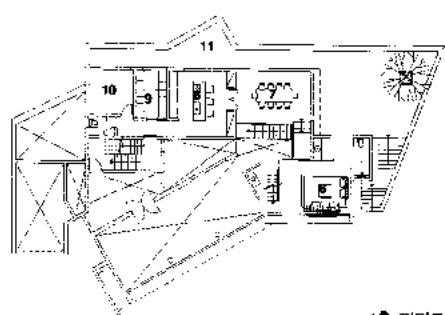
틈새로 연결되는 공간과 운도차에 의한 바람길.  
중첩된 공간의 치환으로 끊긴듯 이어지는 길.

그길은 내정(內庭)을 중심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산책하듯 화유(回遊)하며 공간의 반전을 표한다.

교차된 축은 그 규모와 동선의 궤적을 짐작하기 어렵게 하고 문뜩 부딪쳐야 이어지는 외부는 자연의 성리인 계절의 변화와 그 변화로 건축을 생동케하고 사용자의 일상을 조율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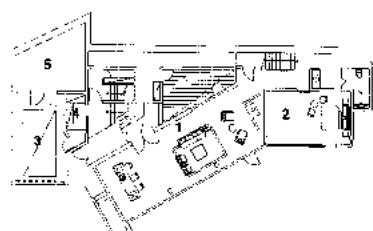
준공 후 건축주의 새로운 담호 목은정(穆殷鼎)은 이 땅과 관계한 건축의 또 한번의 새로운 반전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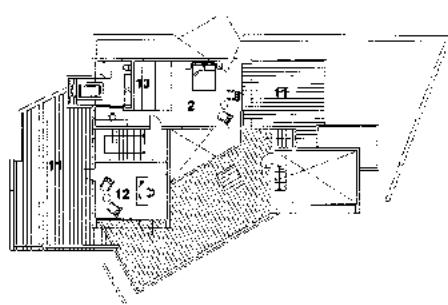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          |          |
|----------|----------|
| 01_ 거실   | 08_ 주방   |
| 02_ 침실   | 09_ 대웅도실 |
| 03_ 치고   | 10_ 기사실  |
| 04_ 부현관  | 11_ 대크   |
| 05_ 보일러실 | 12_ 서재   |
| 06_ 출입점  | 13_ 드레스룸 |
| 07_ 식당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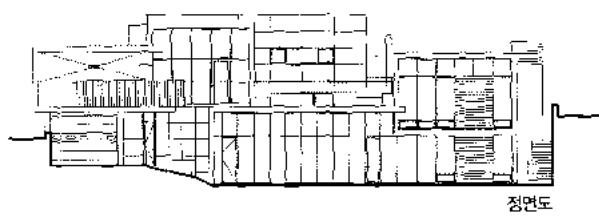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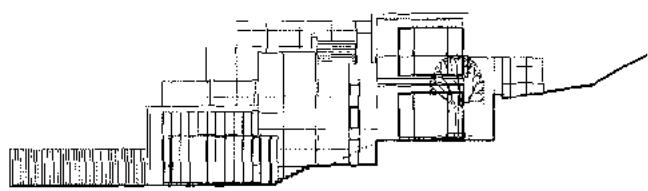
0 2 5 10m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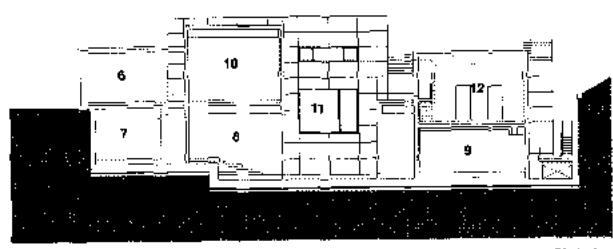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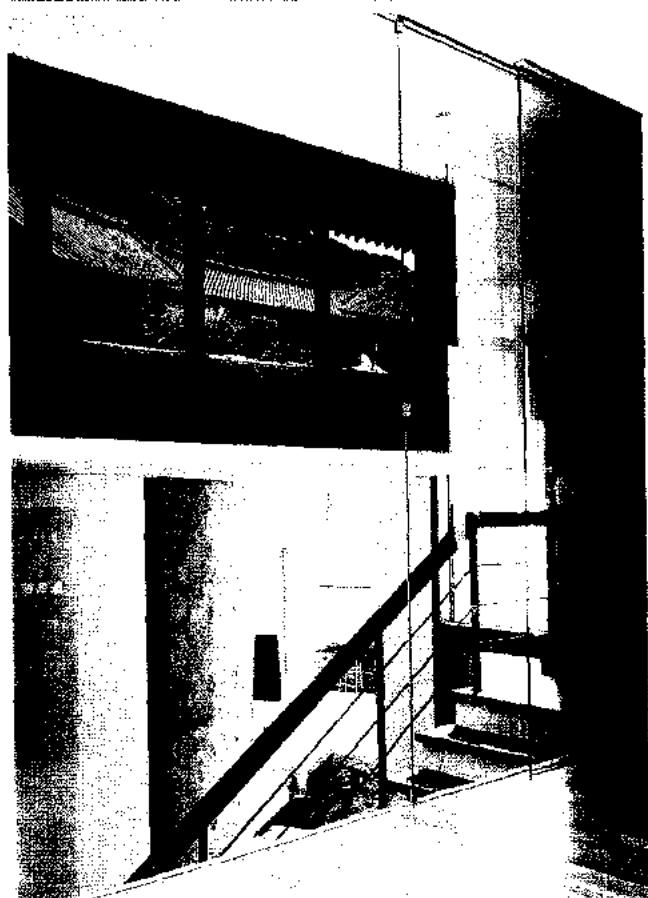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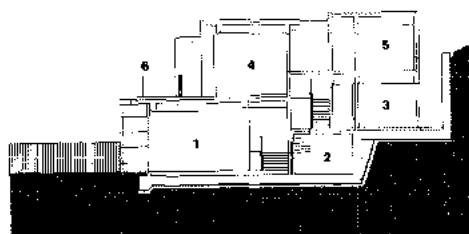
우측면도



01\_ 거실 04\_ 서재 07\_ 차고 10\_ 서재  
02\_ PIT 05\_ 드레스룸 08\_ 현관 11\_ 출입  
03\_ 나운도설 06\_ 베란다 09\_ 창실 12\_ 온접실



횡단면도



종단면도

## 회원작품 | Works



이혁희 / 정회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다원건축그룹  
by Lee, Hyeok-hui, KIRA

### 학력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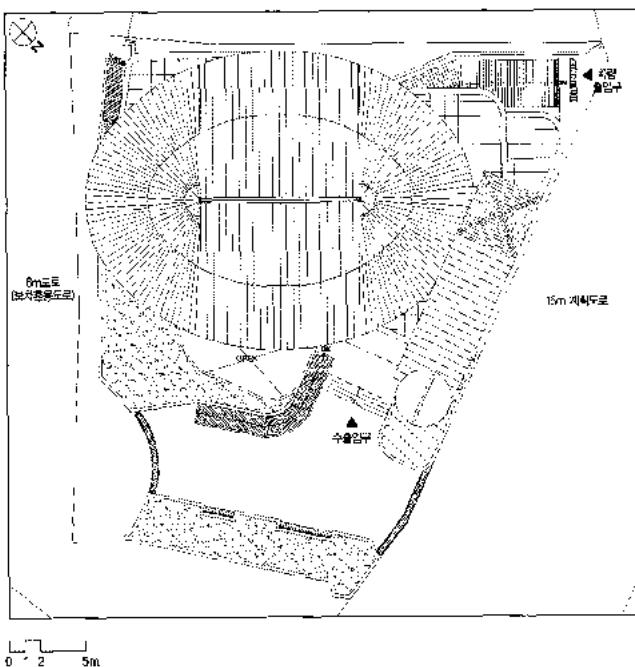
### 주요작품

수원서광교회, 전주바울교회, 강등교회 외

# 고등제일교회

## Godeung First Church

### ● 위치도



###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18-1 외 6필지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902.00m <sup>2</sup>
건축면적	445.89m <sup>2</sup>
연면적	2,592.41m <sup>2</sup>
건폐율	49.43%
용적률	140.34%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목구조(지붕)
외부마감	토속벽돌, 라인징크(지붕), 중탕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집성목, 타공 춤음보드, 춤음보드, 인테리어 치장타공판, VP도장
구조설계	사립구조
설비설계	이레ENC
시공사	(주)가순 종합건설
설계담당	오세원, 주신덕, 김성한, 김효준



Location 418-1, Godeung-dong,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902.00m<sup>2</sup>  
Bldg area 445.89m<sup>2</sup>  
Gross floor area 2,592.41m<sup>2</sup>  
Bldg coverage ratio 49.43%  
Gross floor ratio 140.34%  
Structure R,C+Wood  
Bldg. Scale B2, F3





서울공항근처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자된 지역으로, 성남 고등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충수제한 3층, 높이제한 10m으로 불리한 조건이지만 높이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집성목 목구조를 이용하여 지붕들을 만들고 천장을 노출바닥이 되게 하여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였다. 지붕을 경사로 처리하여 인센티브 1.5m를 적용하였다.

지하 2층은 주차공간이며, 주차장까지 선큰(Sunken)을 뚫어 채광과 환기가 이루어지게 했다. 지하 1층은 채광이 잘되는 선큰(Sunken)가든과 식당, 주방, 교육실이 있다. 식당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하여 냄새와 지하의 습기문제까지도 해결하였다. 1층은 어린이집과 교회교육관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의 출입구가 있다. 그리고 2층은 소예배실과 목양실, 사무실이 있으며, 3층은 본당과 자모실이 있다.

이 계획의 주안점은 교회의 상징성과 지역의 상징성을 대변하는 이미지 창출이었다. (성령의 횃불종탑이 지역 사회를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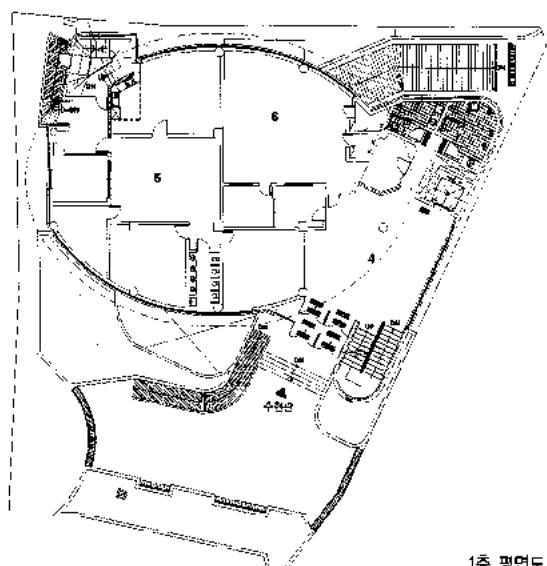
대지의 형태는 사각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북측과 남측에 도로가 접해 있고 대지의 고저차로 남측은 경사로 되어있다. 북측과 남측 모두 보행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북측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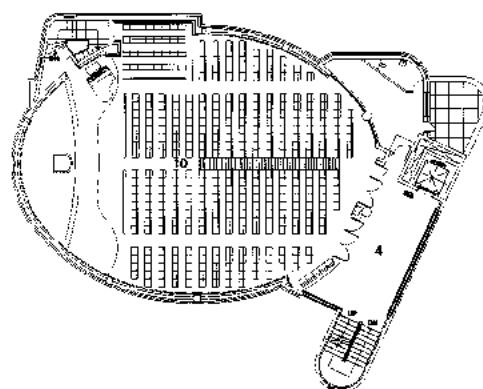
지역주민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 외부공간으로 부터의 내부공간으로 발걸음이 저절로 옮겨질 것이다. 마당을 통해 화합을 유도 하며 외부조경과 지하 선큰가든 등을 통해 친숙함을 더 할 것이다. 낮은 건물이지만 각종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교회에서 본당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낮은 충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노출 천정을 선택하였고, 구조와 인테리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구조목인 집성목을 사용하여 예배공간으로서의 업숙함과 중후함을 가지게 되었다. 시공시 스프링클러 배관, 에어콘 배관, 조명기구 등의 노출이 가장 큰 고민이었으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간섭이 적은 곳을 선정해 오히려 인테리어의 미를 더하였다. 타원형의 예배공간은 방주를 상징하며 잊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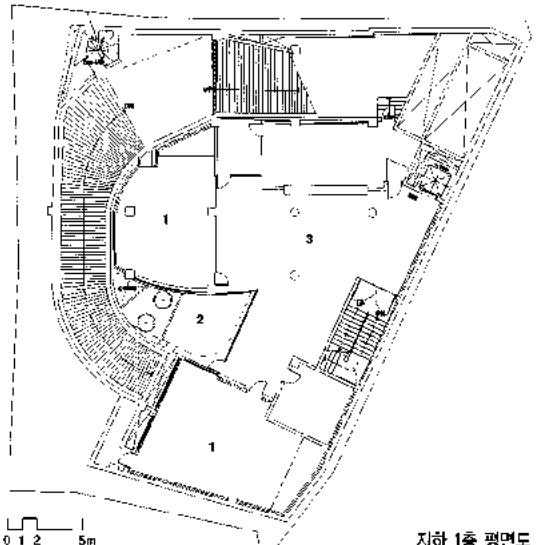
징크지붕은 산화가 끝난 상태이므로 농판처럼 색이 변하지 않으며 수십년동안 은은한 은빛의 교회로 찬란함을 더하여 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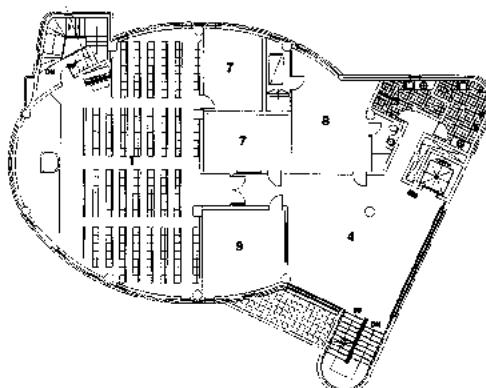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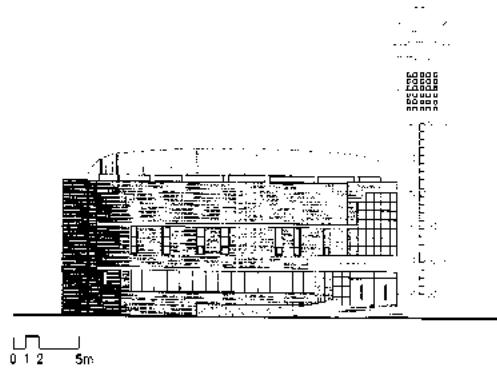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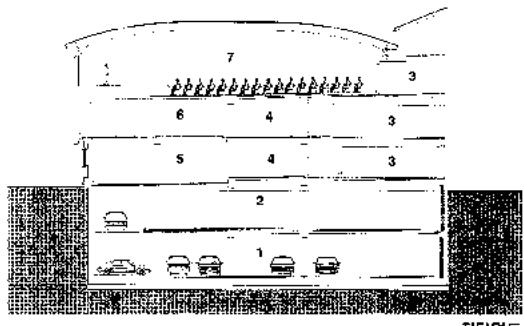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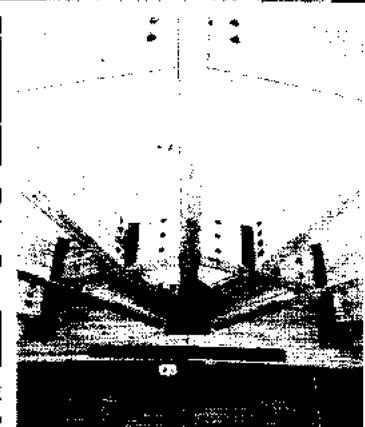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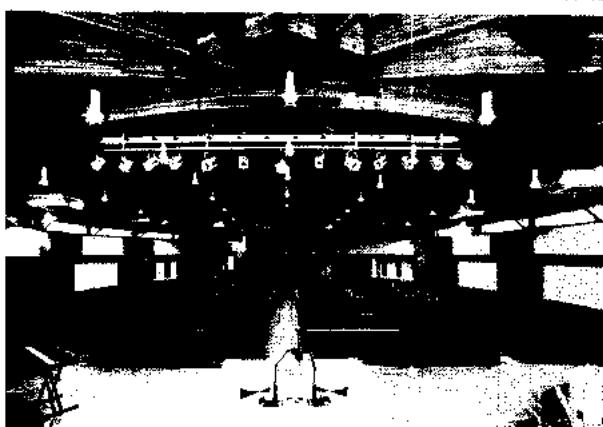
01\_ 주차장  
 02\_ 식당  
 03\_ 친교홀  
 04\_ 교육관  
 05\_ 어린이집  
 06\_ 소예배실  
 07\_ 예배당



정면도

횡단면도

1~2. 벽면  
 3. 본관 실내 출입문  
 4. 2층 소예배실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 참가업체 탐방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AUM Architects, Engineers & Consultants, Inc.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 전시장 전경

지난 2008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경제TV가 공동 주최한 '한국건축산업대전2008'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이 '건축, 삶의 터를 디자인하다'란 주제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건축, 문화, 도시, 환경, 디자인이 어우러지는 건축전문전시회로 개최 3회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전문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2008년 전시회는 물론 지난 2006년, 2007년 전시회에도 상당수의 건축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사 홍보와 함께 일반관람객에게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시켜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여하여 한국 건축산업 발전과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무하고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특집을 마련해 연재한다.

- 편집자주

범건축은 1984년 창립한 이래 최고의 실력을 갖춘 종합설계사무소를 목표로 정진하여, 국내 굴지의 종합건축사사무소로 성장해 왔다. 모든 프로젝트는 사업계획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완성될 때 까지의 기간은 물론, 초기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고 전문 인력을 적절히 투입함으로써 건축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반

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범건축은 크게 설계부문, 부설연구소, CM기술부문 및 경영기획부문의 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본부의 구성원은 어떠한 프로젝트이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나로 일치된 원벽한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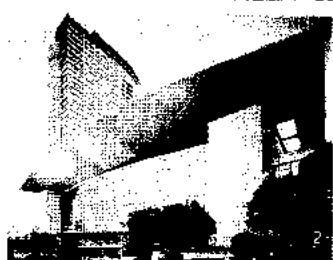
## 창립 스토리 : 창립부터 현재까지

범건축의 창업자인 강기서 회장은 설계사무실을 창업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전문분야인 CM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를 맡아 보려 하였으나, 같이 하기로 한 다른 설계사무실 내부에서 생활을 달리하는 이들이 있어 무산되었다.

그 당시에는 다시 취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던 터에 대재대동하고 건축설계에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던 후학 중 유연재소장이 제안을 훈련해 받아들였고, 동기인 박상근 소장도 같이 하기로 의기 누팔되어 범건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동시장 근처의 시무실에서 1984년 9월에 설계사무실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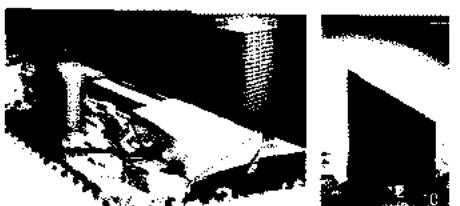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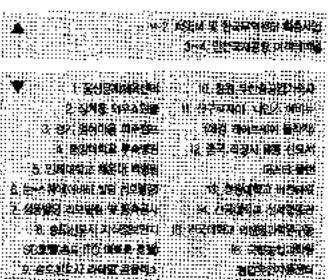
본건축에서 첫번째 프로젝트는 인제학원 무산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었다. 이미 백병운과는 깊은 스트리를 갖고 있어 어렵지 않게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그 이듬해 본격적으로 인제학원의 설계업무가 시작되면서 사무실도 범건축의 1기라고 할 수 있는 입구성동의 건물로 옮겼으며, 회사의 형태도 법인으로 바꾸어 범건축의 성장이 시작되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1997년과 1998년의 IMF를 맞게 되었으나, 범건축은 중요한 프로젝트—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ASEM 및 한국무역센터 확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 슈즈톱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중요한 변화를 갖게 되는데, 창업자이신 강기서 회장은 사무실 입구의 진반적인 지휘를 후배인 박영건 사장에게 위임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범건축에서 명실상부한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심여 년을 거치는 동안 범건축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초대형 복합건축물, 대학 시설, 호텔 관련시설, 연구소 관련시설, 병원관련 시설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범건축을 한번 만난 건축주는 반드시 다시 찾을 수 있는 건축 주로 만든다'는 신념을 갖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설계를 하여, 인제학원의 경우는 25년 이상 설계를 도맡아 해 오고 있고, 긴 국대학교는 2002년 이후에 긴국대 경원을 시작으로 설계한 것이 건대입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건대 캠퍼스의 대부분이 범건축 설계로 이 되었다. 범건축에서 설계한 대표작으로 인터콘티넨탈 호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ASEM 및 한국무역센터 확충사업과 건대병원, 중대병원, 무주리조트, 푸르덴션 타워 등이 있으며, 주거시설로는 잠실시그마 타워, 동암시장재개발 프로젝트 등이 있고,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부산의 초고층 롯데타운,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행정 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신축공사, 송도 신도시의 레저시설을, 그리고 서울국제금융센터를 시행하고 있다.



## 주력 사업

- 건축설계  
(의료, 교육, 연구, 업무 및 상업, 복합, 레저 문화, 주거시설 등)
- 프로젝트 개발계획
- 도시 및 환경계획
- 공사감리 및 CM
- 리노베이션 설계 및 감리



## 기업 이념 및 Vision

... 기업 이념은 기업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정리한 내용으로, 기업의 내부 및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 범건축의 이념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 능력과 기술력을 향양하며  
아름 토내로 선문적인 서비스 성장을 구현

### ■ 실천 방안

1. 국가의 미래와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설계집단
2. 역사와 전통의 계승발전을 주도하는 설계집단
3. 인간의 권리와 환경의 보전을 우선하는 설계집단
4. LCC자원의 경쟁적 직장성을 고려하는 설계집단
5. 지속적인 자아 평가를 실현하는 설계집단
6.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설계집단

### ■ 범건축의 비전

1. 전문가집단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쉽 시향
2. 전문가집단의 최고 수준의 팀워크 구축

## 최근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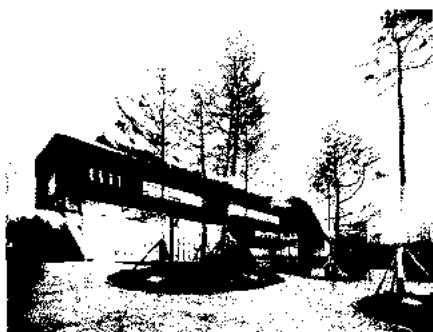
### ■ 수상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및 한국콘크리트학회 작품상 -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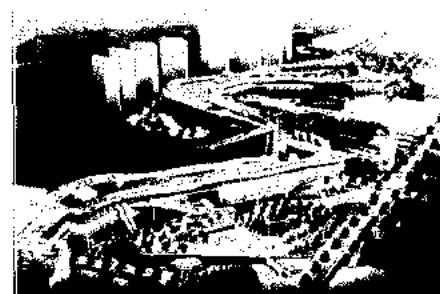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건축상 진영상 - 건국대학교 제2생명기원관



양산건축문화대상 우수상 - 용수문화체육센터

### ■ 주요 수주 프로젝트



행성중학교 학교 신축 및 교육 시설 확장 공사



승의운동장 빌딩단지개발 PPA 사업



제주 예개 총장형 주거단지

### ■ 준공 프로젝트



‘동도’ 한변지마



트신인프라코어 공기자동화 BG R&D 센터



화성소방서



한남대학교 기숙사 및 글로벌 하우스



원자력의학원 환경개선사업  
(임진노동 및 존립방사선과동)

## 조직 및 인원구성 소개



### 대표 / CEO

#### 설계부문

전략설계      설계본부      해외설계

#### 경영기획부문

경영기획실      전략기획실

#### CM기술부문

CM기술본부

#### 부설연구소

감리현장

## 대표이사 및 임원진 소개



회장  
강 기 세



대표건축사  
박 영 건



대표/CEO  
이정면



CM기술부문 사장  
김순환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졸업
- (주)법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 (주)서울건축 대표이사
- 중앙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유산특수설계공단 대표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주)법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총역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 대표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공동대표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졸업
- (주)법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CEO
- (주)법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미국자사
- (주)법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책임 건축가
- (주)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책임 기획가
- (주)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책임 기획가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졸업
- 국립 아倘공대 건설공학과, 연수
- (주)법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CM기술부문 사장
- 건설교통부 건축사부과
- 고속철도 건설기획단 건축사무관
- 철도청 건축사무관



설계부문 부사장  
김명호



경영부문 부사장  
원형준



설계부문 소장  
박형일



CM기술부문 소장  
김진기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 (주)법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총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졸업
- (주)법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환경그룹 건축연구실
- 기전건축

- 총역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위자 정책과정 수료
- (주)법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경기공업고등학교 건축학과 졸업
- (주)법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 일양건축 연구소
- 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 일양 건축 공방

경영기획부문 이사 강보현, 박종석, 정민수

설계부문 소장 윤영로, 권보순, 서영호, 신웅성, 지대성, 김형주, 박상호, 김기영, 박형일, 이인서, 고준배, 장덕찬, 박소정

CM기술부문 소장 이정덕, 전동한, 김준섭

## 범건축의 차별화 및 주요 특징과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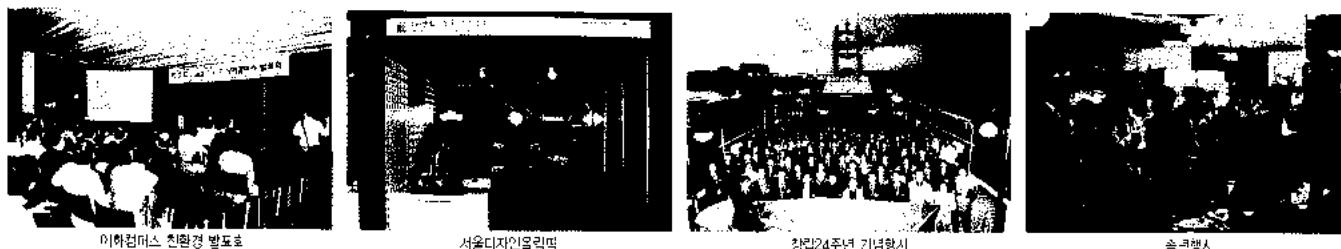
범건축의 25년은 건축기념설성과 설계발전과정에서 각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며, 고객과 사용자의 철여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건축적인 언어와 방법으로 성실히 소화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루어 온 것으로써 한국건축계의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범건축은 설계, 기술, 운영의 상호 보완적인 다각화된 사업을 지향하고 있다. 건축디자인과 설계 전문

가로 구성된 4개의 실계조직과 디자인 연구소 그리고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CM기술본부는 건축구조, 기계, 전기설비 등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기술 검토능력을 구비하고 있어 프로젝트 초기부터 건축물의 주공 유지관리 단계까지의 종합적이고 안정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과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정신 그리고 능동적인 프로젝트 접근방법과 창조적인 범건축의 디자인은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 초대형 복합건축	· 교육 및 연구시설	· 건설관리	· 사업기간 관리
· 의료 및 노인시설	· 주거 시설	· 관리관리	· 품질관리
· 숙박 및 휴양시설	· 체육 및 둔호집회시설	· 공사비 및 공정 관리	· 유지관리
· 업무 및 판매시설			
· 사업타당성 검토	· 개발주택 수집	· 도시계획	· 단지계획
· 시장분석	· Business Financing	· 미스터풀랜	· 지구단위계획
· 개방개념 설정	· 건축물 가치평가		

## 사내외 주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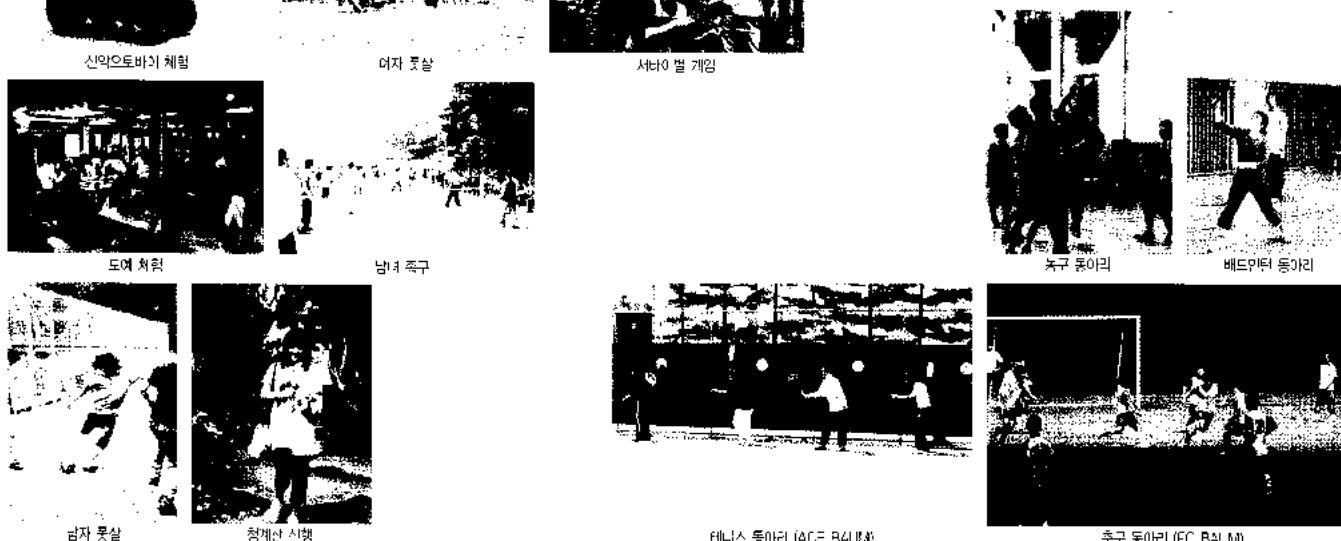
### ■ 사내외 주요 행사



### ■ 야유회



### ■ 동아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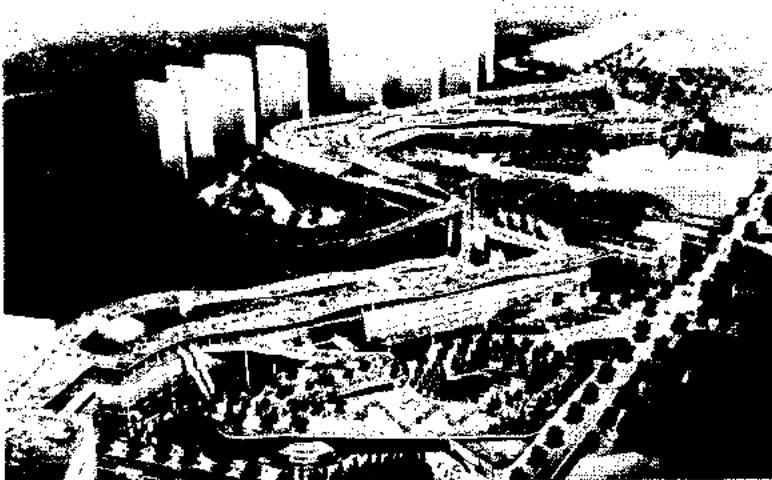
## 법건축 프로젝트 Best Work

###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Government Complex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Korea

대지 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남원 송촌리 일원 송진한성나루 II 청 4-1-9
지역/지구	충청남도청지역, 청양군청지역, 충청남도지자체 수변경관서 구 1-5생활권
주요 용도	공공용지구(청주군청)
대지 면적	21,339.00m <sup>2</sup>
건축 면적	5,381.03m <sup>2</sup>
연면적	216,250.19m <sup>2</sup>
건축 평율	45.35%
용적률	130.30%
기타	서화 1동, 서화 7동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돌출구조
주요 대상	의원 T-42C, 갈라모이보울드라이브, 노출콘크리트, 리브콘크리트, 드리자/질페인트
설계 참여	내부 : CA Floor와 OA부문 청환경수심마인트, HAE15 단면증설레스 발기축 : 이영기, 주준현, 이재우, 전동현, 고준배, 이성태, 이영신, 이충석 수출기 : 손동식, 박재철, 민승복, 이우경, 주경이, 김성복 아트디자인 : 김관석, 김명호, 김충선, 조미정, 최선배, 안정원

순성 활상곡 본 계획안의 서체는 떠 있는 성벽과 텁터들이 어 디자인 그리고 환경 자족적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마스터플랜의 개념과 디자인 워터를 최대한 존중했고, 특히 녹화된 지구 공원과 그 하부 수차장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떠 있는 성벽이란 전통 노동에서 석용했던 성벽의 이미지와 기능성을 동시에 주구하는 개념이다. 구불구불한 어절으로 지붕 위를 걷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성벽을 따라 산책하던 '수성놀이'의 문화 위기를 경험하게 한 것이다. 건물의 지붕면을 어떤 쪽으로 나누고 중첩해 활성곡의 음률처럼 불결치도록 구성했다. 환경 자족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화소연료 사용을 최소화해 어너지와 자연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터 둘 이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하는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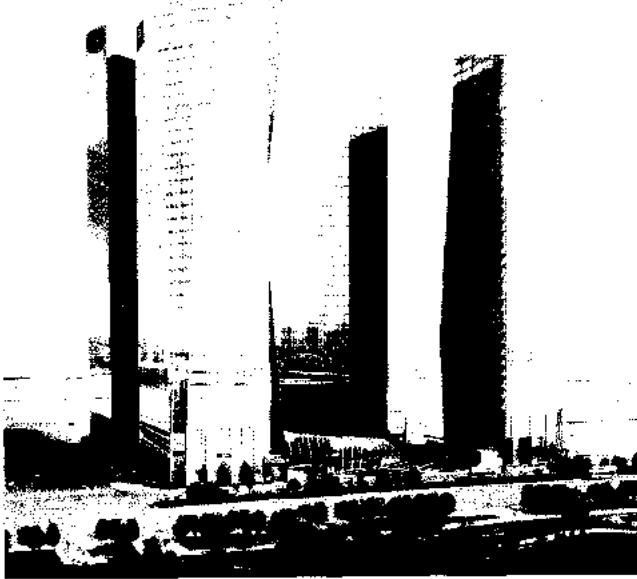


### 서울국제금융센터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Seoul

대지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23-
지역/지구	한반산업지역, 유품도관지구, 글동시설보호지구
주요 용도	민박시설, 의구시설, 숙박시설
대지 면적	58,058.00m <sup>2</sup>
건축 면적	15,596.50m <sup>2</sup>
연면적	606,334m <sup>2</sup>
건축 평율	47.3%
용적률	399.22%
기타	지하 7층, 지상 35층
구조	철골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 대상	필자, 스티커네스 쇼핑, 우편, 석재
설계 참여	서영호, 신내성, 김진수, 백서현, 최민민, 이경서
Design	Aquitectonica, U.S.A.

서울국제금융센터(IFCS)는 대규모 교통 수용능력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여의도에 위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피스 전용 빌딩 3동과 500개의 색실을 갖춘 오성급 복합호텔이 이루어져 있다. 또한, 3개 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쇼핑몰과 멀티플렉스 및 엔터테인먼트센터가 지하층에 계획되었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국제적인 오피스건물에 부합하는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미래의 신기술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세계적인 건축물 건설과 풍경 평수적인 요소를 자리 짓고 있는 초환경요소를 설계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여 유지비를 줄이고 광범위한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친환경 인증제인 LEED의 (Gold)등급의 획득을 목표로 본 프로젝트 계획 초기 설계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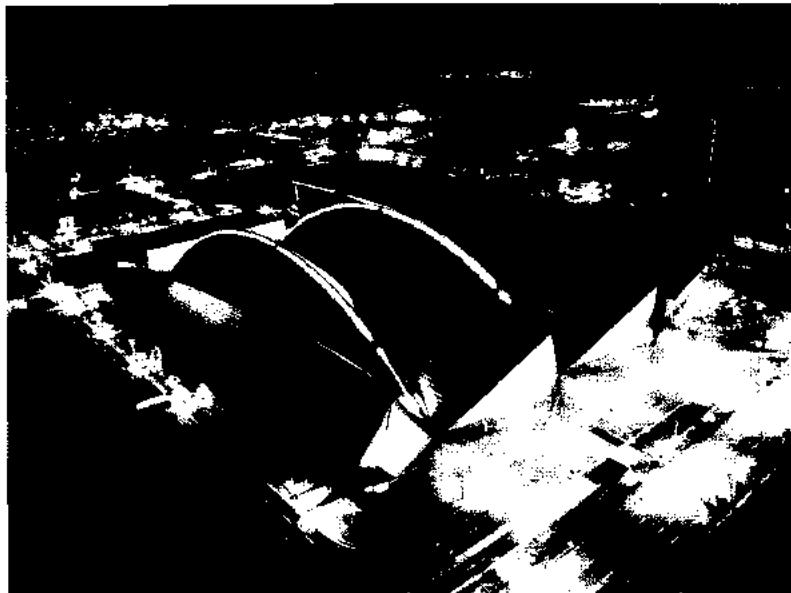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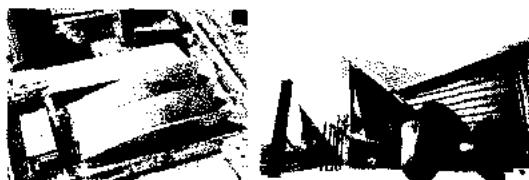


## 법건축 프로젝트\_ Best Work

### 송도 컨벤시아

Convensia, New Songdo City

대 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산업단지사업지구
주 요 용 도	문화 및 전시회장
대 지 면적	102,100, 2m <sup>2</sup>
건 축 면적	25,222,32m <sup>2</sup>
연 면적	54,128,79m <sup>2</sup>
건 폐율	26,06%
용 척률	36,60%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설계 - 콘크리트 구조, 현금수
주 요 마감	외부-곡면페널, 폴리유리 / 내부-화강석, 가죽, 목재
설계 참 여	박형일, 이인서, 김기훈, 이민미, 김종석, 임정호, 김수암, 박세경, 이서복, 신봉기
Design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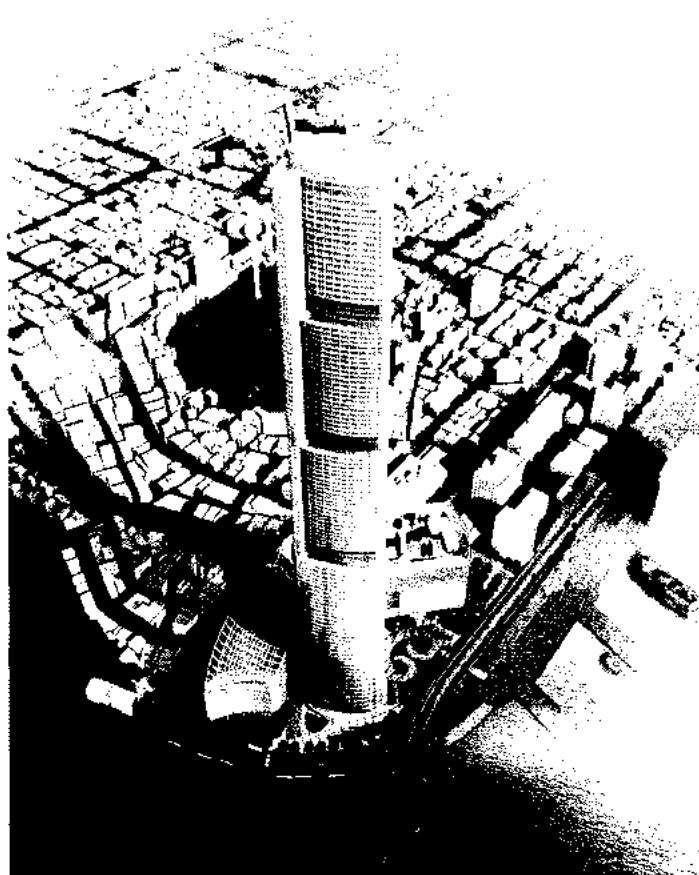
54,000m<sup>2</sup>의 컨벤션센터(컨vensia, convenvia) 1단계 건물은 송도신도시 중심부의 오픈 스페이스인 센트럴파크(Central Park)의 남쪽 끝단에 위치한 국제회의장 및 전시장이다. 이 건물의 외형은 센트럴파크 외부로 물결치듯 연속되는 선형을 따라 모개시며 접혀진 마치 중첩된 산맥의 형태로 넓은 지붕을 개념화하였다. 이 지붕은 계획된 요소들을 하나의 묘직으로 둘러싸고 있어, 지붕이 곧 전시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이 요소들은 전시장, 전시, 지붕을 시사하는 공간 및 하객장 등이다. 전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무주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으며, 중첩된 산맥의 형태를 「송도컨vensia」의 독창적인 전시장 내부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데 활용하였다. 전시장은 전시공간과 서비스 공간이 분리되어야 하므로, 이 경계부분의 양쪽에 코어를 차립적으로 배치하고, 이 위에 지붕구조를 올려놓는 독창적이고 특별한 구조시스템을 적용하여 기능이 없는 광대한 전시공간을 구성하였다. 지붕은 Boat Gable 형태의 파이프 트러스 구조물로, 90여 미터의 무주공간을 이루었다. 고자하는 Boat Gable 형태의 지붕은 안개 깊은 오전에 세드×

### 부산 롯데타운

Busan Lotte Town

대 지 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7가 20-1번지 외 110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종사지구지구
주 요 용 도	판매시설, 문화 및 청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소방시설
대 지 면적	40,185.00m <sup>2</sup>
건 축 면적	22,504.00m <sup>2</sup>
연 면적	570,197.00m <sup>2</sup>
건 폐율	56%
용 척률	959.10%
규 모	지하 6층, 지상 107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 요 마감	모이모증유리, 알비는 패널, Channel Glass
설계 참 여	박영민, 권보순, 이재경, 김지운, 박강민, 신수미, 이승진, 이재현, 일승철, 선세영
Design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U.S.A.

세계 유수의 초고층 빌딩과 비견될 수 있는 초고층 빌딩 진축으로 항구도시로서의 부산의 이미지 고장 및 유통,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높이 107층, 700 객실 규모의 호텔과 전망대 및 부대시설을 갖춘 디워와 국제회의장, 오락 및 문화시설을 갖춘 지총부의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첨단 시설이 도입된 인텔리전트 날당으로서 자연과 인공이 잘 조화된 환경 친화적 환경을 구축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 범건축 프로젝트\_ Best Work

Urban Environment, Culture, Art

###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 EWHA Campus Complex

대지 위치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지역/지구	제12층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주요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 면적	529,549.70m <sup>2</sup>
건축면적	136,80m <sup>2</sup>
연면적	68,057.24m <sup>2</sup>
건폐율	16.08%
총적률	56.63%
구조	지하 0층,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
주요 마감	외부 : THK28 로이복충유리 내부 : 자작곡, L-무설유질총유판, 디공아연도초장재
설계 참여	원희준, 북형일, 지대성, 손성호, 고봉석, 김상현, 자혜진, 손기영, 신정훈, 김보경
Design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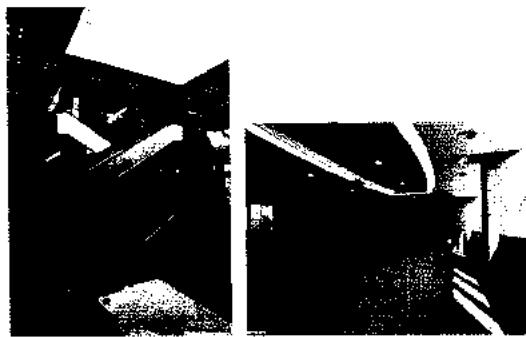
2006년 개교 120주년을 맞이한 이화여자대학교가 대규모 교육문화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진행한 '2002 이화여대 장기발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국제지명현장을 통하여 도미니크 페로의 안이 낭선되었으며, Local Architect로 범건축이 참여하였다.

전체 지하 6층, 지상 1층 규모로 하부 2개층의 주차장시설과 상부4개층은 교육시설 및 문화복지시설로 계획되었다.

폭 20m 길이 300m의 '캠퍼스밸리'가 정문과 본관사이를 연결하며 각종 아카데미 활동 공간,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보를 통해 '마물고 싶은 캠퍼스' 특히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여 차가 없는 화려한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취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 건국대학교 부속병원 Konkuk University Hospital

대지 위치	서울시 관악구 희망동 4-2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제3종지구단지계획구역
주요 용도	종합의료시설
대지 면적	17,100m <sup>2</sup>
건축면적	6,246.71m <sup>2</sup>
연면적	83,101.84m <sup>2</sup>
건폐율	36.3%
총적률	200.41%
구조	지하 4층, 지상 13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요 마감	외부 : THK30 하강식, THK18 칼라복충유리 창호 : TI IK150 알미늄 밀라켓시
설계 참여	원경순, 신봉성, 시대성, 손기영, 자혜진, 김상현, 김호영, 심재선, 최승환



'한국 제일의 일천 병원' 이런 병원계획으로 출발한 건국대학교 병원은 우수한 인력과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대학병원의 건립에 대한 기본을 지키면서 계획한 병원설계이고, 주변의 많은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병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하 4층, 지상 13층의 건국대학교병원은 단순한 형태의 병원으로 기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우수한 건물이 되도록 계획하였고, 내부 중앙 출입을 중심으로 배치된 외래 진료부와 간호동선이 가장 짧은 이중 복도 형태의 병동배치로 계획하였다.

지하철 역사와의 직접 연결을 통해 이용자들의 교통동선을 여러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해 병원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CEO 인터뷰



대표/CEO 이정연

범건축 이성면 대표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건축과 민우건축에서 탄탄한 건축실무 경력을 쌓았다.

아이사 1995년 범건축에 입사하여 인연을 맺게 되었고, 범건축 미고지사에서 10여년 동안 건축 활동을 하던 차에 2008년 10월 범건축의 대표이자 CFO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건축설계에 대한 능다른 신념과 열정으로 범건축의 조직과 업무를 재정비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건축집단으로서의 범건축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 건축사 선후배님에게…

건축을 생활하는 곳으로서의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이 많이 변했다. 외국에서 그야말로 '과분한' 대우와 인정을 받으며 '잘 못 길들여진(Spoiled)' 지난 10년의 타성으로 더욱 다르게 느끼는지도 모른다.

한 프로젝트의 Master로서의 역할보다는 충직한 협력자와 지원자로서의 건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어찌면 절대적인 것으로 보어진다.

선배들로부터의 모욕과 질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학교에서 쉽지 않게 억한 가치를 낸도질을 당하는 기간을 지나,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와 색깔을 보이기 시작하던 시기를 거쳐 누구보다 자신있는 큰 몸짓을 가지고자 노력하던 내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세 끼래의 선후배, 동기들을 생각한다.

언제부터인가 진정한 건축 그 자체보니는 '포장' 능력이 크게 평가되는 분위기에서 과연 우리나라 건축인들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가 무엇으로 변화되고 정착되었는지가 궁금해진다. 입사 후, 6년이 넘도록 Photoshop 프로그램하고만 싸름 했다는 한 건축계 후배의 고백이 아직 큰 충격으로 남아있다. 언제부터인가 디자인의 능력이 특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숙련도로 평가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Architecture란 언어는 이제는 Cyber-Tecture로, Architect가 Oper-tect로까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감히 예상해 본다. 대부분의 후배들이 실물 보다는 가상의 것을, 본질보다는 껍질을, 절대 스케일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례감을 기준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느낄 수 밖에 없는 피상적인 감각으로, 시각적 비현실적인 Cyber Space에서 2차원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 3차원으로 우리의

건축을 행하고 있다.

진부한 아날로그 세대의 시각일지도 모르지만, 모형과 제도판 위에서 써를하며 얻었던 것을 큰 자산으로 굳게 믿고 있는 내소견으로는 걱정이 우선된다. 이런 걱정이 휴머니즘이란 큰 이슈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배운 휴먼 스케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의 후배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기우이길 바란다.

BIM이, 그리고 비정형 3D 설계가, 디자인의 화두로, 건설계의 뜨거운 이슈로 얘기되고 있다. 제도판에서 2D 컴퓨터 설계로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에 이어, 이제, 채 이십년도 되지않은 현재, 3D 설계로까지 숨 가쁘게 진화하는데, 우리, 기성 건축인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과연 이에 발맞추어 진화하는 것인지, 혹은 진화할 수 있는 것인지가 많이 궁금한 요즘이다. 우리 기성 건축인들이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며,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과 도구로 무장된 후배들이 우리와 같은 건축인으로서의 회열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위의 생각들이 일개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의 의무보다 조금 앞서서 우리 건축계의 속제로 자꾸 제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뜬금없는 사고의 사치이고,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고 제 걱정의 일단을 접어보고자 애쓰지만, 과연, 우리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선수'를 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선수'를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인지, 깊은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 참가업체 탐방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DONG IL Architects & Engineers Co., Ltd.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 참가업체 탐방

지난 2008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경제TV가 공동 주최한 '한국건축산업대전2008'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이 '건축, 삶의 터를 디자인하다'란 주제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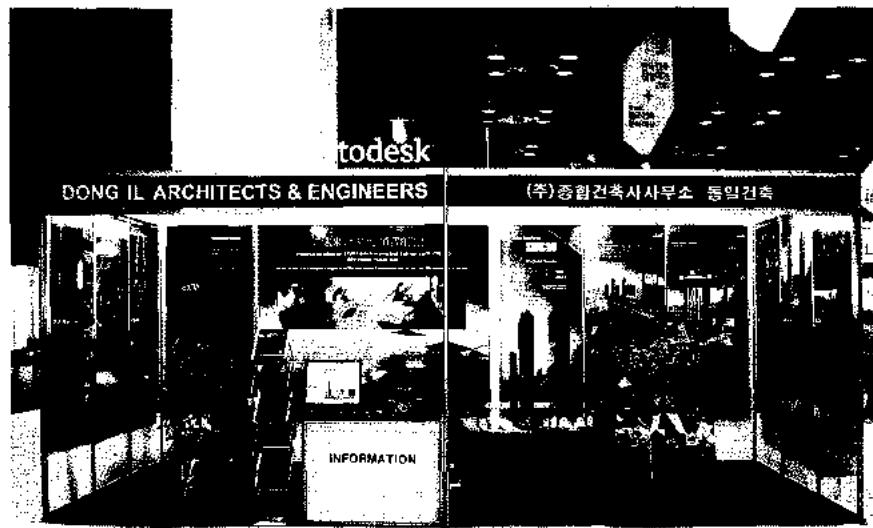
한국건축산업대전은 건축, 문화, 도시, 환경, 디자인이 어우러지는 건축전문전시회로 개최 3회째에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전문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2008년 전시회는 물론 지난 2006년, 2007년 전시회에도 상당수의 건축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사 홍보와 함께 일반관람객에게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시켜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그간 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여하여 한국 건축산업 발전과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무하고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특집을 마련해 연재한다.

- 편집자주

건축설계 및 엔지ニア링 분야의 초일류 기업을 달성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동일건축은 1982년 창립이래, 괜찮 한 주거공간을 위한 아파트, 편의를 고려한 복합빌딩 및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인텔리전트 빌딩 등 350여 프로젝트에 대한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를 신뢰와 기술을 바탕으로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기

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그 동안 대통령상, 건설교통부장관상, 국방부장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각종 현상설계 당선 및 건설사업관리(CM) 수행 등으로 높은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 창립 스토리 : 창립부터 현재까지

동일건축은 1982년 동일건축 기술연구소를 시작으로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를 신뢰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988년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으며, 1997년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였다.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시스템을 구축하여, 1998년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감리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개발 및 건설사업관리(CM)까지 포함하는 토클 서비스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동일건축이 지금의 궤도에 오르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IMF 시절이었다. 그러나 모든 임직원의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이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더욱 단단한 동일로 재무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비결은 단 한명의 감원 없이 전문 인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써, 글로벌시대에 대비하여 전문 기술 인력을 늘리고 사업 부서를 재정비하는 등의 세계화를 위한 준비기간이 되었던 셈이었다. 어려움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취적인 노력과 강한 정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것이다.

이후 다양한 설계 수행을 기반으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 설계 당선, 2002년 전수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사업관리(CM), 상암벤치오피스블딩 및 국립부산국악원 현상설계우수상 등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해외 진출을 위한 단계적인 노력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1996년 미국 뉴욕시 소재 중견 건축사사무소 폴스 앤 포울(Fox & Fowle)과 기술 재후협약을 맺은 것은 건설개방에 의한 세계화 바람에 대비하고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 및 실계분야의 합작 해외진출을 위한 포석이었다. 2003년도에는 해외건설업 건설안전지니어링으로 신고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7년 캄보디아의 설계 수주 이후 베트남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중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난 2008년 3월 호치민시 개발업체인 Dai Ha Tech. Corporation에 투자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베트남 개발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 해외진출 시도를 바탕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양카인 신도시개발계획과 PHMY-LIGA 아파트 프로젝트, 텅통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동일은 앞으로도 설계, 감리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 송도신도시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설계를 수행하면서 HOK와 KPF 등의 해외 설계사와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국내에 미래감각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문화, 천연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오늘도 동일건축은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초일류기업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 미래 건설사회를 이끌어나갈 기업으로 한걸음 더 내딛고 있다.

1. 동일건축 본관 2. 동일 워크숍 3. 해외 협력사와 화상회의 4. Dai Ha Tech. Corporation과의 협약 체결 5. 베트남 북인카인 신도시 개발계획 협약 체결



## 기업 이념 및 Vision

(주)동일건축은 창사3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초일류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건설사회를 선도하고자 한다.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 개발, CM 사업 분야에서 동일건축만의 시너지로 최상의 가치를 실현한다.

**설 계** 내실 있는 조시체계와 뛰어난 인재들을 중심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구현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의 설계조직과 긴밀한 협력을 통  
해 극저화 세계화를 위한 입구체계를 갖추고 있다.

**감 리** 다수의 대형프로젝트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비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엔지니어링** 내규모 건설프로젝트 경험과 분야별 전문시식을  
갖춘 다수의 기술 인력이 본사에 상주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 국동산 자리를 최적화 하고, 적석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검토 및 금융기법 등을 도입하여 초기 사  
업 검토에서부터 지주자체개발 사업방식, 지주공동

## Our Vision

우리의 비전은 뿐리깊은 나무의 강한 신뢰의 정신에 있으며,  
3가지 핵심기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Synergy

첫째는, 시너지입니다.

### Collaboration

둘째는, 협력입니다.

### Specialization

셋째는, 전문화입니다.



"Only through Global Collaboration Will be able to achieve success."

사업방식, 재건축, 새개발 컨설팅 및 해외주단사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걸친 노하우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력사업

설 계
• 개발설계 • 대관업무
감 리
• 설계감리 • 검증감리 • 건적 • 가치광학
엔지니어링
• 개발전략 • 설계 • 계약관리 • 농질관리
건설사업관리(CM)
• 계획설계 • 기관설계 • 청탁감리 • 도면검토 • 도면검토 • 타당성 조사 • 시공감리 • 원가관리 • 안전관리 • 도시설계 • 실시설계 • 시공감리 • 구조검토 • 재정지원 • 시공지 선정 • 공정관리 • 환경관리

## 최근성과

the# CENTRAL PARK II 주상복합 신축공사 | 캄보디아  
스타리버 수상복합 | 시흥장현지구 B-5BL, A-4BL 현상  
설계 | 송도신도시 E5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 송도신도  
시 F3-1블럭 압무시설 신축공사 | 시흥장현지구 B-3BL,  
B-9BL 현상설계 | 시흥장현지구 B-6BL 현상설계 | 부산  
대연 혜산지구 입찰제안 | 베트남 북안카잉 신도시개발 프  
로젝트 | 베트남 탕통 복합시설 프로젝트 | 베트남 PHY  
MY LIGA Apartment Project Master plan | 의왕시  
디자인 파크



1. 송도신도시 E5BL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시흥장현지구 B-3BL 3. 의왕시 디자인파크 4. 베트남 PHYMY-LIGA Apartment Project Master plan

## 조직도 및 임원진 소개

회장

부회장

사장

관리 부문

설계 부문

감리/CM 부문

설계  
1/2/3/4/5부

개발 본부

전략사업  
1본부

기술 본부

영업 본부

부산 지사

디자인 기획팀

베트남 지사

전략사업  
2본부

기술부

감리 사업부

해외설계부

베트남 계열회사

현장 관리부

CM 사업부

기술 연구부

### ■ 임원진



회장 오봉석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 건축공학과 석사
- 부산시립 간설국 조총과
- 대한주택공사
- 한국건설기계협회 이사
-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부회장



부회장 배영찬

- 인제대학교 건축공학과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총괄사장 윤수현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 고려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
- 내통신법
- 남송건축 연구소
-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김균

-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건축학
- University of Pennsylvania 건축대학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in Tempe, Arizona 건축과 교수
- 충북대학교 Fulbright 건축과 교환교수
- (주)동일건축
- Eleba Becket in Minneapolis, Minnesota 부사장

직책	설계부문 부사장	감리CM부문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성명	엄주원	배학근	홍종택	이동수	진상호	조천명	조철희	이석규	진경돈

## 동일건축의 차별화

### 동일건축의 차별화

동일의 기본적인 기업 가치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재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동일건축 오봉석 회장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여건으로 힘든 날들이 많았음에도 현재와 놓을 수 있었던 귀중한 바탕은 임직원들 모두리고 여기고 있다. 현재의 종합건축은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육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개인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환경 제공

동일 건축은 사회의 젊음을 책임지는 신입사원들에게 1달간의 건축물 답사 및 응용 프로그램 교육 등의 과정을 통해 건축 실무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해마다 해외건축답사를 기획하여 국제적인 건축경향 진단을 의회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과 관련하여 설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친환경인증건축물협회(USGBC)에 가입하여 직원들에게 LEED 등급의 친환경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다. 해외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언어 역시 사내 교육을 기획하여 직원들의 사기개발을 위한 날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그 있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 지원

직원들 간의 유대관계를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들 간의 동호회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각 동호회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능산, 고건축 답사, 서진, 스포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동호회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연말에는 농호회 활동 결선을 통해 한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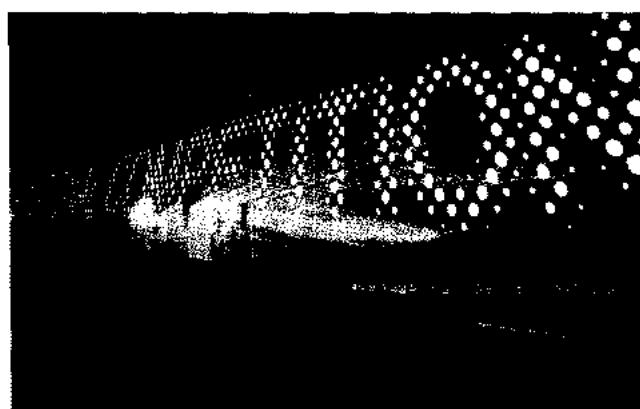
동호회 활동 이에도 정기적인 우크숍을 통해 구성원간의 우대관계를 끈끈히 하고 있으며, 다양한 포상제도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사내외 주요 행사 및 사회 기여활동

### | 골목길 포럼 |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3개의 건축사사무소(동우, 토문, 동일)이 서로의 유대 관계 및 협력관계를 위해 2006년부터 푸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하게 되었다. 경쟁사인 현실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기초로 세 회사의 유대관계가 논독해지는 이웃사촌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개월마다 각시의 색깔을 살려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 이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미나를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랫동안 건축계에 모범적인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 나눔의 문화 실천 |

2004년부터 매년연말 블우이웃돕기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 직원의 시발적인 참여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따뜻한 짐을 나누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유대감을 가지며 물품지원 뿐만 아니라 시설 보수 및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실현과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는 문화로서 매년 확대해나가고 있다. 매해 연말 주변을 되돌아보고 서로운 한해를 준비하며 나눔경영의 실천을 통해 힘찬 도약을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 프로젝트 Best Work

http://www.koreanarchitects.org/karaward/2009/06/the-central-park-ii.html

### the# Central Park II

#### 주상복합 신축공사

Songdo D23BL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

대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4번지

주거용도 공동주택, 단지 및 균형생활시설

대지 면적 34,596m<sup>2</sup>

건축 면적 15,066m<sup>2</sup>

연면적 184,588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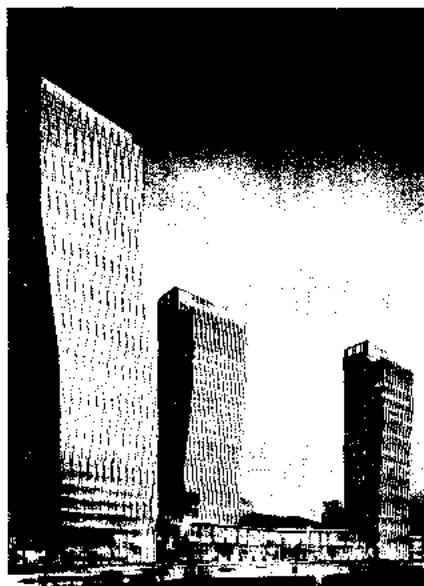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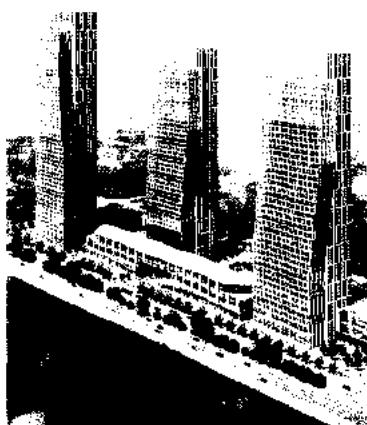
건폐율 43.55%

용적률 368.75%

규모 지하 2층, 지상 49층

설계총괄 이동수

설계참여 상영우, 쇼우 셔, 한성관, 김광진, 김민신, 오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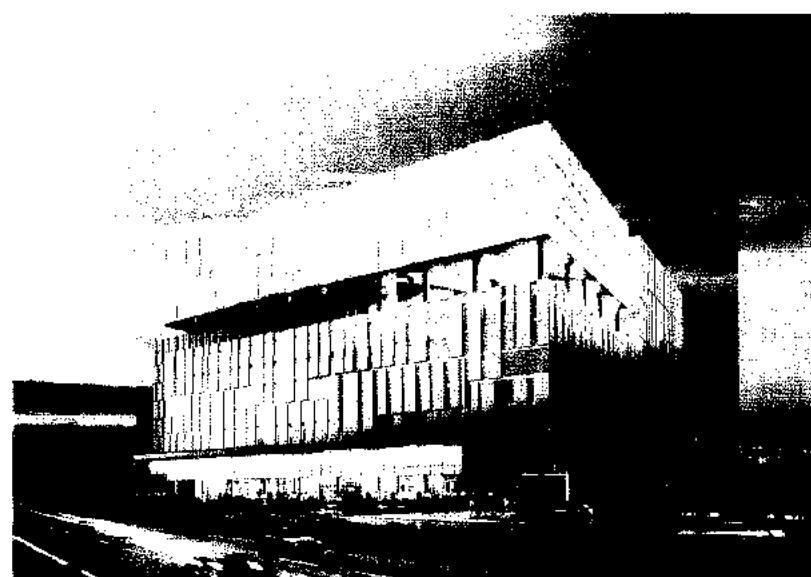
Central Park II는 지하 2층, 지상 49층 규모의 3개 타워와 지상 3층 규모의 포디엄형 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부합하고 국제학교로의 진입성을 강조였다. 디자인 컨셉은 다이나믹한 Dance Scheme의 마스에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움직임을 추상화하여 다이고날 패턴을 정면 Curtain Wall 패턴으로 적용하였다. 배면 역시 숲의 나무껍질을 나타내는 슬리드 패널 패턴을 대비시켜 순수한 자연적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타워외곽의 굽诘된 매스 디자인으로 다이나믹하고 차별화한 송도국제도시의 또 하나의 Landmark 건축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 탕롱 복합시설 프로젝트

Thang Long Office &

Commercial Complex



대지 위치 Ho Chi Minh City, Vietnam

주거용도 업무 및 상업시설

대지 면적 6,140.6m<sup>2</sup>

건축 면적 3,287.7m<sup>2</sup>

연면적 42,736.73m<sup>2</sup>

건폐율 53.54%

용적률 605.07%

규모 지하 1층, 지상 12층

설계총괄 진경돈

설계참여 강대현, 고윤성, 김용희, 이유경

대지는 호치민시 공항(Tan Son Nhat Terminal)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공항관련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다. 계획의 목적은 공항관련 종사자를 위한 복합시설로 계획하는 것이었으며,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위락시설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디자인 컨셉은 공항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으며, 공항 관제탑의 인상적인 등을 이미지를 받아들여 오피스텔 불록을 전면 상부에 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라이트 박스(Light Box)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스키니 디자인은 베트남의 숲을 이루는 자연목의 구성을 추상화하여 입면을 구성하였으며, 지속성이 강한 자연의 이미지를 건물 스키니에서 강조하였다. 그 결과, 건물은 전체적으로 모던하면서도, 상부의 라이트 박스(오피스텔), 그 하부의 보이드 부분(카페 등), 그 하부의 수목을 추상화 한 스키니 매스(오피스), 그리고 지상층 블록(입구 및 위락시설)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도심지에서 강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이미지의 건물로 디자인이 이루어졌다.

## 프로젝트 Best Work

### 베트남 북안카잉 신도시개발 프로젝트 1단계사업

North An-Khanh New City Project

대지위치 베트남 하노이 북안카잉

주거용도 주상복합,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단지), 학교 등

대지면적 197,394m<sup>2</sup>

연면적 359,073m<sup>2</sup>

규모 지하 1층, 지상 30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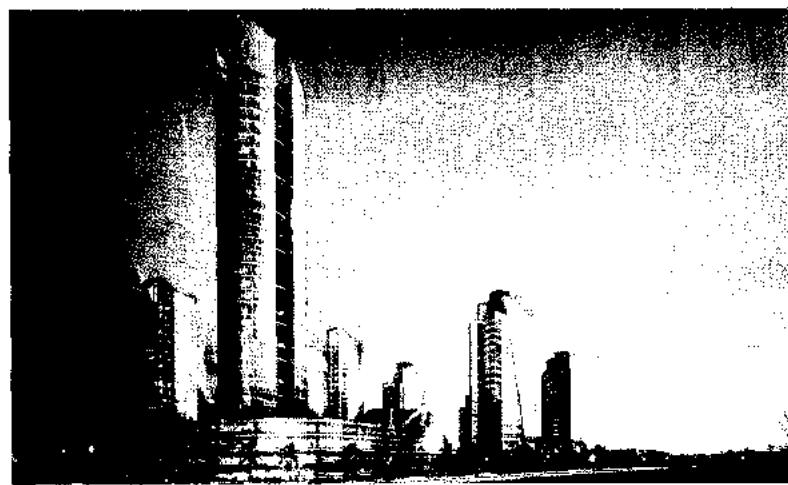
설계총괄

조합회  
설계참여 신동현, 이인복, 김주연, 권종훈, 이원석, 조영태,  
이능원, 강유현, 이세수, 양진현, 전민주



본 프로젝트는 베트남 북안카잉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2,641,400m<sup>2</sup>)에 당선되어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도시로서의 협지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자연환경 친화적이며 현대 감각적, 미래지향적인 자족형 신도시 설계를 기본방향으로 Water City, Wind City, Well-being City라는 세 가지 테마를 구현한 W-City를 제안하였다. 'W-City'는 자연친화적이고 편안하며 품격 높은 주거단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라스하우스, 빌라,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의 다양한 주거로 구성하였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하여 배치하였다.



### the# Central Park III

### 주상복합 신축공사

Songdo D24BL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4번지

주거용도 상상수택, 판매시설

대지면적 23,831m<sup>2</sup>

건축면적 13,619m<sup>2</sup>

연면적 126,213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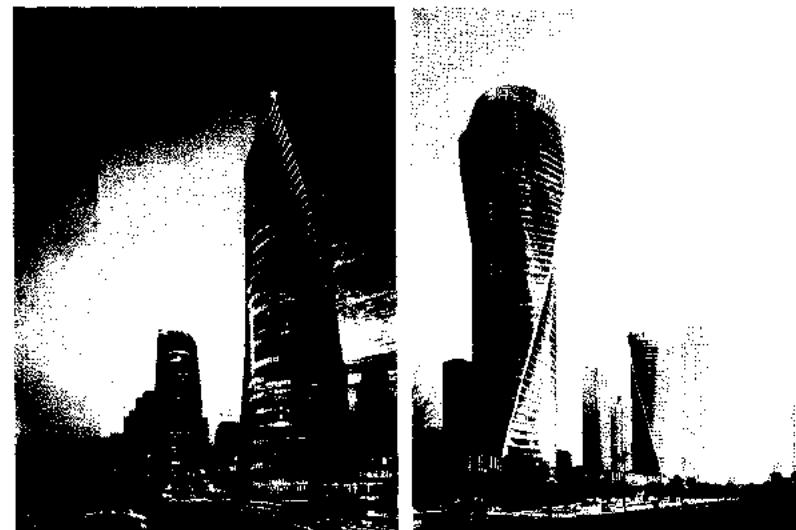
건폐율 44.05%

용적률 364.19%

규모 지하 2층, 지상 46층

설계총괄

이중수, 김상용, 이우미, 이현섭, 임영미



Central Park III는 기존의 주거건물 형태와는 원전히 차별되는 파격적 견본디자인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초고층건물의 트렌드로 볼 수 있는 트워스트 건물 형태이다. 디자인 컨셉은 Central Park I과 II처럼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꽃잎 형상의 바단이 한개 층마다 2도의 각도로 회전하면서 코아울이 전체슬레이브의 하중을 견디도록 캔틸레버 개념을 적용하여 기능이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그에 따른 평면설계가 국내에서는 기존에 찾아보기 힘든 개방적인 평면의 특성을 갖는다. 건물구조는 2개의 타워가 40~46층으로 형성되고 저층에는 포디움형 상가로 Street Wall을 형성하여 가로수에서 내스가 접하고 페인트를 반복하여 타워와 조화를 수 있도록 흡사한 효과를 연출하였다. 송도 신도시가 국제 도시로서 위상을 나타내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국제업무지구내 센트럴파크에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프로젝트 Best Work

### 인터내셔널 플라자

### BL F3-1 오피스텔 신축공사

International Plaza F3-1BL officetel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드동 95번지

주거용도 오피스텔, 판매시설

대지면적 13230m<sup>2</sup>

연면적 117531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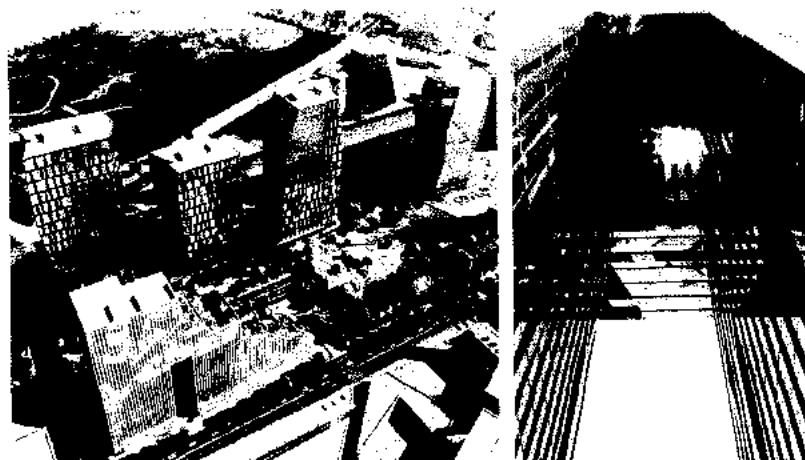
건폐율 39.27m<sup>2</sup>

용적률 602.25%

규모 지하 3층, 지상 33층

설계총괄 이동수

설계참여 김성섭, 김광진, 한상룡, 이병현



F3-1BL은 3-2, 3-3BL의 업무시설과 3-4BL의 주차장건물이 함께 통합개발 되는 프로젝트이다. 3-1BL은 오피스텔/판매시설 용도로 설계 중이며 KPF와 동일건축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전체 배치는 4개 블럭과 연계하여 단지 내에는 공공에게 개방된 보차운용통로인 인공도로와 인공지반을 만들어 숲과 계곡과 산을 마스터플랜의 디자인 보티브로 설정하였다. 매스 개념은 원정봉이 많은 한국의 산에서 보여주는 중첩원리를 이용하여 주차장 부지에서부터 오피스텔 매스까지 자연스런 스카이라인에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단일건물로서 거대한 매스에서 오는 신리적 위압감을 계단식으로 처리하고 선형의 긴 매스 중간에 적절한 오픈을 사용하여 분절감을 통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했다.

### 캄보디아 스타리버 주상복합

Cambodia Starriver Residential & Commercial Complex

대지위치 캄보디아 프놈펜

주거용도 주상복합

대지면적 14,500m<sup>2</sup>

건축면적 7,230m<sup>2</sup>

연면적 23,3672m<sup>2</sup>

건폐율 49.8%

용적률 1.61C%

규모 지하 1층, 지상 45층

설계총괄 조현명

설계참여 동성일, 이형준, 황순환, 손승용, 고광주, 박혜연



캄보디아는 베트남에 이은 신흥 시장으로 경제 활성화 및 개발정책으로 개발 호재가 많으며 부지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시 중심지에 위치하며 시의 면적은 375km<sup>2</sup>, 인구는 약 200만 명 가량 되고 기후는 열대몬순하고 연중 고온 다습하며 부지 주변에는 바삭강, 살강, 메콩강이 어우러져 있다.

건물의 기본개념은 캄보디아에 대표적 문화유산이며 세계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 사원의 중심탑과 좌우측 탑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모토로 탑들이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듯한 형상과 캄보디아인의 미래지향적 가능성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

대지의 형태가 강변으로 좁고 긴 특징을 고려하여 주동을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각 동에서 강변과 도심지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회장 오봉석

오봉석 회장은 부산 경남고와 부산대 금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후 1992년 현양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1966년 부산시청 건설국 건축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68년부터 1978년까지 대현주택공사에서 부산사직주공아파트 건설본부장을 맡는 등 건설현장에서 잔뼈가 굵어 누구보다도 현장 시공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1982년 동일건축 기술연구소를 시작으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을 창립한 뒤 설계 및 감리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며 현재까지 대표이사 회장으로 복달고 있다.

현재 한국건설설계 협회 이사 및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올해로 동일건축이 창립된 지 27년째 되어, 3년이 지나면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2000년 1월 1일 우리들은 2012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를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초일류 기업이 되자는 Vision을 선포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9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회사도 여러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일류라는 기업의 평가를 받으려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건축설계 사장은 빠른 세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세계화란 국내 최고를 찾는 시대에서 벗어나 세계의 최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선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세계 시장에 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건축이 깊은 구조현대화에 더불어 잡으면서 이웃해 있는 다른 설계회사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어 평소의 생각을 재민했습니다. 우리 글목에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 경쟁사가 아닌 협력사로 생각하자 필요한 때는 서로 협력하여 주주하고 소통하자 이것이 세계화 되고 대형화 되여가는 추세에 살아남는 방법으로 것이다. 우선 각자 원직원들의

교류와 지식 나눔의 방법으로 골목길 포럼을 만들자. 이것이 밥단이 되어 올해 6월, 14회째 유익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골목길 포럼이 발전하면 다음 번에는 더 좋은 협력 방식이 생각날 것이고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 성과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위한 첫 발판으로 2007년 4월 23일 DAI HA라는 회사를 호치민에 설립하여 베트남과 협력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화란 세계 어느 나라와도 협력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건축사들도 다양화 되고 있는 세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내시장에서 내실을 다져 왔겠지만 앞으로의 30년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속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세계화의 첨단 라더가 되어 위한 웃은 후배 건축사들에게 던져진 뭇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 성동문화예술회관

Seongdong-gu Culture and Arts Center

당선작 / 신창훈 淳熙원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주)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323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사회복지시설(여성문화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1,694m<sup>2</sup>

건축면적 1,001.77m<sup>2</sup>

연 면 적 9,597.37m<sup>2</sup>

건 폐 율 59.13%

용 적 률 398.98%

규 모 지상 7층, 지하 3층

구 조 SRC

발 주 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설계담당 김성민, 김민태, 서해림, 김원일, 안보영, 조은총

### Culture Forest\_문화의 숲

숲은 우리에게 자연을 경험하게 하며, 정신과 마음과 몸을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 자연의 공간이다. 숲에서는 공기, 나무, 불, 흙, 바람 등의 자연의 물질들이 하나씩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숲의 자연적 요소는 서로 연결되고 혼합되며, 그들의 음성과 조율로 노래를 하기에 우리에게 아름답고 건강하며, 밝은 경험을 선사함으로 항상 우리는 숲의 하보나에 매료되며, 숲의 공간을 동경한다.

여기 성동에 다양한 문화적 공간과 친환경적 자연을 결합한 성동을 대표하는 문화의 숲을 제안한다.

성동문화예술회관은 발전하는 성동의 문화허브공간으로 주민의 문화충전소가 될 것이다. 이는 열려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성동의 새로운 문화아이콘이 된다.

Culture Forest는 자연친화적 건강한 삶의 문화를 담는 복합문화시설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문화, 여성문화,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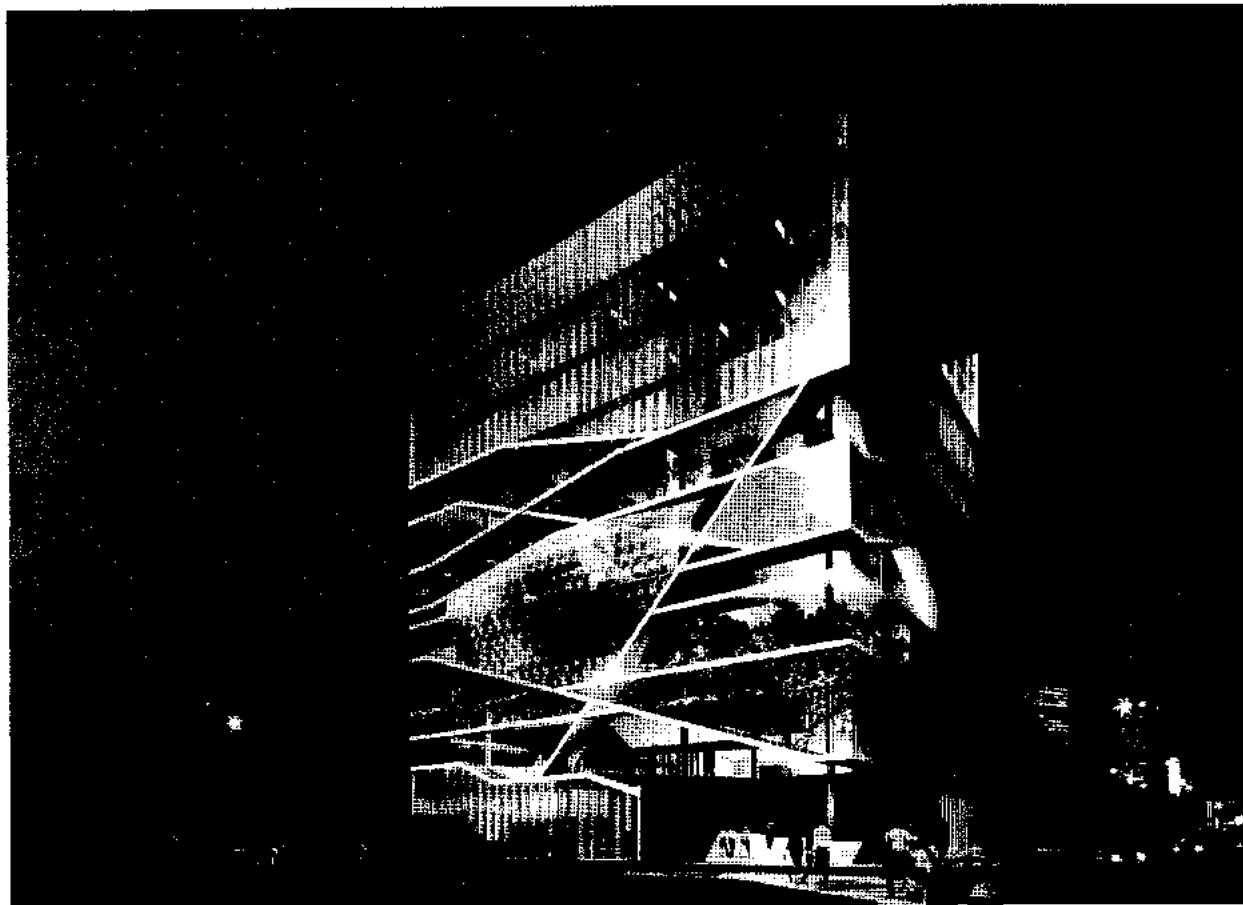
린이 늪이 공간,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창조될 것이며, 아름다운 문화를 담고, 성동의 미래지향적인 꿈과 열정을 담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 Scenery of Seongdong\_성동의 풍경(城東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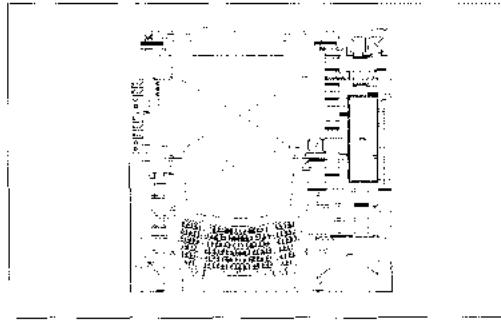
Culture Forest는 성동의 풍경을 꿈꾼다. 성동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고 발전하는 미래의 성동을 대변하는 아이콘이 될 것이다. 성동 문화의 벨트인 서울숲, 청계천, 웅봉산, 왕십리 문화공간을 연결하는 성동의 문화적 풍경을 제안한다.

1. Dynamic Scenery: 성동의 도시를 바라보는 풍경은 최대한 개방적이며, 입체적이고 스토리적인 경험의 풍경이 된다. Culture Forest에서는 도시로 향한 다이나믹한 풍경의 프레임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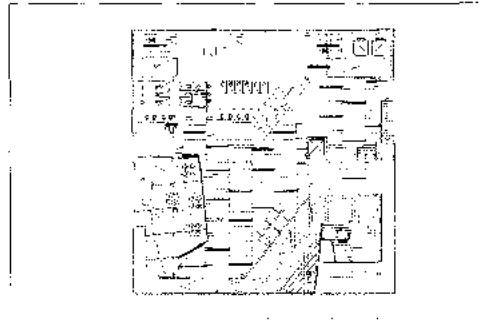
2. Figure Scenery: 성동의 도심에서 Culture Forest를 바라봄은 건축과 자연이 결합된 창조적인 낯선 풍경이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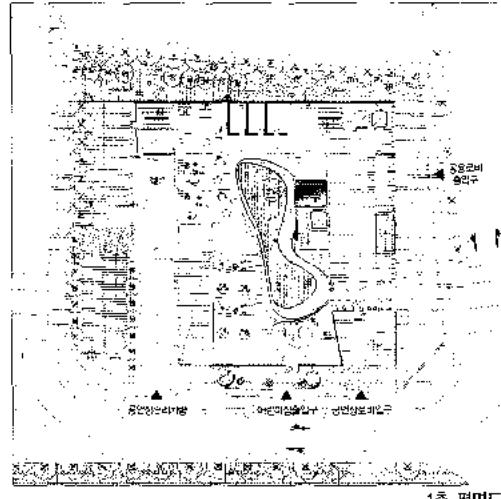
다. 성동의 복합문화공간은 문화를 담는 창조적인 건축  
물과 자연의 허브공간이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되면서  
성동의 미래지향적 건축과 자연의 상생을 실현함을 통  
해 새로운 형태의 풍경을 경험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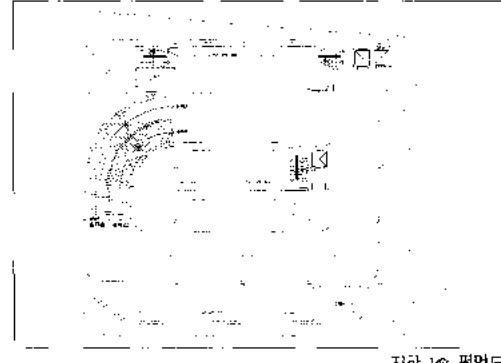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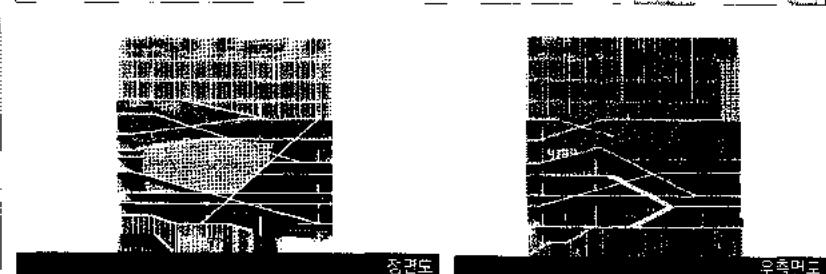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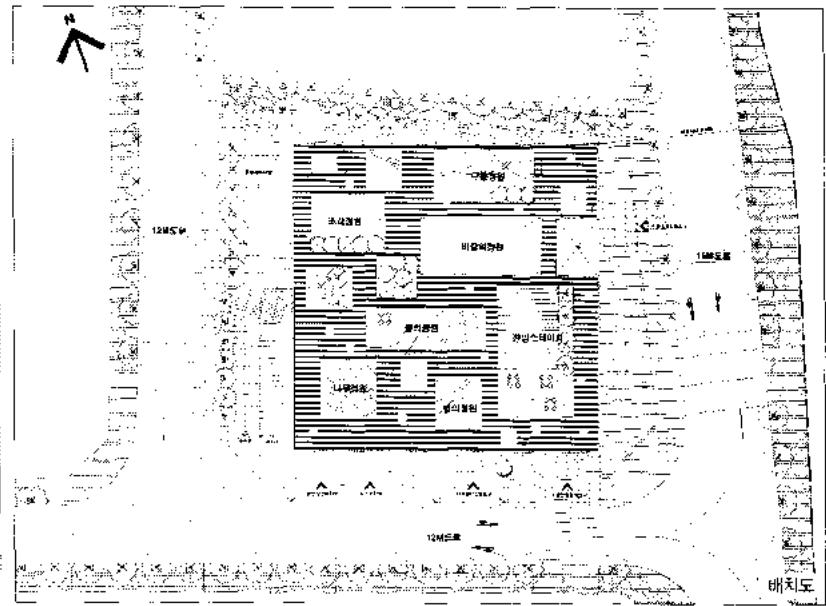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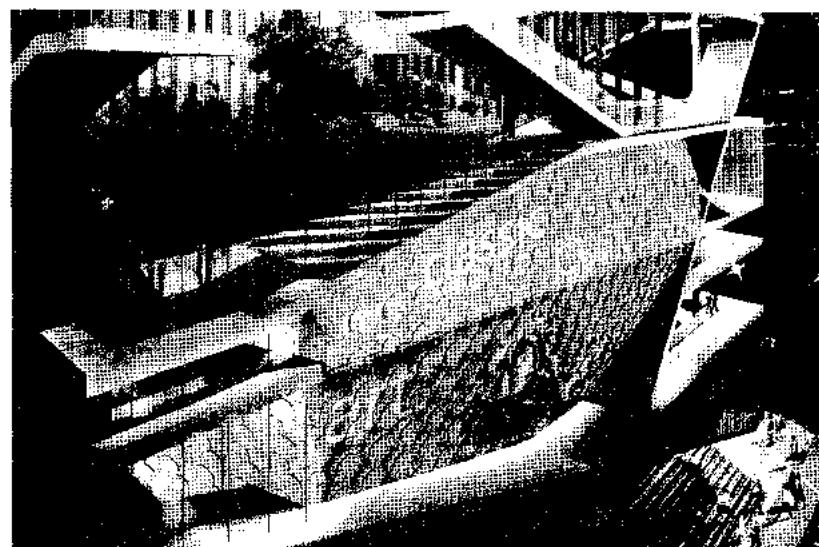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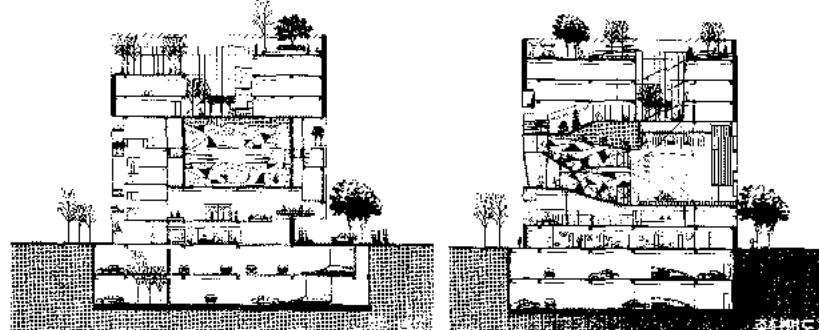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증면도

우측면도



## 성동문화예술회관 Seongdong-gu Culture and Arts Center

### 우수작 / 박제유

(제이유 건축사사무소)

+ 이기정 설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323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 및 접객 시설

**대지면적** 1,694.00m<sup>2</sup>

**건축면적** 1,015.86m<sup>2</sup>

**연 면 적** 9,255.65m<sup>2</sup>

**건 폐 율** 59.97%

**용적률** 356.81%

**규 모** 지상 7층, 지하 2층

**설계당당** 제이유 건축사사무소\_정 협(총괄), 김정환,  
박종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가\_조옹호, 이영준,  
구혜경, 김갑주

성동문화예술회관 계획안은 가로변 공공 영역의 확장, 다양한 프로그램의 유기적 조직화 그리고 지역사회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등 공공 복합 건물이 가져야 할 비匣과 그 존재 방식을 이야기 한다. 새로이 건립될 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적 빛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미지를 형상화한 건물로 성동 지역주민의 문화 즐전의 장이 될 것이다.

성동문화예술회관의 대지는 지하철 2, 5, 7호선과 중앙선이 지나는 강북의 교통 요충지로서 주변에는 서울숲, 한강瓢섬지구 및 한양대 등이 위치한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이다.

대지의 사면이 도보로 둘러싸여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앞으로도 지구 단위계획에 의해 더 확장될 예정이다. 대지의 정면방향이 난쪽을 향하고 있어 자연채광에 유리하고 남동쪽은 10m, 6m 도로와 접해있어 열린공간을 형성하며 북서쪽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낮은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지상 1층은 열린 가로와 연계된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생기는 혼잡한 동선을 해결하기 위해 거별자인 출입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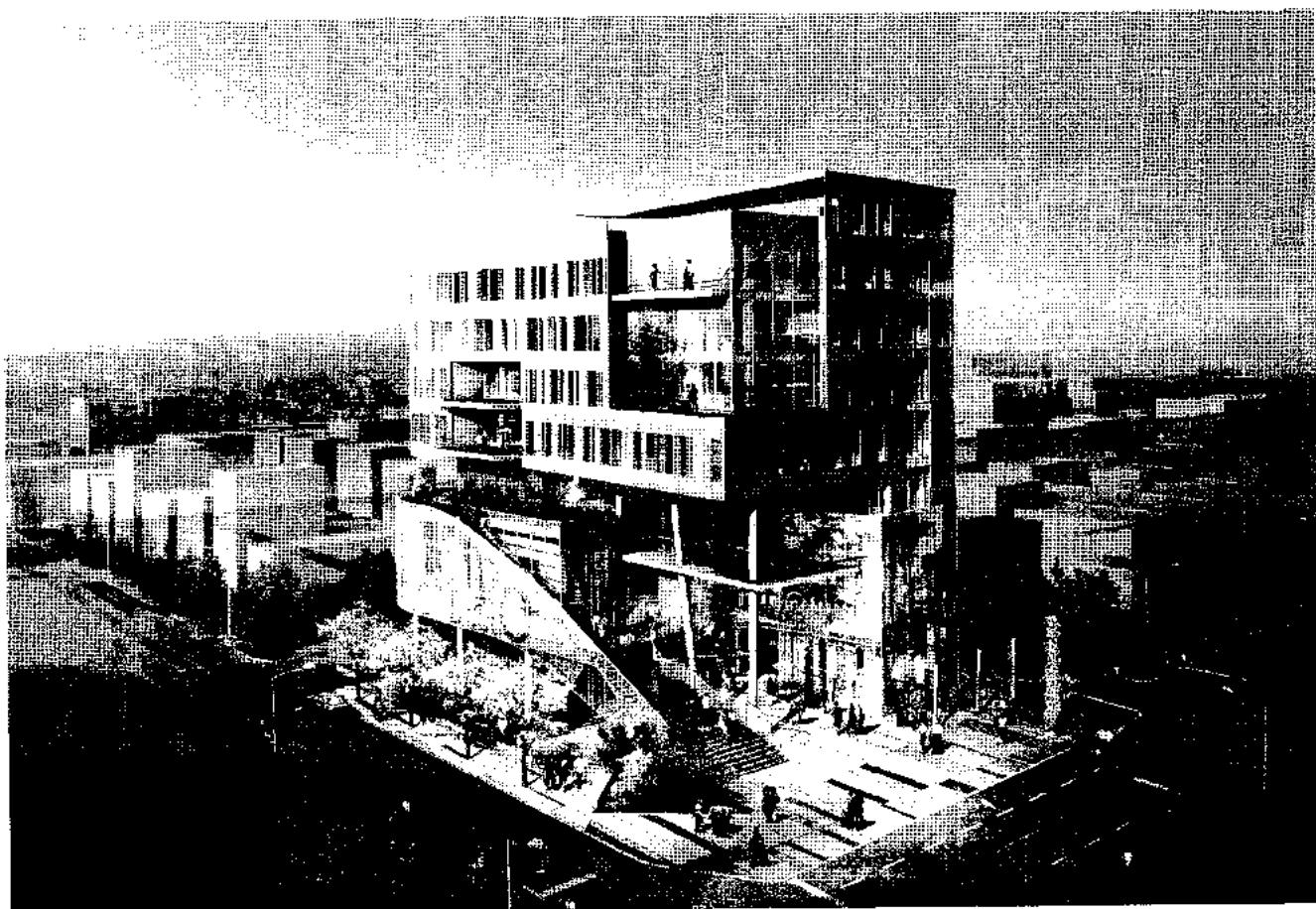
선을 계획하였다.

1층의 주요 프로그램인 어린이집은 복층형 단면구성으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흥미로운 공간을 연출하였다.

지상 2층과 3층에는 공연장과 이에 관련된 관리공간을 계획하였다. 공연장이 위치한 2층에는 관람자의 입·퇴장 동선을 위한 공연장 전용 출입구를 계획하였다. 3층에는 공연장을 지원하는 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등과 같이식당과 옥외 Deck를 두어 전망을 확보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을 계획하였으며 지상에서 공중 정원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여 휴게영역의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여성문화복지시설이 위치한 지상 4층은 집약된 코어와 합리적인 동선을 계획하였고 모듈화된 병면 계획으로 향후 쉬변화에 대비하였다. 또한 외부공간과 접하는 Deck 휴게공간을 계획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상 5, 6, 7층에는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5층의 어린이 도서관에는 유기적인 형태의 평면을 구성하여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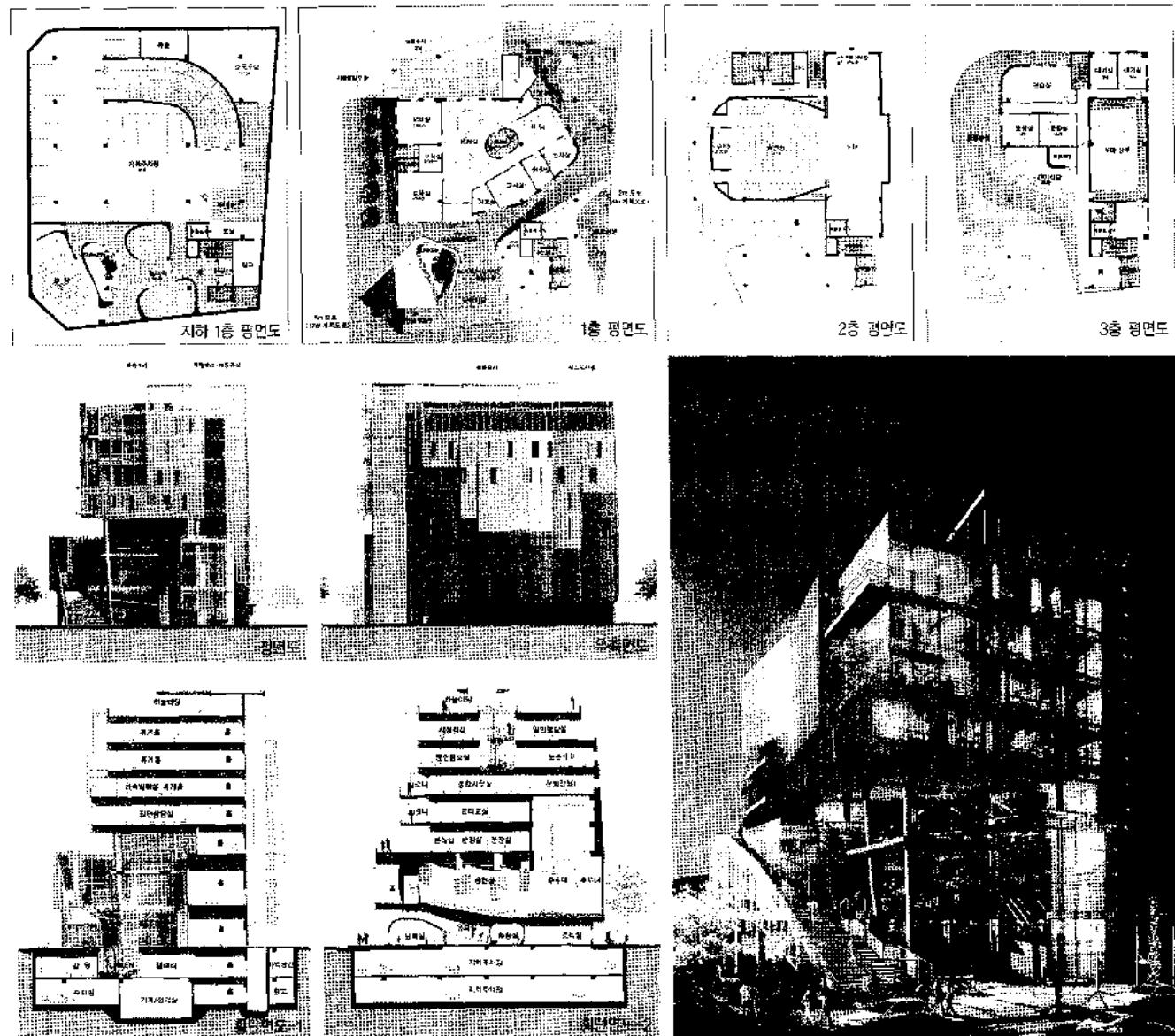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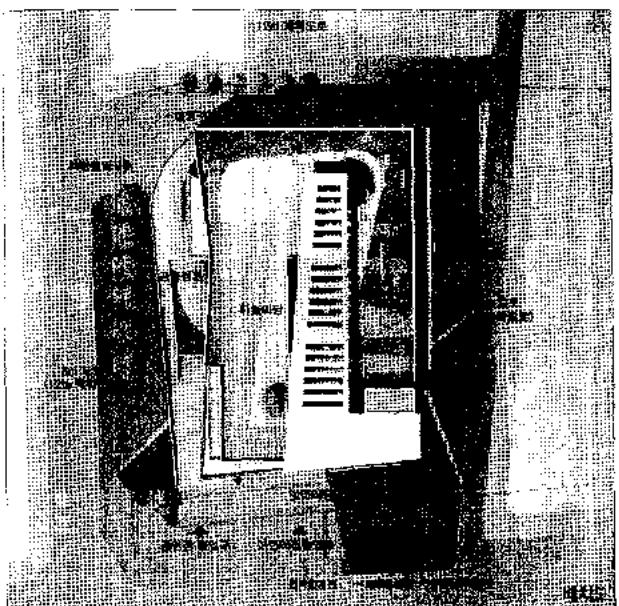


극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을 특성화하였다. 6층에는 중정을 두어 자연환경이 내부로 연결되어 깨끗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Open Space를 적용하였다. 최상층인 7층에는 정숙성을 고려하여 일반열람실을 배치하였고 옥상정원으로 가는 동선을 중앙에 배치하여 휴게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지하 1, 2층에는 넓정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여 계획한 주차장과 출입동선과 연계하여 강당과 갤러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선분을 두었으며 충분한 하역공간을 확보하여 지하 하역시설의 장점을 극대화하였다.

형태계획은 명쾌하게 기능에 따라 상·하부로 배스를 분리하였고 도시가로와 흐름에 빠름감을 부여하도록 계획하였다.

입면계획은 내부프로그램과 공간특성이 투영되는 입면 이미지를 최화하였고 대지의 향과 주변의 맥락에 상응하도록 재료와 배스를 구성하였다. 또한 주택기와 만해있는 쪽은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솔리드한 면을 구성하였다. ■



## 성동문화예술회관

Seongdong-gu Culture and Arts Center

가 작 / 박유진 청희원

(주)건축사사무소 시간)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323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 및 접회시설 : 공연장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

노유자시설 :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여성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대지면적 2,024m<sup>2</sup>(건축법상 대지면적 : 1,694m<sup>2</sup>)

건축면적 1,003.86m<sup>2</sup>

연 면 적 9,316.95m<sup>2</sup>

건 폐 율 59.26%

용 적 률 378.69%(법정 400%)

규 모 지하 2층, 지상 7층

설계담당 김일영, 이철우, 최병순, 주선영, 조성진,  
권은주

성동문화예술회관은 향후 복합복지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성동구의 남부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 될 것이다.

계획의 조건은 공연장, 도서관, 영유아보육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4개의 복합시설을 주어진 협소한 부지에 이용자의 동선혼잡을 최소화하여 수직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저층부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중층부는 여성 위한 복지시설로, 상층부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장으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시설들은 1층에서의 동선혼잡을 줄이기 위해 각시설별 설치된 로비를 통해 동선을 분리하였다.

2층에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로비를 설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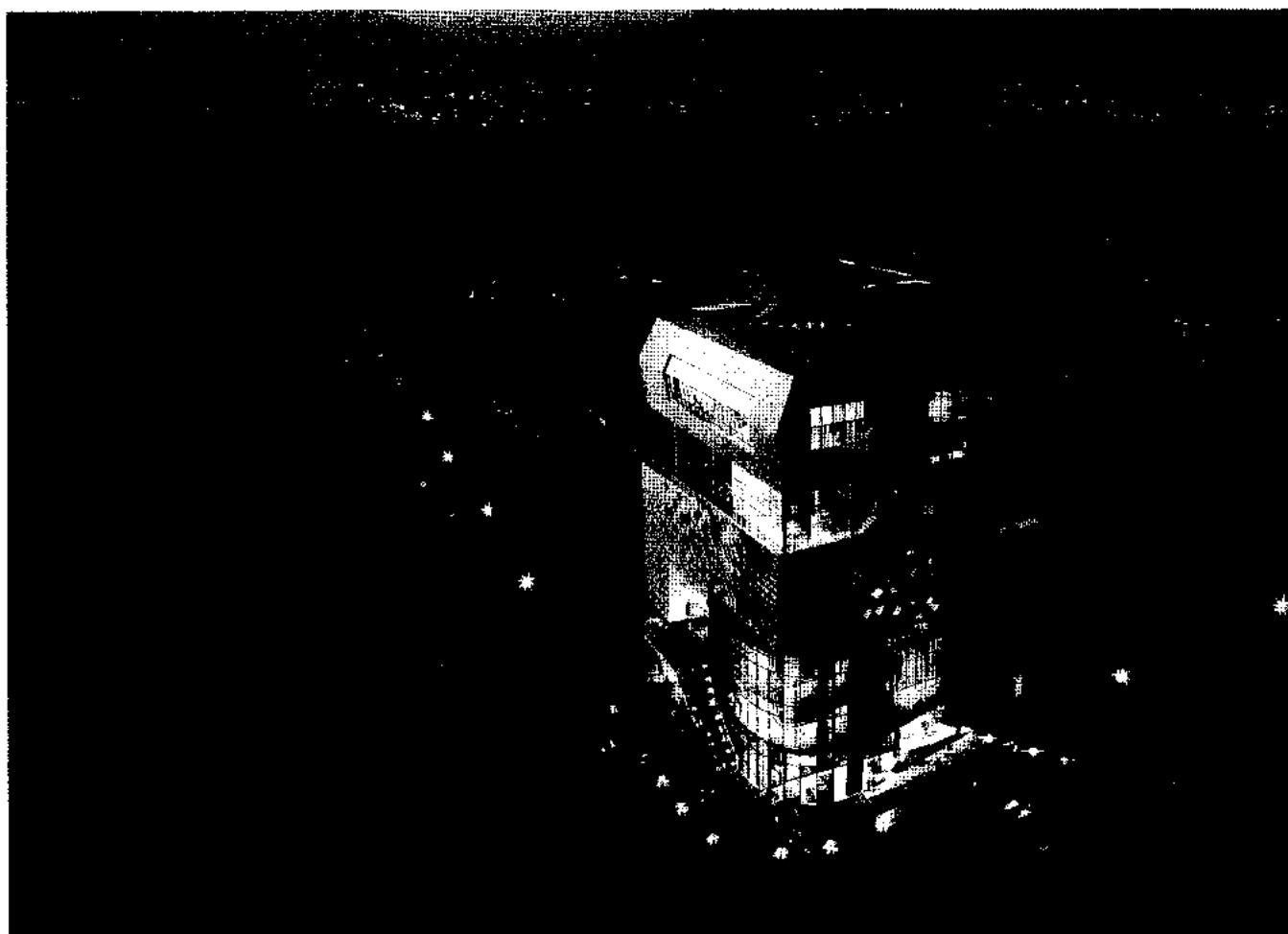
2~4층 도서관 이용자동선의 중심이 되도록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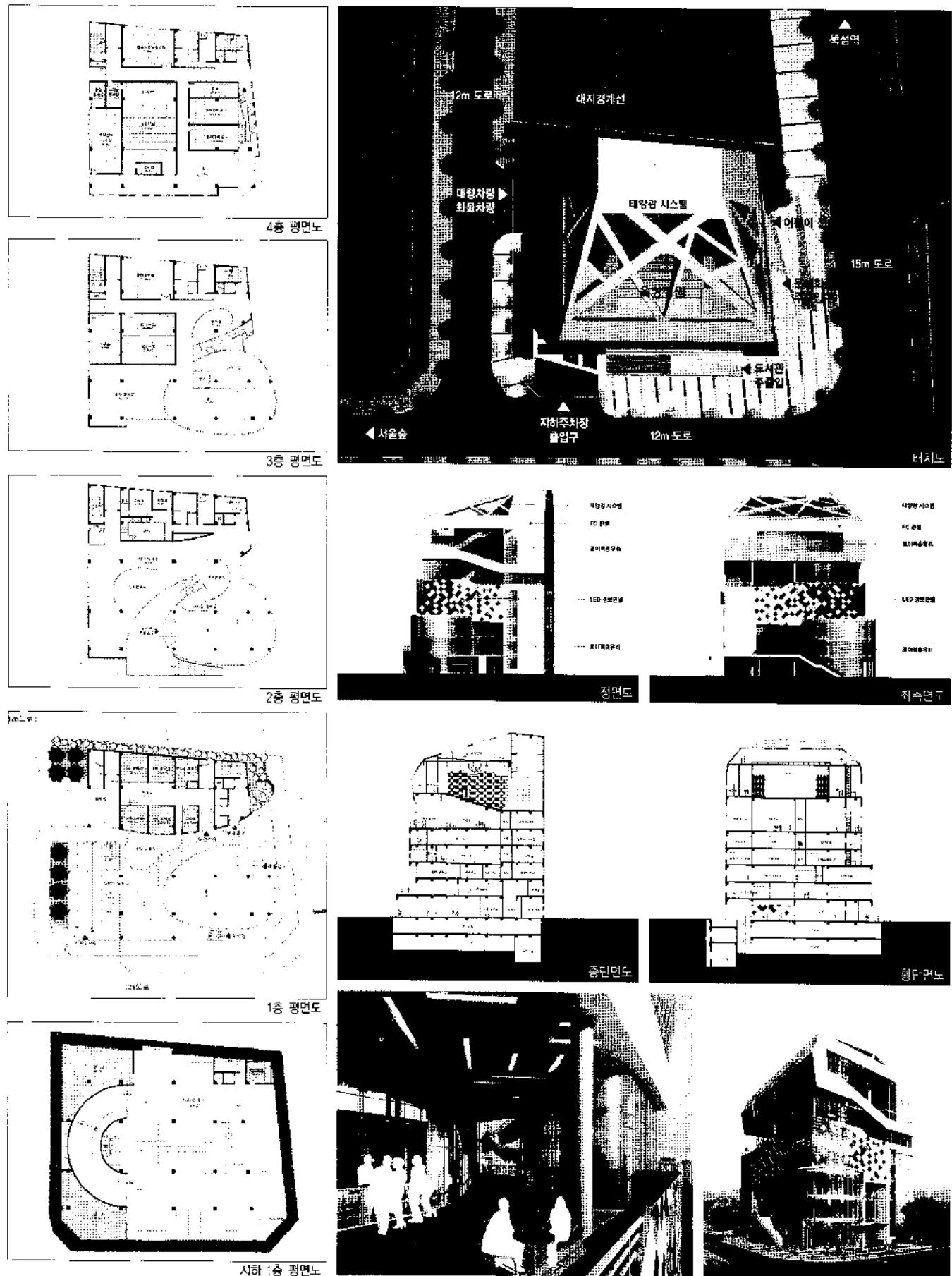
저층의 동선혼잡을 고려해 공연장 이용동선은 빠르게 6층으로 끌어올려, Ticketing과 휴게 및 편의시설을 위한 테라스를 계획함으로서 7층의 공연장과 바로 연계 되도록 계획하였다.

이렇듯 수직적으로 구분, 조성된 각 시설별로 비는 Event Core를 통해 지상으로부터 옥상의 야외공연장까지 연계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이벤트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저층의 공연장은 접근이 편리하지만 최상층으로 끌어올린 공연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스카이라운지에서 Ticketing을 하고 차를 마시며 곧 있을 공연을 기다리는 건 어떨까? ■





# 해외의 BIM 가이드라인 사례연구

## Case Study of BIM Guideline on Other Countries

건축시장에서도 시식정보화로 등장한 BIM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전통적인 건축의 2D 해석방법을 보나 실물 그대로의 형태로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는 방법이다. 이는 건축시장 선반에 일대 시각변동이 아기될 전망이다.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설계 프로세스의 변화, 디자인팀 구성의 변화,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의 변화, 건축사의 역할의 변화 등 많은 변화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우리 건축시장에도 BIM으로 발주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없이는 많은 혼란과 대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건축은 건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는 여러 전문집단이 함께 협업(collaboration)하여 이루어 가는 행위들로 볼 수 있다. 여러 관계자간의 상호 밀접한 협업과 분명한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국외의 BIM 가이드라인을 조사 분석하고 정단점을 파악하여 국내 건축시장의 전통적이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국내 BIM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건축사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기회를 지면을 통하여 갖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며….

### 목 차

1. BIM Requirements 2007, 핀란드(I)
2. BIM Requirements 2007, 핀란드(II)
3. DIGITAL CONSTRUCTION, 덴마크(I)
4. DIGITAL CONSTRUCTION, 덴마크(II)
5. BIM Guide Series, 미국(GSA)
6. National Building Information Model Standard, 미국(NBIMS)
7. BIM 가이드라인 비교 및 국내현황

필자 김길재, 한정은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by Kim, Kih-chae

김길재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블루리도주립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시설의 계획 및 설계와 건축의 정보화에 관한 디자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기술원 기관에 기상설정연구단에서 건축 BIM 가이드라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직 중이다.



- 한국의 농지시설학회 회장
- 대한건축학회 디지털건축분과 위원장
- 한국 디지털 건축 인터미디어 회장
- 한국 건설관리학회 정부회장과 위원장

## 4. DIGITAL CONSTRUCTION, 덴마크(Ⅱ)

- 프로세스 단계별 흐름의 모델 정보수준 -

- Model Information Levels of Design Peocess -

네마-3에서 2006년 6월 30일자로 발표된 3D Working Method 2006은 Bips(역시주 : 정부와 건설주, 설계사, 건설사, 딜러, 유통업계, 기술연구소, 대학교, 정보통신으로 구성된 600가 이상의 비영리 조직)에 의해 수행 되었다.

덴마크 정부가 디지털 건설(Digital Construction) 프로젝트를 계기로 덴마크 건설의 효율성과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디지털 정보교환의 기초 정립, 정부가 디지털 건설 프로젝트를 요구 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2003년에서 2006년 까지 4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디지털 건설(Digital Construction)'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 본 내용의 대부분은 Bips의 3D Working Method 2006 연구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1. 개요(Overview)

지난호에 등재된 Digital Construction(1)은 건축프로세스 단계별 과정을 정보수준(Information level)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과정에서의 3D모델의 생성, 품질보증, 프로젝트 전 단계에서의 데이터 교환 및 정보의 재사용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모든 부아를 위해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작업방법에 대해 설명 하였고 이번호에서는 3D working method를 통한 프로젝트 단계별마다 전문분야의 정보(드면 및 기타자료)전달 및 모델의 흐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 1.1 3D working method를 사용한 설계 과정

3D working method는 프로젝트 진행시 설계단계마다 예상될 수 있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각각의 설계 전문분야별로 구축되는 부분모델과 정보수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모델들이 설계과정에서 활용되는 방법과 효율성개선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설계과정은 해당당사자의 관점에서 겸토되며 전통적인 모델단계, 컨설팅회사의 실행기준, 규칙, 책임에 의해 시작된다.

#### 1.2 도표 설명

위 그림의 도표상단은 프로젝트 단계별 진행시마다 전문분야별 부분모델링 정보수준을 나타내며 도표하단부분은 설계과정마다 부분모델의 설계도서 추출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단계별마다 설계도서의 스타일들은 회색으로 표시한다. 아래의 표는 설계단계별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해 표시한다. 업무는 크게 내부와 외부로 나뉘어지며 내부업무는 해당분야간의 진행되는 업무를 나타내며 외부업무는 프로젝트 단계별 진행마다 참여업체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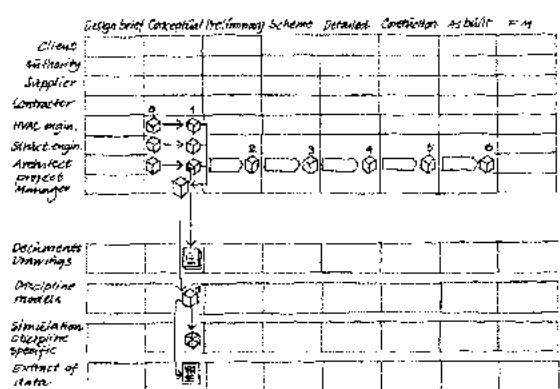


그림 1. 각각의 도표에서 X축은 설계단계별 진행과정을 나타내며, Y축은 참여업체를 의미

구 분	내 용
2	정보수준2 부분모델
2	정보수준2 통합모델
	부분모델에 더한 각 그룹과 작업에 대한 단계별 동작을 표현
	그룹간 전문분야의 정보 교환을 표현

# 1 도표에서 사용되는 표기형식

협업을 통한 업무를 나타낸다. <그림 1>은 개념설계단계에서의 부분모델의 진행과정 및 활용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 2. 3D working method를 이용한 건축설계

### 2.1 설계 개요(Design brief)

#### 내부작업(Internal work)

- 전통적 매스모델과 같이 매스형태로 모델링 한다.
- 건축은 권리자로부터 지정된 도시/대지 모델로서, 지역적인 조건들을 평가한다.
-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실들이 있는 단순한 모델들을 만들게 되며, 이러한 모델들은 공간의 면적/관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 외부협업(External collaboration)

- 모델링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지가 포함된 도시 모델들을 발주자로부터 수령 한다.
- 기존 조건들을 가진 3D 측량 모델들을 발주자 또는 측량사로부터 수령한다.
- 화면으로 직접 볼 수 있는 3D 모델을 통하여 발주자와의 상호 의사전달이 전통적으로 물리적 모델들을 대체할 수 있다.

### 2.2 개념 설계(Conceptual design)

#### 내부작업(Internal work)

- 부분 모델은 개념 설계 수준까지 확장되며, 시공 재료 선택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서비스 존 및 내력 구조물들의 필요성에 따라 다른 컨설팅트들로부터 받은 정보가 구체화 된다.
- 의사결정의 자료로서 시각화 모델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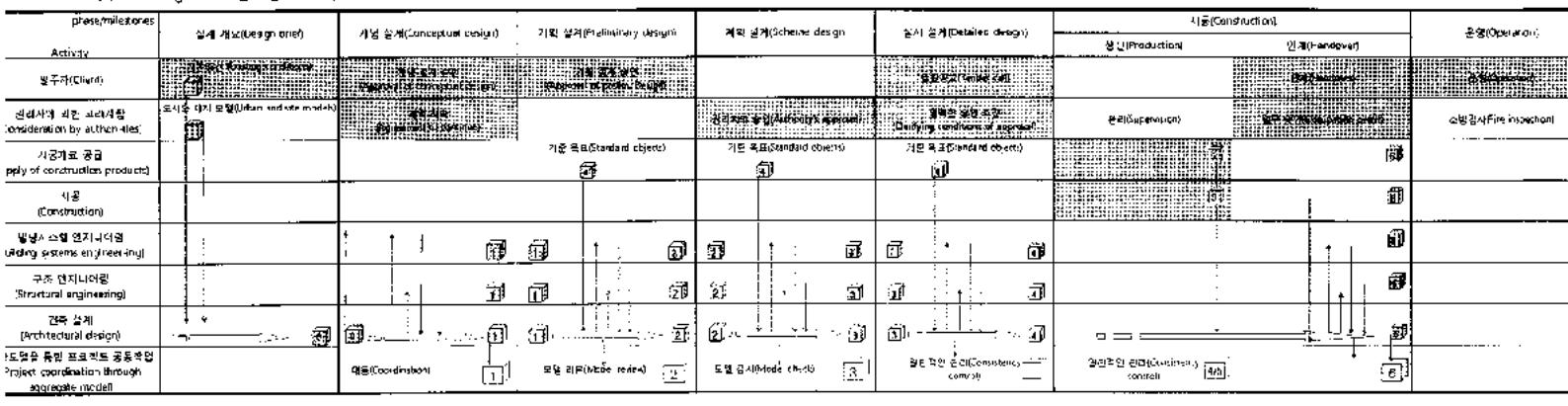
#### 외부협업(External collaboration)

- 상호 의사전달을 하기 위하여 레이아웃과 공간배치를 하는, 여러 컨설팅트들에게 부분 모델을 전달한다.
-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역할부분으로 부분모델들을 발주자와 권리자들에게 제공한다.

### 2.3 기획 설계(Preliminary design)

#### 내부작업(Internal work)

표2. 3D working method를 이용한 건축디자인



설계 단계 부분모델의 관리방법 협동구조	교류 개입	설계 개요(Design brief) 도시 주거 모델(Urban residential model)	기획 설계(Preliminary design) 기준 목표(Standard object)	계획 설계(Scheme design) 권리자 확정(Authorities approved)	습시 설계(Detailed design) 관리(Management)	시공(Construction) 시공(Construction product)	운영(Operation)
설계 단계 부분모델의 관리방법 협동구조	교류 개입	설계 개요(Design brief) 도시 주거 모델(Urban residential model)	기획 설계(Preliminary design) 기준 목표(Standard object)	계획 설계(Scheme design) 권리자 확정(Authorities approved)	습시 설계(Detailed design) 관리(Management)	시공(Construction) 시공(Construction product)	운영(Operation)
기획 설계(Preliminary design) 기준 목표(Standard object)	교류 개입	설계 개요(Design brief) 도시 주거 모델(Urban residential model)	기획 설계(Preliminary design) 기준 목표(Standard object)	계획 설계(Scheme design) 권리자 확정(Authorities approved)	습시 설계(Detailed design) 관리(Management)	시공(Construction) 시공(Construction product)	운영(Operation)
계획 설계(Scheme design) 권리자 확정(Authorities approved)	교류 개입	설계 개요(Design brief) 도시 주거 모델(Urban residential model)	기획 설계(Preliminary design) 기준 목표(Standard object)	계획 설계(Scheme design) 권리자 확정(Authorities approved)	습시 설계(Detailed design) 관리(Management)	시공(Construction) 시공(Construction product)	운영(Operation)
습시 설계(Detailed design) 관리(Management)	교류 개입	설계 개요(Design brief) 도시 주거 모델(Urban residential model)	기획 설계(Preliminary design) 기준 목표(Standard object)	계획 설계(Scheme design) 권리자 확정(Authorities approved)	습시 설계(Detailed design) 관리(Management)	시공(Construction) 시공(Construction product)	운영(Operation)
시공(Construction) 시공(Construction product)	교류 개입	설계 개요(Design brief) 도시 주거 모델(Urban residential model)	기획 설계(Preliminary design) 기준 목표(Standard object)	계획 설계(Scheme design) 권리자 확정(Authorities approved)	습시 설계(Detailed design) 관리(Management)	시공(Construction) 시공(Construction product)	운영(Operation)
운영(Operation)	교류 개입	설계 개요(Design brief) 도시 주거 모델(Urban residential model)	기획 설계(Preliminary design) 기준 목표(Standard object)	계획 설계(Scheme design) 권리자 확정(Authorities approved)	습시 설계(Detailed design) 관리(Management)	시공(Construction) 시공(Construction product)	운영(Operation)



- 감리, 시공자들 및 도급계약자들에게서 받은 입력 정보를 포함한 부분모델의 설계 공정 관리(design follow-up).

### 3.7 모델전달(Handover)

#### 외부협업(External collaboration)

- 발주자의 결정을 위해 준공도면(as-built)과 운영 및 유지관리 (Operation and Maintenance) 도서와 함께 부분 모델이 발주자에게 제공된다.

#### 4. 3D working method를 활용한 설비관련 분야 설계

#### 4.1 설계 개요(Design brief)

#### 내부작업(Internal work)

- 건축사의 부분 모델을 기초로 평가된 기계실, 설비경로, 샤프트의 전체적인 요구사항들

#### 외부협업(External collaboration)

- 건축사로부터 전달된 부분노벨을 적절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 4.2 개념 설계(Conceptual design)

#### 내부작업(Internal work)

- 허가권자와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근거하여 수립된 설비 계통도, 기계실과 샤프트의 위치와 크기 산정, 개략적인 설비경로, 필요와 요구사항들을 나타내기 위해 더미 오브젝트들을 사용하여 부분모델을 준비한다.

- 확실한 건축을 보장하기 위해 상세하게 모델화된 중요 구역들

#### 외부협업(External collaboration)

· 다른 컨설턴트들에게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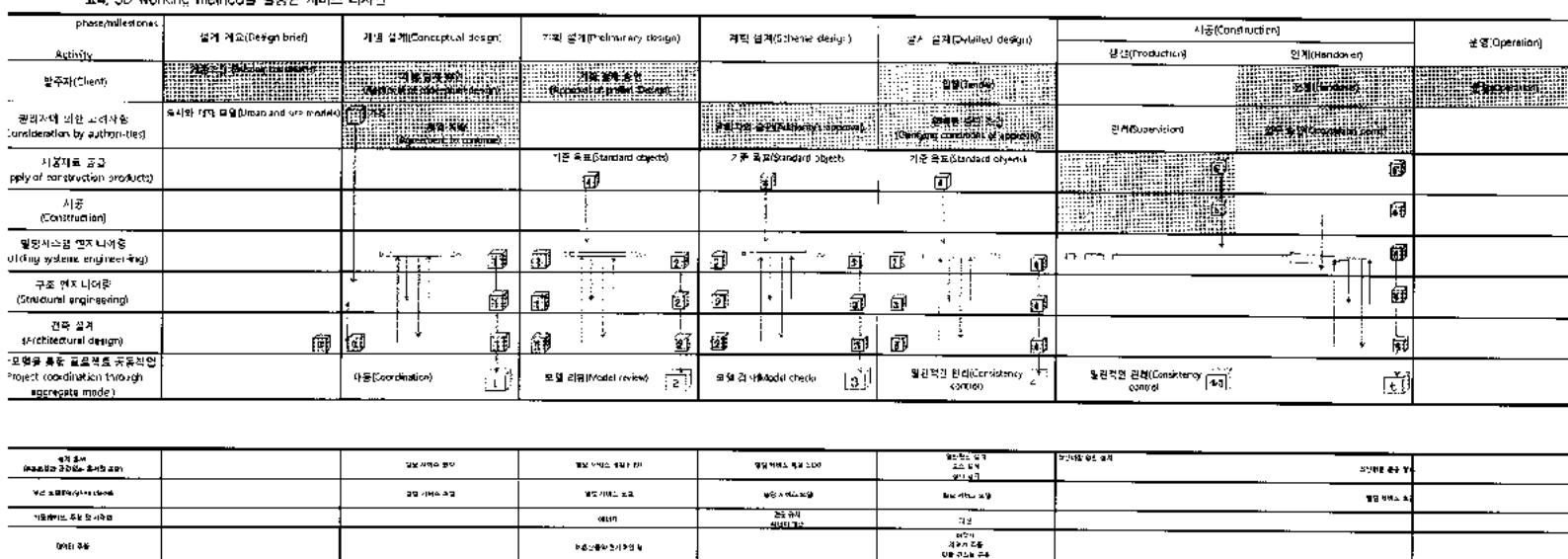
- 원칙에 대한 심사를 위해 밸주자와 권리자에게 보낸 서비스 개념도가 들어있는 모델들

### 내부작업(Internal work)

- 상세한 주요 서비스 개념도들, 수행된 건축 물리학 시뮬레이션 들, 보다 정밀하게 나타낸 기계실, 서비스 런, 소프트들, 부분 모델의 정보 수준을 기획 설계(preliminary design)의 정보 수준 에 도입하여 건축 요소들로 전환되며 오류 제거를

#### 외부 협업(External collaboration)

#### E4. 3D working method 활용한 서비스 디자인





사소통을 위해 이용되는) 저작도면, 시공 재료 목록 그리고 3D 생산 모델들은 생산을 위하여 제작된다. 시공재료 목록들은 시 공자의 부분 모델에서 포함되는 내용들이다.

부분노벰에 의해 정해진 공급단계를 기반으로 시공계획

시공재료의 조립은 또 다른 당사자 혹은 시공자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시공기간동안 사용되는 같은 3D 시공 모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 #### • 수량산출을 위한 부분모델의 최종결정

#### 외부협업(External collaboration)

- 부분 모델은 시공 원칙으로서 제공, 이것은 효과적인 시공과정을 만들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관련 자료가 다시 입수될 뿐만 아니라 재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부분 모델은 이것을 구성한 컨설턴트에게 다시 보내지며, 컨설턴트의 부분 모델에서 구조 대상은 시공자로부터 더 정확하고 상세한 새로운 구조대상에 의해 재배치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 통합 모델을 통한 설계 베개

보도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3D 작업 방법에 관계된 칙문을 포함한 설계자연이 협동적으로 이루어지다

- 통합 모델에 대한 확실한 접근성.
  - 통합 모델에 대한 유지 관리.
  - 개별적인 부분 모델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 추가.
  - 통합 모델을 살피기 위한 소프트웨어 모든 참여업체에 제공.
  - 모든 참여 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 관리, 리뷰, 조정과 일관성 검사를 보장

이와 같은 프로젝트 사항을 실행하는 참여 업체들은 위 사항의 활동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협의한다. 각 참여업체는 지속적인 정보에 대한 협의와, 정보의 일관성 그리고 수량산출의 확인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불일치 사항을 분석한다.

## 7.1 개념 설계(Conceptual design)

- 통합 모델에 제시되고 추가된 부분 모델들.
  - 부분모델의 수령 및 통합모델에 추가
  - 기존조건 및 환경을 포함하여 통합모델 구축

## 7.2 기획 설계(Preliminary design)

#### 표 6. 3D working method를 활용한 시공 자재 관급

- 통합 모델에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입수된 수정된 부분 모델들.
  - 보는 활동에 걸쳐 전체적인 작업은 통합모델을 기반으로
  - 새로운 그룹에게 주어진 통합 모델들에 대한 이용.

### 7.3 계획 설계(Scheme design)

- 통합 모델에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입수된 수정된 부분 모델들.
  - 모든 활동이 걸쳐 전처리적인 작업이 통합모델을 기반으로
  - 새로운 그룹에게 주어진 통합 모델들에 대한 이용.
  - 전체적인 프로젝트 검토의 실행.
  -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일관성 검토.

#### 7.4 실시 설계(Detailed design)

- 통합 모델에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입수된 수정된 부분 모듈들.
  - 모든 활동에 걸쳐 전체적인 작업이 통합모델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일관성 검토

## 7.5 시공(Construction)

- 새로운 그룹에게 주어진 통합 모델들에 대한 이용.
  - 모든 활동에 걸쳐 전체적인 작업의 통합모델을 기반으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차이의 인과성을 강조한다.

#### 8. 3D working method을 활용한 지방 자치단체의 고려사항

### 8.1 설계 개요(Design brief)

####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내부 협조 작업

- 문제점에 대한 부분모델 준비
  - 다른 당사자들과의 외부적 작업
  - 도시기반시설 및 디지털도면은 만약 존재한다면 프로젝트에 관한 참여그룹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모델은 참여그룹의 부분모델에 대한 근거 또는 전체적인 계획을 위하여 사용된다.

### 8.2 개념 설계(Conceptual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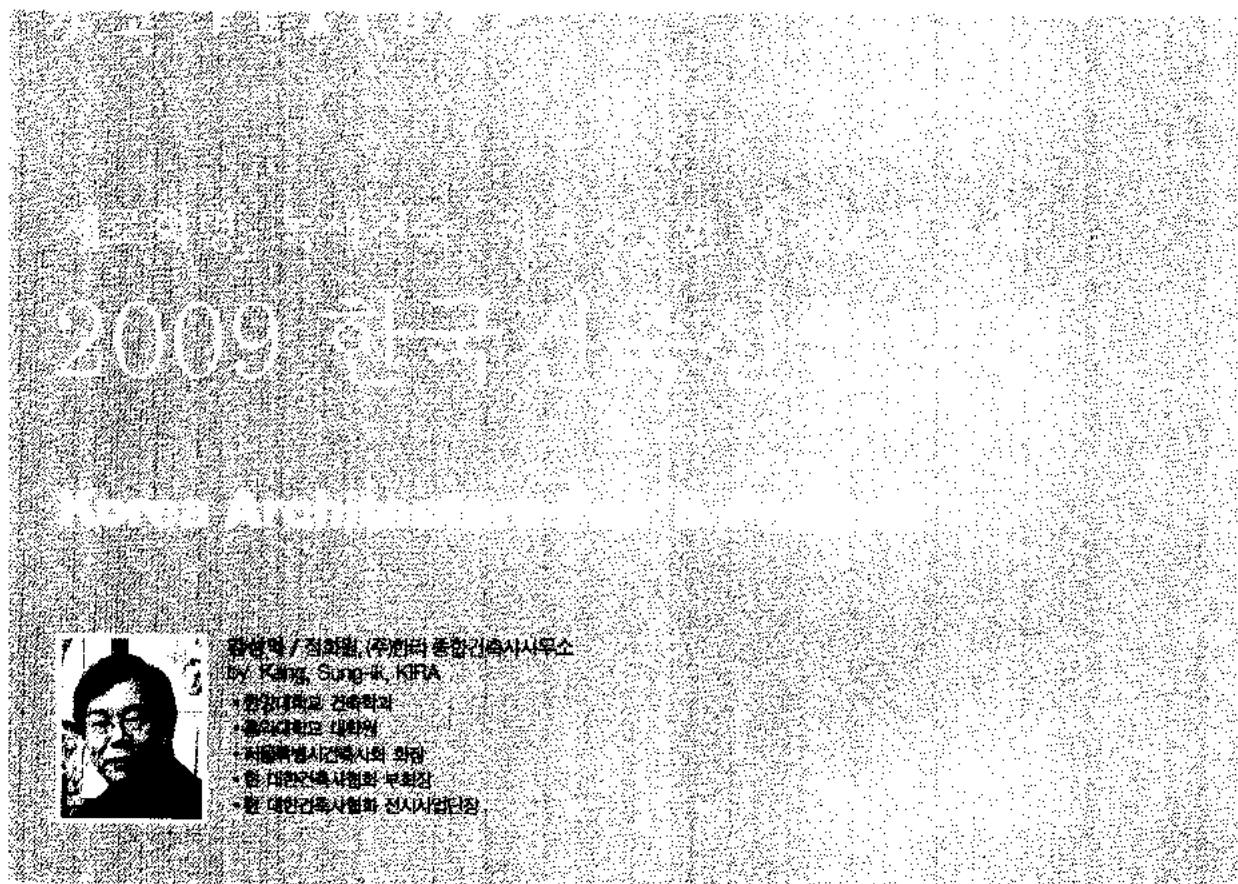
##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내부 협조 작업

- 부분 모델을 포함한 개념적 설계로부터의 자료에 근거하여 프로젝트는 적용 가능한 계획 사항들에 근거하여 판단되고 자료를 제한하며 화재 안전을 포함한 테마크 설계 규정(BR95)에 근거한다.
  - 이러한 내용은 협약의 지속적인 이행이나 수립 사항으로 나아

11. 37 Working Method을 활용한 시장 세세 경과						
class/milestones	설계 기술(Design brief)	개념 설계(Corceptual design)	기획 설계(Preliminary design)	제작 설계(Schematic design)	부시 설계(Detailed design)	시공(Construction)
						생산(Production)
발주자(Client)						인계(Hanover)
권리자에 의한 고지사항 Information by authorizes					법령적 충족 조건 (Limiying conditions of approval)	감독(Supervision)
제공자료 공급 Supply of construction products			기준 목표(Standard object)	기준 목표(Standard object)	기준 목표(Standard object)	제작(Manufacture)
시공 (Construction)			①	②	③	④
설정시스템 엔지니어링 Setting systems engineering				④	⑤	⑥
구조·건축·내식설계 (Structural engineering)				⑤	⑥	⑦
건축·설계 (Architecture design)				⑥		⑧
모델을 통한 프로젝트 공동 작업 Project coordination through aggregate model				⑦		⑨
				⑧		⑩
					설명적인 문서(Documentary content)	







건축문화예술의 대국민 흥미를 놓한 건축의 바쁜 이해와 건축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09 한국건축산업대전(KAHF 2009)'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친환경 건축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건축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으로 글로벌적인 이슈를 뒤고 있는 그린건축의 선도에 설 수 있는 전시회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다.

지난 2006년 9월 첫 번째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네 번째 전시회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와 관련된 이슈들이 핵심

정책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로혁명, 녹색건축, 지속 가능한 미래도의 초대"로 전시주제를 정하였다.

그동안 3차례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동안 우리 건축사들이 건축산업의 중심에 서있으면서도 진정 그 역할에서 소홀이 되어있던 부부들을 나서 바로잡기 시작하며 21세기의 군뚝 없는 황금산업이라는 산업전시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여타 전시회와 차별성,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회원의 회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협회의 비용지출을 최소화하며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협자사업으로 발전시켜 건축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도 하며,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의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여타 건축자재전시회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국내유일의 법정 건축전문가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전시회라는 점이다.

둘째, 전문가들 간의 진정한 건축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건축전문전시회이다.

셋째, 건축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문화와 공학기술의 종합체로서 건축사무소, 건설회사, 인테리어 설계, 조경, 기계 및 전기, 건축자재 회사, 부동산 개발, 분양 등 건축전문가들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전시회가 된다.

넷째, 문화적인 공간과 산업적인 분위기를 엮어서 전시회를 구성하여 건축작품전과 건축사미술전, 건축사진전, 어린이 건축학교 등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축제전시회가 될 것이다.

다섯째, 1만여 건축사에 대한 연수교육이다. 건축사등록원 설립에 대비한 정규프로그램 교육과, 올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우리 협회가 친환경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그에 따른 '친환경건축 설계와 운용'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전시회와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전략'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여섯째, 올해 우리 협회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제1회 건축영화

제'를 이번 전시회와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건축영화제로서 종합예술인 건축과 영화가 함께 만들어내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일반인과 학생들까지도 건축을 이해하고 관심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홍보관, 한국농촌건축대전, 생태도시관, 서울디자인 올림픽 등 많은 전시를 연계하여 기획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건축경기 하강으로 참가업체 섭외 및 유치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전시사업단을 구성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사업단 위원들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 전시회가 건축사를 위하고 관련전문가들 모두를 위한 전시회가 되어야 한다. 건축계 전체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각 시도회장을 위시하여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업체유치에 노력하고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 건축사가 이 행사의 주인이며 정성을 다한 노력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2009 한국건축산업대전'이 건축계의 발전에 나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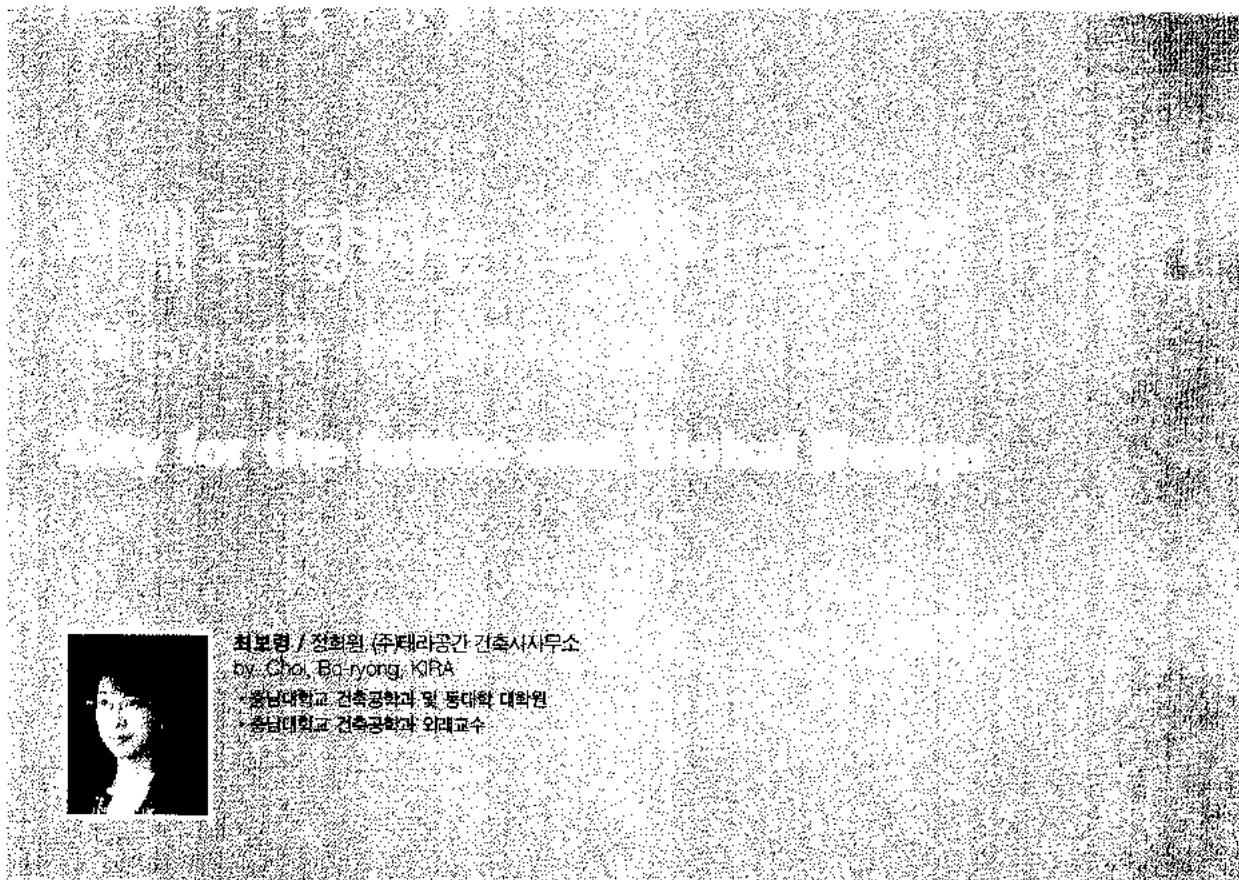


1. 대전 참가업체 홍보관을 둘러보는 관람객들

3. 대전 기간 중에 '열린 회원인증 및 교육규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2. 대전 기간 중에 열린 '건축사연수교육' 강의 장면

4. 신재생 에너지 활용한 시스템을 소개한 '삼성전자' 홍보관 전경



최보령 / 전희원 (주)대리공간 건축사사무소  
by Choi, Baeryong, KIRA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대학 대학원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외래교수

## 1부-미래로 향하는 도시

특별한 기대는 없었다. 예정대로라면 우리는 첫 날 갯벌타워와 컨벤션센터를 견학하고 송도 트어에 이어 종회를 한 후 다음 날엔 안천대교 견학과 강연회에 참석할 것이었다. 그뿐이었다.

일상에 밀려 어느덧 출발 전일이 되고 보니 다음에 갈까 싶기도 했다. 그 만큼 팔자에게 송도는 관심 밖의 먼 그 곳, 그지 대회가 열리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의 주제가 되는 「미래로 향하는 도시와 글로벌 디자인」이란 구호가 그때 별 의미를 갖지 못한 채 내 의식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5월 22일. 평소보다 0.5계 집을 나섰지만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된다. 택시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역 대합실로 향하는 광장 위에서도… 같이 출발하기로 한 일행들을 만나고서야 나의 조바심은 고개를 숙인다. 기왕에 나선 걸음이니 주어진 시간을 즐기고 오자 하는 생각 든다. 길지 않은 기차여행은 즐거웠다.

뜰뜬 목소리는 여간해서 줄어들지 않았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린 곳은 광명역. 각 지역에서 올라온 건축사들이 삼삼

오오 모여들고, 그 곳에서 갯벌타워까지는 집행부에서 친절하게 준비해 주신 버스로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갯벌타워 주변에 자리한 크고 작은 건물들은 아직 공사가 한창이었다. 날씨는 예상 부으로 서늘했다. 낭패였다. 날씨가 영 꾸물하다. 바람막이 옷을 하나 준비할 걸….

갯벌타워 1층에선 집행부에서 준비한 모자와 음료수, 명패를 나누고 받느라 분주하다. 모자까지 준비해 주신 배려에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든다. 낯선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씩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다. 세월은 우리를 비켜가지 않았지만 필자의 눈에 비친 그들은 어제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때 처음 봤었다. 지순 초대회장님을. 너브도 당연하였을 터인데 대회에 새내기인 나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분은 살아계신 선생이었다. 그저 한 평생을 건축에 몸담고 겪심만으로도 존경받기에 너무 충분한, 그런 분이 마치 친정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셨다. 아름다웠다. 평생 길없는 길을 먼저 해쳐나가신 분. 지금은 건축계의 원로로서 후배

건축사들의 앞길을 묵묵히 다져나가고 계시는 그분의 소탈한 모습에서 겸양하신 삶을 감히 넘겨 짚어본다. 예까지 오시다니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갑자기 대회가 흥미로워진다.

겟벌타워 20층에서는 우리만을 위한 오붓한 식사공간이 마련되었다. 아직은 서먹한 분우기가 맵 돌았지만 그래도 함께한 일행들이 있어 테이블마다 즐거운 대화가 오고갔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담소를 나누며 테라스로 나섰다. 20층 위에 있는 테라스에선 바람이 더욱 거셌다. 질척한 매립지 너머로 보이는 바다와 그 반대편으로 저마다 뽐내 듯 서 있는 크고 작은 건물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가 보였다. 갯벌을 타고 불어오던 바람은, 우리를 갯벌타워 홍보관과 영상관으로 밀어 넣고 그들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미래로 향하는 도시…> 나는 그 위에 서 있었다.

겟벌타워 영상관에서는 ‘세계 일류 명품도시’라는 비전 아래 인천의 개발계획이 소개되었다. 테라스에서 본 모습은 그것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리고 홍보관에서는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송도, 영종, 청라구역을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었다.

개발구역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는 단연 개발의 선두에 서 있었다. 송도가 국제도시를 표방하며 거칠하는 전체개발면적이 여

의도의 7배라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 만 했다. 한쪽에서는 건물이 올라가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바다를 메워가는 작업은 이곳에서 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일 것이다.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산업인 국제업무단지개발은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Gale)사가 합작해 설립한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주요 기반시설로는 송도컨벤시아, 송도국제학교, 중앙공원, NEAT(동북아 무역센터) 등이 있으며,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이중 주요한 몇몇 곳을 견학하게 될 것이다.

버스를 타고 이동한 곳은 ‘송도컨벤시아’. 송도의 개발사업 중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국제업무단지 내에 있는 송도컨벤시아는, 대규모 회의장과 전시시설을 갖춘 지하 1층~지상 4층의 대형 전시컨벤션센터로 1층에 전시장, 2층에 프리미어 볼룸 그리고 전문화·특성화된 회의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90m 길이의 무주공법과 포스트 텐션 슬래브(Post Tention Slab) 공법으로 설계된 건물의 구조미는 그 대로 내부공간과 연결되어, 2개실 분할이 가능한 활용도 높은 전시공간을 만들어냈고, 외관만큼 수려한 내부공간을 연출하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미국 게일(Gale)사로부터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소개받으며 그 방대한 규모와 미래도시 송도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송도를 둘며 주요건물들을 둘러보았다.



1. 송도겟벌타워 홍보관 건학 2. 컨벤시아 강연 3. 포스코 주택전시관 건학 4. 제 순 교수님의 축사

수로가 조성된 대형 쇼핑스트리트 커낼워크,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송도사옥, 안테나서울 비즈니스 스퀘어, 세트로드 복합시설, 중앙공원 등 여기 저기 공사가 한창이었다.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를 모델 산았다는 중앙공원은 올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바다물을 끌어들여 공원 내 최장 100m의 수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뭔가 거대한 힘이 느껴졌다. 내 발 아래로 거대한 콘크리트를 끌어당겨 낮은 포복으로 엎드려 꿈틀대는 송도가 새롭게 눈에 들어왔다.

송도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포스코건설이 국제업무지구 내 주거타운에 선보이는 지하 2층, 지상 38층 규모의 하버프라자 견본주택으로 향했다. 견본주택은 개방형 평면과 효율적인 동선설계로 깨끗한 주거 환경과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고 있었다. 좌석의 교육시설과 환경을 추구하며 과제자 공사가 진행 중인 송도국제학교 견학은 어제 내린 비로 취소된 상태였다. 주최 측에서는 많이 아쉬워했고 우리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 2부-우리들의 축하공연

숙소는 그리 멀지 않았다. 객실의 커다란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밀어 내고 있는 너른 패밀리가 펼쳐져 있었다. 바로 아래에는 중앙공원이

그 형체를 드러내며 아직 공사가 한창이었다. 테이블에는 작은 환경 카드와 함께 식용을 자극하는 과일이 적당히스럽게 놓여 있었다. 기분 좋은 배려였다. 상큼한 과일을 먹으며 잠깐 휴식을 취한 후 개회식장으로 발을 옮겼다.

개회식은 대한건축사협회 죄영집 회장을 비롯하여 안상수 인천시장, 여성공학기술인협회 이영희 회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 를 빛내주셨다. 특히 안상수 시장님은 인천의 미래상을 등영상과 함께 직접 소개해 주시는 열정을 보이셨다.

세계 속의 인천이 되기 위한 인천의 여러 국제행사 중 올 8월 7일부터 80일간 열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 예정이라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다. 시기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개회식 행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여러 내빈들을 보시고 여성건축사대회에 노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패도 증정하고 지역아동센터이 후원금도 전달하는 등 뜻 깊은 자리도 있었다.

총회는 박영순 전회장의 격려사와 이아희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이재락 회장의 축전으로 그동안 수고해 오신 황정복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하며 본위기기 더욱 무르익었다. 그렇게 송도에서의 첫날이 저물어갔고 축배제의와 함께 늦은 밤찬이 시작되었다.

직당한 포만감을 느끼며 식사기 거의 끝나갈 무렵 각 지역에서 참

1. 미리카민들이 험석한 행사장 풍경 2. 황정복 신임회장님 3. 지역이동센터 후원금 전달 4. 동북아 무역센터 건학





겟벌타워 강연회장에서 단체사진

여한 신입회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그 중에는 석학들이 아닌 원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바란다는 다부진 견의도 있었고, 목표에서 참석한 어느 분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기도 했다. 저마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지순 초대회장님을 비롯하여 여성건축사회를 위해 애쓰시고 지켜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해 하며 격려해 하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같았다. 그렇게 총회의 마지막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따뜻한 연대감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한 목소리로 외치던 그날의 합성 속에, 서로가 서로인 듯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되어 갔다. 그렇게 우리들의 축하공연(?)은 점점 열기를 더해 갔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자리하였다.

### 3부-글로벌 디자인

밤은 유난히도 짧았다. 많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잠자리에 들기엔 뭔가 아쉬웠던지, 우리는 수학여행을 온 여학생들 마냥 늦게까지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정말이지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 처음 이지 싶다. 그대로 밤을 세워도 좋았지만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어야했다.

세 시간 쯤 잤을까.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창밖의 도로는 비에 젖어 있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침식사 중이었다. 깔끔한 한식의 질감이 반갑다.

우리는 일정에 따라 NEATT(동북아 무역센터) 설계과정을 담은 영상물을 시청한 후, 대우건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송도대우호텔의 객실을 비롯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지하 3층, 지상 23층의 송도대우호텔은 연회장, 스파, 헬스클럽, 수영장,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중앙공원과 주 진입로의 중심축상에 배치되어 컨벤션센터, NEATT(동북아 무역센터),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시설과 연계되어 있었으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이 아쉬웠다.

호텔에서 가까운 거리에 NEATT(동북아 무역센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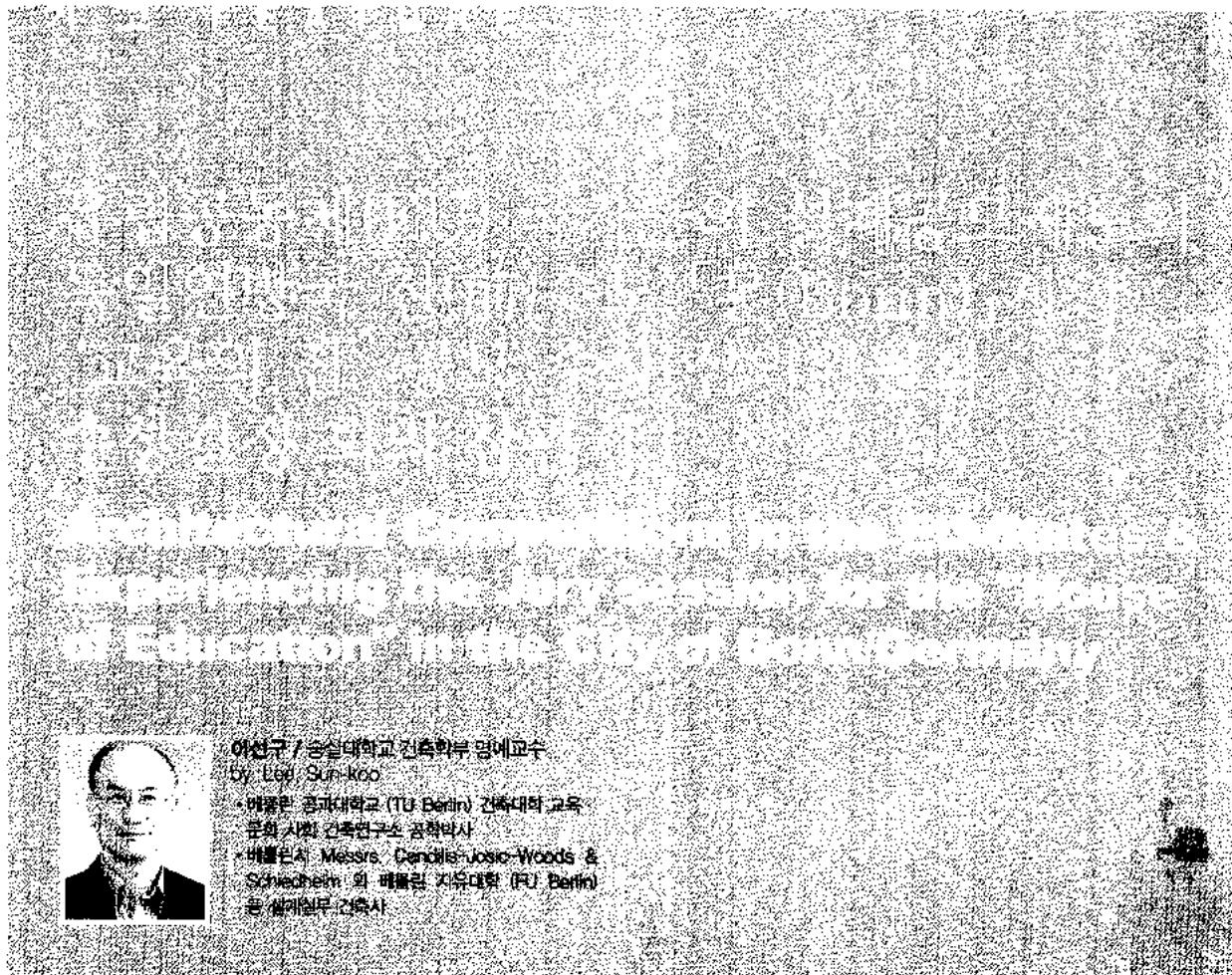
NEATT(동북아 무역센터) 건물은 저층부의 사다리꼴 평면에서 중층부의 육각형 평면, 고층부의 삼각형 평면으로 변하는 독특하고 세련된 입면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몇 개조로 나뉘어 고층부로 올라갔다. 대우건설 담당자의 브리핑이 있었지만 시간상의 한계로 충분히 들을 수는 없었다. 짧은 시간동안의 브리핑으로 많은 내용을 접할 수는 없었지만 글로벌 디자인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집약된 기술과 파트너쉽이 필요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다시 갯벌타워로 향했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건학은 취소된 모양이었다. 국내 최장 다리인 인천대교는 기술적인 한계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면서 장차 송도와 서울을 1시간내 생활권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의 첫 포문을 여는 작업인 듯하였다.

갯벌타워 강연실에선 특별자문관이신 김수문 인천광역시장 자문역의 강연회가 있었다. 김수문 자문역은 연세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젊고 열정적이었으며 유미도 겸내하였다. 한국건축의 과거와 현재를 고스란히 품어 안은 채, 거침없이 쓴아내는 말씀 속에서 현실적 한계로 힘들 수 부 에 없는 후배 건축사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도 느낄 수 있었다. 기념촬영을 끝으로 모든 공식 일정이 일단락되어지고 우리는 마지막 오찬만을 남겨두었다. 모두가 즐겁게 짐심 식사를 마치고 잠시 티타임을 갖으며 각 지역별 그룹별 사진촬영이 이어졌다. 그렇게 <15차 여성건축사대회>의 모든 일정이 마침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야 조금씩 낮이 익을 즈음 우리는 행사를 주관한 집행부와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또 다시 내년을 기약하는 인사를 나누며 차에 올랐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이 오고갔다.

『미래로 향하는 드시와 글로벌 디자인』은 송도, 그곳이만 있을 것인가.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남겨줄 것인가. 1박2일의 짧은 여행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망망한 바다를 메우는 저 술한 도래 알갱이 속으로 다시 긴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



지난 30여년 동안의 건축실무와 교육 경험은 필자로 하여금 우리 건축계, 특히 실계업계의 장래를 이 분야를 지망하는 후진들을 위하여 개선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 한 가지는 이 분야를 정열적으로 시작코자 하는 후진들이 현재보다는 더 나은 토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계공모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유능한 후진들에게 노다 넓은 업계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방법을 도색하는 일이다.

오늘날 전(全) 지구적으로 확장되고 연계된 건축설계 업무는 어느 한 나라의 관행과 제도를 다른 나라의 그것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며, 종종 이러한 비교는 현재의 만족스럽지 못한 자국(自國)의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건축사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 방법을 위한 연구는 '건축사용

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기초조사 – 유럽 각국의 건축사 업무와 대가기준에 관하여' 1를 통하여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건축사 업무의 내용을 각 단계별로 여하히 규정하여, 건축서비스 소비자인 건축주와 공급자인 건축가/계획가들이 업무내용에 상응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성취하는지를 보이고자 하였다.

필자는 2008년 10월 17일 독일연방국의 전(前)수도 본(Bonn)시의 '교육의 집(Haus der Bildung)' 설계공모 수상 심의위원회(Preisgerichtssitzung) 당선작 결정 심의에 외부손님으로 참가하여 이들의 결정과정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래에 독일 연방국 및 유럽공동체(EC) 소속 국가들의 설계 공모제도의 형편을 개관하는 첫 번째 글을 시작으로 이들 공모 제도가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본(Bonn)시의 '교육의 집' 설계공모 수상 심의 위원회 참가기를 통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1) 최종보고서, 2009.2.24, 57p

1993년 이래 유럽 경제구역(EU)내에서의 제반(諸般)서비스 성취 위탁에 관한 원칙(92/50/EWG)은 위탁 액(額)이 20만 유로(한화~2억 4천만 원)가 넘는 경우의 모든 서비스는 “유럽 전역으로 부터의 경쟁자들에게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 설계공모를 포함하는 계획서비스 역시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건축 설계공모 허용구역의 확장은 유럽경제구역에 속한 나라들에 서 이해의 양극화(兩極化)현상을 가져왔다. 유럽 법은 국내시장의 개방, 상호 정보 교환의 의무 및 차별금지와 더불어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계획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 확보라는 경제적인 고려와 건축적 정체성을 위한 지역연고라는 관점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보존고자하는 이해관계 또한 가지고 있다.

###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분야에서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GRW1995)

2003년 12월 22일자 판(版)은 1996년 1월 9일자 판 대신 그간 도입된 유로화(EURO 貨)로의 변화, 한정공모제도의 재조절 및 실무에서의 적용을 포함하며, 건물과 기술시설 및 도시와 경관구성을 위한 예시적인 설계실행을 위한 설계공모제도의 핵심적 도구이다.

이들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예시적인 설계들은, 자신들의 창의력을 타인들과 직접 비교 할 것을 종용하며, 특별히 나이도가 높거나 일상의 계획임무에 광히 경제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가장 적절하며, 각 분야간의 협업(協業)과 일반적인 양질(良質)의식을 고취한다.

설계공모는 공모 참가자들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계획임무 수여(授與)를 재현(再現)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기준들만 따르게 함으로써, 공모 참여자 개별 인물(人物)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업적으로만 설득시키기 하는 기회균등을 부여한다.

독자적인 설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상의 설계개념과 최적의 ‘파트너’를 공모주관자의 차후 결정을 위하여 집중되고 투명한 절차 속에 찾아 낼 수 있다.

오랜 설계공모 전통(최초의 공모규칙의 도입은 1867년)을 배경으로 독일연방국의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 분야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GRW 1995)’은 1977년 이후 유효한 원칙을 토대로 계속 발전되어, 설계공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평하며 동반자적 협력과 사회적, 경제적, 생태(生態)적 및 기술적 목표들을 추구하여 독일연방국의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고자 한다.

### 유럽제국의 형편

1999년 조사에 따르면, 유럽국가들 중 건축물량이 제일 많은 독일연방국의 경우 2,430억 유로(~29조 1천 6백억 원), 프랑스 1,350억

과 영국 1,050억으로, 세 나라의 국민국내총생산(GDP) 중 건축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 독일 12%, 프랑스 10%, 영국 8%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높은 공공투자 비율(20%)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낮은 독일 연방국(13%)에 비하여 공모제도는 덜 발달되어 있으며, 프랑스(40%)와 스위스(36%)가 총 건축물량 중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17개 유럽국가들 중 프랑스가 430, 독일 92, 이탈리아와 덴마크 각 30, 영국과 스페인 6, 네덜란드 1개의 공모공고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유럽경제구역 내 서비스 제공원칙(92/50/EWG)’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공모제도가 활용되는 나라들(프랑스 29%, 덴마크 27%, 이탈리아 18%, 독일 10%)과 공모제도 대신 여타 절차를 선호하는 나라들(네덜란드, 영국 및 스페인 공히 1%의 공모)로 나눌 수 있다.

### 유럽공동체 서비스 제공원칙 92/50/EWG

서비스 제공원칙은 4개의 절차를 통하는데,

- ‘개방절차’는 관심을 가지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안을 할 수 있고,
- ‘비(非) 개방절차’는 위탁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제안을 할 수 있고,
- ‘협상절차’는 위임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청하여 수탁조건에 관하여 협상하는 개별국가 단위의 절차이며,
- ‘공간계획, 도시계획, 건축 및 건설 분야’에 있어서 위임자에게 계획을 제시하고 공모 실사 위원회를 통하여 수임자를 결정하는 ‘설계공모’ 절차가 있다. 위의 ‘개방절차’, ‘비 개방절차’, ‘협상절차’ 및 ‘설계공모’ 제도 모두 일반 공모 의무 및 어느 한 국가에만 제한된 공시 금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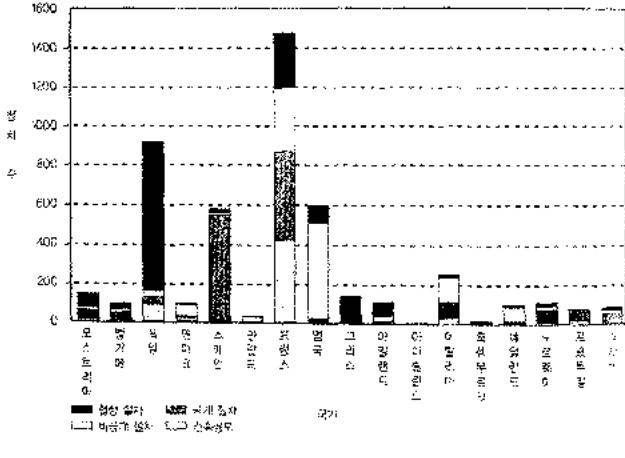
‘개방절차’는 모든 관심있는 자들에게 제안제출 가능성을 부여하는데, 과업이 정확하게 기술됨으로써 제시된 가격에 따른 위임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 허용된다. 1999년 통계에 의하면 공모과업의 33% 가이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비(非)공개 절차’는 공모주관자가 관심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네 절차 중 가장 비번하게 적용되었다.

‘협상절차’는 설계 및 계획임무가 처음부터 확정하기 어려워 위임 협상 과정동안에야 비로서 과업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1999년의 공시된 과업의 23%가 협상절차를 통하여 부여되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설계공모’를 선호하며, 독일이 ‘협상절차’를, 스페인이 ‘공개절차’를,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영국 등이 ‘비(非)공개 절차’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독일연방국이 유럽국가들 중 가장 큰 건축물량을 차지하며, 1998년 278개 설계공모가 실행되었고 그 중 92개가 유럽 전역에 걸친 공모였다.



〈표 1〉 유럽 원자 및 국가에 따른 건축 및 지원 엔지니어 성적의 유럽 전보에 금시된  
유럽 전역에 출신 공로 광고의 수(1999)

인구 100만명당 건축가 수는 독일 1,135인, 프랑스 417인, 영국 504인으로 독일연방국의 건축가 수는 '과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지원 5인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소가 80%, 프랑스의 4인 미만 사무소 90%, 영국의 10인 이하 사무소는 60%이다.

1993년 서비스 제공원칙 도입이래, 지역적으로 국한된 전통적인 공모는 더 이상 무지 될 수 없게 되었고, 1995년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 분야에서의 공모원칙과 기준(GRW1995)'이 관리규정으로 자리 잡고, 이 규정 속에 '공개공모'와 '제한공모'가 주요원칙으로 제시되고, 두 공모는 모두 '아이디어 공모'와 '실현공모'의 두 단계로 실행되며, 제한공모의 형태로서 '한정된 공개공모', '초대공모'와 '협력적 절차' 등을 들 수 있다. 그간의 유럽전역에 걸친 공모로 인한 경험은 점증하는 공모 참가자들의 수로 인한 적극 줄어드는 수상기회, 행정절차의 증대로 인한 공모수의 감소, 제한공모의 경우 처음부터 짧은 계획기(건축사)들의 예선에서의 배제/탈락 가능성 증대, 공모 장기화 - 공모공시부터 수상작 결정까지 보통 8개월로 인한 비용증대, 많은 참가자 수로 인한 계획서비스와 경제적인 소모 및 대중사무소들이 공모에 이길 가능성이 빈번해 졌다는 등의 비판 또한 유발하였다.

## 설계공모 유형

'아이디어 공모'는 설계과제를 혁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위하여 가능한한 많은 관심있는 계획가들에게 개방되며, 실제로 드시계획적인 주제 또는 신선한 디자인 아이디어 수집을 위하여 시행된다.

'실현공모'는 대부분 제한된 형태의 공모로서 위임의 실현을 목표로 일상적 과업을 대한다. 실제 일반에 개방된 아이디어 공모와 참가가 제한적인 실현공모가 가장 흔한 경우로서, 독일연방국의 경우, 1998년 264개 진행된 공모 중, 초대공모가 107개, 부분적으로 개방된 공모 72, 개방공모가 85개였다.

독일연방국이 실현공모를 한 단계 또는 두 단계의 공개공모, 제한된 공개공모, 초대공모, 협력적 절차 등으로 실행함에 비하여, 이웃

네덜란드는 1999년 총 35개 공모 거의 전부가 공개공모로 시행되었다. 연간 총 1,000여 공모에 이르는 프랑스와 1995~97년 동안 50여 공모에 불과한 영국(왕립영국건축사협회, RIBA의 통계)의 경우는 우수사업 개별국가들의 계획 위원회(F) 관행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 공모참가의 판단기준

제한된 공모의 점증하는 추세에 비추어 누가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응모하며, 어떤 선발기준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공모 참가기준은 국제공모와 여러 나라들간의 계획서비스 교환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제한공모를 위한 판단기준은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스케치'의 구체적인 문제와 상관된 설계의 질과 계획사무소들의 전문가적 성능의 증명, 참가자의 경제적 성취능력 및 충전서와 경험 등이다.

누가 미리 선발을 하는가가 문제인데, 독일연방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독자적인 선발위원회가, 영국에서는 시장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스페인과 스위스에서 건축주나 그 대행인들이 이 임무를 맡는다.

## 계획기(건축사), 시공자와 투자자 3자 참여 협력모형

전통적 형태의 공보는 설계와 비용제안이 분리되어 판단되며, 선발 심의위원회는 설계의 계획적/건축적 질(質)을 심의 한 후, 제출된 서류를 통반하는 시공자의 비용제안과 연계되는데, 건축주는 이를 근거로 수상자를 중에서 위임결정을 하게된다.

또 다른 공보방식은 건축주가 공모고시에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계획은 이를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의 비용제안이 공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건축사와 시공자간의 협력형태는 예컨대 건설업자가 건축사를 위임 심지어 고용하느냐 또는 건축사와 건설업자 쌍방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설계를 발전시키느냐는 문제에 까지 이르게 된다.

독일연방국의 경우, 건축사와 시장자가 협력하는 '연합공모' 외에도, 건축사와 투자자가 협력하여 하나의 건축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투자자 공모' 제도 또한 볼 수 있다.

영국의 '설계와 건축(Design and Build)' 공모와 '개발업자 주도 공모(Developer-led Competition)'의 경우 건축사, 시공자와 투자자와 협력이 전제 조건이며, 프랑스의 '설계개념-실현공모(Concours Conception réalisation)'의 경우 건축사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제안한다.

## 시상(施賞) 심사위원회의 구성

독일연방국, 이탈리아, 스위스와 체코와 슬로바키아 국에서 시장 심사위의 구성은 전문지식을 가진 심사위원의 전체 위원수에 대한

비례로 최소 1/3부터 50%를 점한다.

심사위원회의 수임(受任)에 관한 지시권한(指示權限)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독일연방국의 경우 심사위원회는 수임주체를 할 수 있고, 공모 주최측(공모자)은 3인의 수상자 중 하나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심사위의 구성은 통상 7~11인의 흔수이며, 이 중 '전문 심사위원' 수는 과반수에, 최소 2인이 녹록적 전문가이어야 한다.

'대상물 심사위원'은 해당 지역형편과 공모과제에 친숙하여야 하며, 심사위 위원장은 전문 심사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프랑스는 심사대상이 20만 유로(~2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 최소 1/3이 건축사이며, 심사위원 5~8인 중 1/3이 전문가(건축사)와 2/3가 분야별 엔지니어, 재정전문가 및 직산사(積算士, quantity surveyor)로 구성되는 영국의 심사위원회는 공모자가 소수로서 심사위에 대표되고, 종종 유통건축사협회(RIBA) 공모국 위원이 심사위원이 된다. 심의위의 결정에 추천된 건축사의 수임료 제안이 과다하게 높을 경우, 건축주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모 참가자의 익명성(匿名性) 여부

전통적으로 공모절차이 있어서 설계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전통을 가진 프랑스의 경우처럼, 공모작품 제출 이전에 공모자와 협의 또는 예비선발이 가능한 점을 제외하면, '유럽 서비스 제공 원칙 7조'의 '심사위원회는 익명으로 제출된 공모작품에 관하여 결정한다'는 원칙에 충실히 유럽 대개 국가들에서의 건축공모의 익명성은 보장되고 있고, 프랑스 역시 익명성 요구 압력하에 공모절차를 수정하고 있다.

공모작품 제출 이전에, 공모 계획과제의 난도(難度)로 인한 공모자와 공모참가자들 및 시상위원회 위원들과의 대담을 통한 추가설명의 기회가 '콜로퀴움(colloquium)' 등을 통하여 부여되는 독일연방국의 '협력적 절차' 또한, 건축주와 건축사간의 타협적인 의견교환, 대화를 통한 상호학습, 정신적/창의적 성취제기의 관점과 더불어 익명성에 대한 두어야 한다는 논거이다.

### 공모참여자의 보수(報酬)와 공모작품들의 전시

유럽각국들의 제한공모의 경우 참가자들의 공모비용은 초대공모 시 보상된다. 프랑스는 공모대상 20만 유로 이상의 제한공모 참가자 모두에게 계획서비스 비용의 80%를 보상하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 초대공모에 한하여 보상된다.

공모결과의 전시는 독일의 경우,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 분

야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의무적이지만, 프랑스,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 그렇지 않다.

공공의 참여를 통하여 민주적 결정을 찾아내는 과정을 투명화하지 만드는 공모참가 작품들의 전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공모 결과를 출판함은 특히 젊은 세대 계획가들에게 가시효과(可視效果)적 의미를 가지며, 공모전시를 통하여 계획가와 비(非)전문가 모두가 공동 토론의 마당에서 건축이 갖는 사회·문화·정치적인 제 문제의식을 높일 수 있다.

### 유럽지역에서의 설계공모제도의 전망

유럽국가들 중 인구가 제일 많은 독일연방국을 비롯한 유럽제국들의 건축공모 형편을 관찰하다면, 한마디로 '유럽의 건축공모'가 아니라, '유럽에 다양한 공모제도가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1992년의 유럽공동체 서비스 제공원칙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어딜 곳에도 통하는 국제적으로 유효하며 적용 가능한 공모절차는 유럽 각국에서 관찰될수 없었다. 공모형태에 관한 다양한 개별 국가적 해석은 해당지역의 건축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자체적 다양성을 갖게 되며, 유럽 전역에 걸친 공모절차 획일화는 의미도 없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유럽 전역에 걸쳐 공모된 건축 및 계획서비스의 1~2%만이 외국에 발주되고 있으며, 공모의 국제화에 관한 대규모 사무소들은 초대공모, 소규모 사무소들은 공개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 있다.

### 유럽지역 공모형태로 부터의 교훈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 끌어낼 수 있는 한국의 공모현실에 기여할 수 있는 유럽공모제도로 부터의 교훈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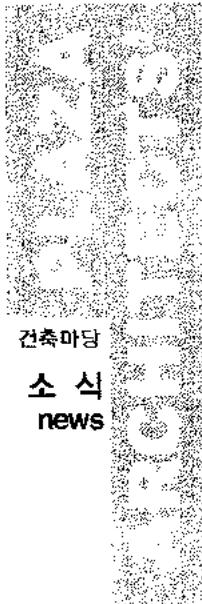
세계무역기구의 가입이래, 외국 건축사사무소들의 건축사 해외수출(독일연방국의 architects export, 프랑스의 '수출을 위한 프랑스 건축사(Architects Français à L'Export, AFEX)' 또 아시아 여러 나라들로부터 미국 건축대학들로 유학 온 건축학도들의 미국 건축사사무소들의 인턴십(internship)과정을 통한 (한국)건축 설계시장에의 진출계획 등을 감안 할 때, 국외로 부터의 국내 설계시장에의 도전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건축주들의 취향에 외국 건축사사무소들의 건축설계의 질이 월등히 우수하다는지 이들의 건축설계비가 국내 수가 수준과 비슷할 경우라면 이러한 도전은 가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선에 설계공모제도의 합리화를 통하여 슬기롭게 대처함이 우리 건축계가 취하여야 할 최상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

2) Anderson, G.: 'In some niches, still reaching for star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17, 2009, p.11 이후 참조.

미합중국의 국경을 넘어, 와국 터번의 건축하고들의 미국 건축사사고소 「인력식 고성」을 통한 외국의 건축시후보 채용으로 차우 중국, 인도, 이스라엘(이: 한국 등)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의 정황을 잘 살펴보고 있다.



## 협회소식\_ kira news

### 이사회

#### 제4회 이사회

2009년도 제5회 이사회가 지난 5월 13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골프회원권 매입에 관한 건과 부의안건으로 위원회 등 운영규정 개정의 건, 예비규정 개정의 건, 건축연구원 운영규정 개정의 건, 경북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자산 취득의 건, 홍보 사업비 집행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골프회원권 매입에 관한 건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위원회 등 운영규정 개정의 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보대로 행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예비규정 개정의 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보대로 행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건축연구원 운영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경북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자산 취득의 건  
-담당임원 4인(이창섭, 강성익, 장양순, 이영호)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위원회에 영호)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위원회에 위임함.
- 제6호의안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홍보사업비 중 '법제도개선 사업 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집행하기로 함.  
▷회장 : 회장단 협의를 거쳐 집행  
▷법제 임원 및 위원장 등 : 회장 보고 후 집행

#### ▲기타사항

- 아카시아에서 발간하는 잡지(아키텍쳐아시아)에 많은 건축사들이 작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위촉연구원의 연구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예산검토를 요청함.
- 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구성현황을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함.

###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행정위원회

제1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등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과 프레스센터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여러 규정 개정에 관한 건, 건축연구원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위원회 등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제4조 제2항, 제7조 제4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개정안에 놓으(놓고)  
▷용어정리, 간사위임, 회의시간에 대한 규정, 회의록 보고에 관한 사항 논의
- 제2호 : 프레스센터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기정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보완이 필요함.  
▷프레스센터의 용어가 문화홍보위원회로 개칭되고 문화홍보위원회, 신문편집 위원회, 건축사지편찬위원회로 각각의 개별위원회가 되므로 이에 맞는 새 '개정규정'이 필요함.
- 제3호 : 예비규정 제1항에 관한 건  
-원안승인  
▷회원, 비회원 회원비 지급 현실화, 강사료 외-식사비 현실화 자금 기준 변경사항 논의
- 제4호 : 건축연구원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원안승인  
▷행정원추가, 행정직추가, 전문연구위원과 위촉연구원 및 위촉직원, 연구원의 직무교육, 심과급지급, 연구수당지급,

## 연구원 임용자격기준, 행정직자족기준 등에 관한 사항 논의

### ■제2회 행정위원회

제2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등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과 여비규정 개정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위원회 등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 개정운영규정의 필요성과 범위의 정확성을 위한 위원회별 의견 타진 필요(보류)
- ▷ 용어정리, 전문위원 → 자문위원 명칭수정, 부위원장 및 간사 자문위원의 직무내용, 회의 개최요구서 요건첨부, 회의록 양식규정 논의
- 제2호 : 여비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회의 참석비 지급 기준, 현실성이 결여된 협회의 강사료 및 심사비 지급기준 현실화하기로 함. (수정안통과)
  - ▷ 제11조 다만 이하 내용은 2항으로 분리
  - ▷ <별표Ⅲ> 회의참석비 지급기준표는 흔적으로 운영
  - ▷ 제11조 2조 2항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1일 1회에 한하여 회의참석비 (교통비 1회의비)에 준하여 지불하고 그 외 충복회의시 (회의비)만 지불

### ■제2회 사업위원회

제2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장 규모 및 행사주제에 관한 건, 전시장 구성 및 동시행사 기획에 관한 건, 참가업체 유치 방안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전시장 규모는 현실적인 경기률 확장과 전시경험을 바탕으로 3개실로 결정하며, 복합부스는 유료 300부스와 행사용 부스 포함 총 450부스로 계획하고 행사주제 결정은

차기 회의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제2호 : 전시장 구성 및 동시행사 기획에 관한 건
  - 전시회 추진계획 스케줄을 참고하여 매 회의시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제3호 : 참가업체 유치 방안에 관한 건
  - 참가업체 유치방안은 온라인을 활용하기로 함.

### ■제1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제1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 등록건축사 제도 운영에 관한 건과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APEC 등록건축사 제도 운영에 관한 건
  - APEC 등록건축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함.
    - ▷ 1회 APEC 등록건축사 등록갱신 : '07년 5월부터 ~ '09년 5월까지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가 마련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09년 6월 30일 까지 등록갱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함.
    - 2회 이상 참석자 : APEC 등록건축사 가 등록갱신 신청 시 등록갱신 처리
    - 2회 미만 참석자 : 등록갱신 대상자가 계속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세미나 참석, 논문제출 등에 관한 Report를 '09년 5월 30일 까지 제출 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등록갱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양식을 제공하기로 함.
  - ▷ 제2회 APEC 등록건축사 십사·등록 및 APEC 등록건축사 계속교육 프로그램 마련
  - 제2기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1기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가 유임될 수 있도록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 제2기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구성(안)

구 성 단 체 명	인원	비고
기획조정부	1인	
개설자주사전학회	3인	2인(2)
디자인학회	2인	1인(1)
한국건축기밀학회	2인	1인(1)
세로운분야를창조하는건축사협의회	1인	1인(0)
정부기획	1인	-

### ■제3회 국제위원회

제3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5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9년도 국제위원회 업무분담에 관한 건과 제13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에 관한 건, 제15차 아카시아 포럼 참가에 관한 건, UIA PPC 회의 참가에 관한 건, KIRA-ACE 공동 WG 회의 개최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09년도 국제위원회 업무분담에 관한 건
  - 주요 국제업무에 대한 각 위원의 관심분야를 조사하여 추후 업무분장을 위한 1차 자료로 활용키로 함.
- 제2호 : 제13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에 관한 건
  - 제13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주최기관인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최일정 ('09.8.3~7)을 수락하기로 함.
  - 한중일건축사협의회와 같은 달 ('09.8) 중 개최되는 제15차 아카시아 포럼의 참가희망 위원을 함께 조사하여 대표단 구성의 1차 자료로 활용키로 함.
- 제3호 : 제15차 아카시아 포럼 참가에 관한 건
  - 학생대표는 포트폴리오 심사와 영어연설을 통해 선발키로 함. 몽골 측에서 우리 협회의 Forum 15 전시 협조요청을 해온 바, 좀 더 자세한 전시 참여조건을 알아본 후 그에 따라 가능한 협조방안을 마련키로 함.
- 제4호 : UIA PPC 회의 참가에 관한 건
  - '09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UIA PPC 회의에 신춘규 국제담당이사와 정지숙 국제위원장이 참가하기로 함.
- 제5호 : KIRA-ACE 공동 WG 회의 개최에

## 관한 건

- WG 구성원 교체, 하반기 중 WG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장과의 협의가 필요함.
- ▷ WG 현 구성원 중 임제용 회원은 KIRA-ACE WG 회의 참가보고서 등에 한국건축가협회 국제위원장임을 명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 제1회 친환경위원회

제1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친환경위원회 사업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위원회 사업에 관한 건  
-아래의 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 친환경건축물 설계에 대한 보수대기 정당화를 위한 과제 논의
  - ▷ 현황 분석 및 건축설계 분야의 친환경 관련 연구
  - ▷ 대형건축사사무소 친환경 적용사례 관련 간담회 개최
  - ▷ 해외 친환경 건축물 탐방에 관한 계획 수립
  - ▷ 친환경 관련 책자 발행 및 관련 자료 보급
  - ▷ 대한건축사협회의 NGO 활동 강화

## ■ 제2회 친환경위원회

제2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친환경위원회 운영과제에 관한 건, 본과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에 관한 건, 대형건축사사무소 친환경 적용사례 관련 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위원회 운영과제에 관한 건  
-차기 회의(6/3(수) 16시)에서 본과별로 사업과제를 발표하기로 함.  
-분과별 위원들은 차기 회의까지 분과별 사업과제를 먼저 정하여 차기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함.
- 제2호 : 본과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에 관한 건

-전문성을 위해 2개 분과로 운영하기로 함.

- ▷ 1분과(친환경정책) : 김지한, 강정삼, 이규한, 이유경
  - 주제 : 정책개발, 기술개발, 유지관리, IT, 리노베이션
- ▷ 2분과(친환경건축) : 이홍식(부위원장), 안상준, 이영호, 신경선, 권기창
  - 주제 : 생태,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품질, 지연, 태양열), 건축자재, 산업분류
- ▷ 각 분과의 위원장을 전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함.

- 제3호 : 대형건축사사무소 친환경 적용사례 관련 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

-적절한 시기에 건축사사무소의 친환경 운영 담당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함.

### ▲ 기타사항

- 7월 하절, 10월 일본등 해외 친환경건축 덤방과 국제위원회 협력 등 관련 준비에 대해 이구환 위원에게 우임하기로 함.
- 회의결과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위원회와 사무처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우편 중간사가 필요함.
-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세대학교 이승복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용상 연구원을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 전제위원회 회의는 매달 흔수·주 수요일 16시에 개최하기로 함.  
차기 회의 : 6/3(수) 16시

## ■ 제4회 법제위원회

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9년도 법제위원회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에 관한 건, 법제위원회 워크샵 개최에 관한 건, 건축사법 개정안에 관한 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건,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에 관한 건, 법률자문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2009년도 법제위원회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에 관한 건

-2009년도 추진과제 중 선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워크샵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결정키로 함.

- 제2호 : 법제위원회 워크샵 개최에 관한 건

-'09년도 법제위원회의 운영계획과 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의 설정 및 추진방안을 신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함.

▷ 일시 : 2009. 6. 12(금)~13(토)【1박2일】

▷ 장소 : 경기도 용인구(예정: 환경리조트)

- 제3호 : 건축사법 개정안에 관한 건

-건축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관련하여 건축사와 비슷한 명칭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함.

-건축사법 개정 공포시기에 맞춰 건축사지 및 홈페이지에 건축사의 선미사(士)를 소승사師로 변경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 이 필요함.

- 제4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건

-초고층 건축물을 설계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내용과 건축법상 상충되는 내용 등에 대하여 법제위원회 각자 검토한 의견을 법제위원회 회의에 5월 28일(목)까지 올려 그 내용을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검토받은 후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함.

- 제5호 · 제6호 :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에 관한 건

-법제위원회 소속하여 법령개정 TF팀, 제도개선 TF팀 등으로 별도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TF팀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7호 : 법률자문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

-회원과 연계된 자문 및 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변호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바, 이를 다루고 있는 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하기로 함.

### ▲ 기타사항

- 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이 회의에 무단 2회이상 불참 또는 3회이상 불참시에는 법제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알고 다른 회원에게 법제위원회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함.(적극적인 참여 협조요청)
-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건  
-4면도로인 경우 채광, 통풍, 일조, 일사, 연소의 거리 등 1면도로의 경우보다 유리한 대지에 있으면서도 과도하게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빼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라 시료되는 바. 지구단위계획내의 지역은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그 외의 지역은 3면, 4면 도로인 경우 주·부출입구에서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 이에 이창율 이사가 개정(안) 및 사유를 정리하여 건축법령 개정안에 포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기로 함.
- 세움터의 운영에 관한 건  
-세움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허가 접수시 인터넷으로 도서의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도서를 중복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에 따른 행위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 제5회 법제위원회

제5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9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시행령·시행구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건  
-시도건축사회 의견과 각 위원이 법제회의 실에 올려주는 의견을 위원장이 검토한 후 법제위원회의 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건축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음.

### ▲ 기타사항

- 자치단체의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률 안전점검자로 구조기술사만이 지정되어 업무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나, 이에 대하여 이사회(기타사항)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정철수 위원이 구체적인(현황, 문제점, 제도개선, 대처방안 등) 자료를 작성하기로 함.

### ■ 제2회 회원교류위원회

제2회 회원교류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2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건축사 등산동호회 지원에 관한 건, 한중일 건축사 국제친선축구대회 지원에 관한 건, 전국건축사친환경 캠페인 행사 개최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전국건축사 등산동호회 지원에 관한 건  
-전국건축사 등산동호회 예산 5,000,000원 /년을 지원을 회장에게 건의키로 함.
- 제2호 : 한중일 건축사 국제친선축구대회 지원에 관한 건  
-한중일 건축사 국제친선축구대회 예산 20,000,000원/년을 지원을 회장에게 건의키로 하고, 한중일 건축사 국제친선축구대회 예산(안)을 받기로 함.
- 제3호 : 전국건축사친환경 캠페인 행사 개최에 관한 건  
-건축에 관해 일반인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 행사로 건축의 날(9월 25일)에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후 차기 회의시 논의키로 함.

### ▲ 기타사항

- 모든 행사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
- 예산지원은 전국건축사 축구대회 등 전국 행사 위주의 지원임을 명확히 하며, 이에 전국행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전국행사지원시 지원기준(문화활동 운영 규칙 또는 회원교류지원 운영규칙)을 정하는 의견
- 동호회의 최소경비 지원과 나머지 부분은 자체 충당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

• 회의일정 협의 : 6월 회의는 두 번째 수요일 10시에 개최키로 하고 이후 회의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함.

### ■ 제4회 정책위원회

제4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2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9년도 정책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해당 위원회와의 공조 방안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2009년도 정책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건  
주요 추진과제 설정 건 : 협회발전계획 및 위원회 설정과제상 포괄적 측면에서 유사한 비, 워크숍 논의 사항을 우선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 실천 계획에 주력하도록 함.
- 제2호 : 기타사항  
-회장까지 빠르게 행정처리해서 업무협조 및 효율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협회지원 회의 참석여부 논의  
▷ 회장 지시사항으로 직원의 고유업무 처리를 위한 회의 참석 지향을 지시하셨으나, 장단점과 각 위원회 상황 파악상 당분간 회의 참석 요망  
-정책위원회의 회의시 회장 및 부회장, 혹은 상근이사, 부서장 등의 참석을 통한 일관된 업무흐름 유도  
▷ 협회 일정 및 회장 일정 등의 이유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회장에게 보고 후 추후 결정  
-협회 발전을 위하여 정책위원회 워크숍 제안(유홍재 위원)

- 제3호 : 해당 위원회와의 공조 방안에 관한 건  
-정책위원회 담당 위원의 해당 위원회 공조 사항을 수시, 혹은 협의 시 보고 추진  
-각 위원회별 위원회 설립 취지 및 성격과 현황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  
-위원회간 상호 교류를 통한 업무 공조 강화

### ■ 제1회 재경위원회

제1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7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건  
…재경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회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회관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소위원회는 이영호부위원장은 선임한 후 위원은 소위원회장이 선정토록 위임함.  
▷ 소위원회 위원 : 김의중, 이무열, 황재훈 위원(스위워장 선정)
- 아울러, 협회 「건축문화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기금관리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함.

#### ▲ 기타사항

- 임시총회 개최 소요예산의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  
단체통합과 관련하여 6월중 임시총회 개최가 결정될 경우 총회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안」에 대하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경 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사회에 상정토록 함.

### ■ 제4회 공제사업위원회

제4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손해배상공제업무 시행계획에 관한 건과 공제사업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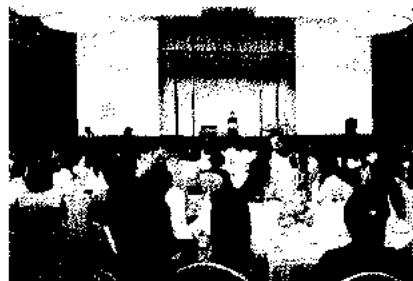
#### ▲ 협의사항

- 제1호 : 손해배상공제업무 시행계획에 관한 건  
- 보험사 손해배상공제업무 협의(안)  
- 전산개발업체 선정(안)
- 제2호 : 공제사업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의 업무

### 건축계소식

경북건축사회, 중국길림성 조선족설계 협회와 교류 협정

### 제15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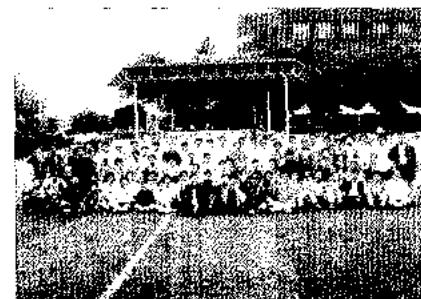


경상북도건축사회는 지난 5월 18일 조선족 자치주정부건설국에서 중국길림성조선족자치주정부건설설계협회와 건축문화 및 기술교류를 위한 협정식을 가졌다.

경상북도건축사회 박재웅 회장과 회원 7명은 조선족자치주정부건설국을 방문하여 향후 건축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회원이 중국에 설계 및 관리업무로 진출할 경으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경북회원은 조인식을 마치고 조선족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축물을 견학하고 올해 9월에 개최되는 경상북도건축제에서도 조선족자치주정부건설설계협회에서 전주작품을 출품하도록 통보했다.

### 제1회 영남지역 건축사 친선축구대회 개최



대구건축사회죽구동호회(회장 이길웅)는 지난 5월 23일 '제1회 영남지역 건축사 친선축구대회'를 대구시에 위치한 대륜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대구건축사회죽구동호회가 주최하고 대구건축사회(회장 신동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대구건축사회 신동출 회장과 임원을 비롯한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 정태석 부회장과 120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건  
…재경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회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회관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소위원회는 이영호부위원장은 선임한 후 위원은 소위원회가 선정토록 위임함.  
▷ 소위원회 위원 : 김의중, 이무열, 황재훈 위원(스위워장 선정)
- 아울러, 협회 「건축문화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기금관리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함.

#### ▲ 기타사항

- 임시총회 개최 소요예산의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  
단체통합과 관련하여 6월중 임시총회 개최가 결정될 경우 총회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안」에 대하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경 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사회에 상정도록 함.

### ■ 제4회 공제사업위원회

제4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손해배상공제업무 시행계획에 관한 건과 공제사업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손해배상공제업무 시행계획에 관한 건  
- 보험사 손해배상공제업무 협의(안)  
- 전산개발업체 선정(안)
- 제2호 : 공제사업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의 업무

### 건축계소식

경북건축사회, 중국길림성 조선족설계 협회와 교류 협정

### 제15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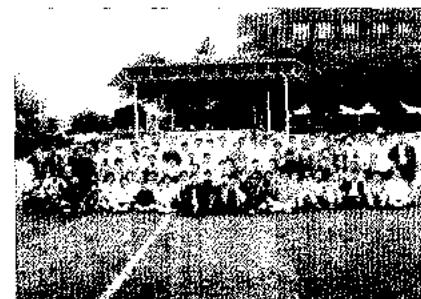


경상북도건축사회는 지난 5월 18일 조선족 자치주정부건설국에서 중국길림성조선족자치주정부건설설계협회와 건축문화 및 기술교류를 위한 협정식을 가졌다.

경상북도건축사회 박재웅 회장과 회원 7명은 조선족자치주정부건설국을 방문하여 향후 건축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회원이 중국에 설계 및 관리업무로 진출할 경으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경북회원은 조인식을 마치고 조선족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축물을 견학하고 올해 9월에 개최되는 경상북도건축제에서도 조선족자치주정부건설설계협회에서 전주작품을 출품하도록 통보했다.

### 제1회 영남지역 건축사 친선축구대회 개최



대구건축사회죽구동호회(회장 이길웅)는 지난 5월 23일 '제1회 영남지역 건축사 친선축구대회'를 대구시에 위치한 대륜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대구건축사회죽구동호회가 주최하고 대구건축사회(회장 신동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대구건축사회 신동출 회장과 임원을 비롯한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 정태석 부회장과 120

여명의 동호회원 및 회원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몇 년간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 행사를 통하여 맺어진 우정을 더욱 돋구어 하자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는 영남지역에 위치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이상 5개 지역 건축사회에 소속된 축구 동호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짐과 동시에 영남지역의 건축문화발전에 대한 상호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를 교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제1회 심원건축학술상 당선 발표

제1회 심원건축학술상(Simwon Architectural Awards for Academic Researcher)의 당선작이 발표됐다.

당선작은 '벽전(甕顛)\_박성형 作(주.전립 건축 기획실 실장)'으로 심사위원은 "이 논문

은 낙랑에서부터 조선후기의 이로기까지 한반도에서 지어졌던 모든 벽전(혹은 벽돌) 관련 의 건축유구와 문현을 망라하여, 벽전 건축이 갖는 형태적, 의장적, 구조적, 생산적 특성 등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이 작업은 벽전과 관련된 이제까지의 어떠한 시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고 방대한 분량을 다루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새롭게 밝혀진 부분도 적지 않다."고 수상작을 평가했다.

심원건축학술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한 젊은 건축가를 통하여 건축의 세계를 이해하고 건축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 기업가가 요절한 그 건축가와의 인연을 회상하며 건축의 인문적 도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만든, 속 깊은 후원회가 심원문화사업회다. 사업회가 벌이는 첫 번째 후원사업인 <심원건축학술상>은 건축 역사와 이론, 건축미학과 비평 분야의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신진학자 및 저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1년 이내 단행본으로 출판이 가능한 완성된 연구 성과물로서 세상에 발표되지 않은 원고를 응모 받아 그 중 매번 1편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당선작에 대하여는 단행본 출간과 저술지원비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상식 일정 지난 6월 5일 태재학당 역시박 복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당선작의 물해 12월 말에 출간된다.

• 문의 : 02-2235-1960

### 2009 인천건축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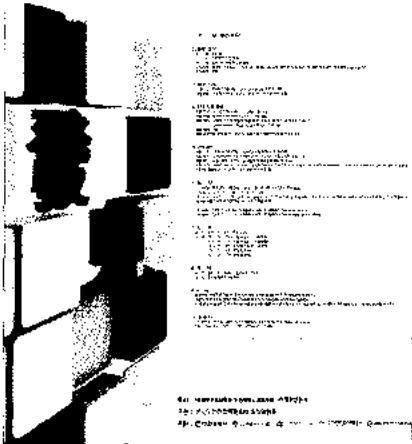
인천건축문화제의 인천건축학생공모전, 인천건축UCC공모전, 노시건축사진공모전이 개최된다.

먼저 제6회 인천건축학생공모전은 '발견(發見)'이라는 주제로 6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 대지는 인천광역시 전 지역이며, 용도는 참가자가 자유적으로 설정하면 된다. 국내외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내 공동작품이 가능하다.

'제2회 인천건축UCC공모전'은 인천의 도시, 건축문화 '인천 도시, 건축의 비전' '인천 건축 문화의 역사'와 기타 인천의 건축 문화와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를 건축물, 조형물, 도시공간을 통하여 표현한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대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 제6회 인천건축학생공모전

6/1 ~ 6/30 Inchon Architectural Student Competition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로 대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제7회 도시건축사진공모전은 오는 8 월 4일 '인천의 도시, 건축 문화' '인천 도시, 건축의 비전' '인천 건축 문화의 역사'와 기타 인천의 건축 문화와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를 건축물, 조형물, 도시공간을 통하여 표현한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대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인천건축문화제는 '99 건축문화의 해'에 즈음하여 제1회 인천건축전을 시작으로 인천광역시의 비중이 큰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한 행사이다.

• 문의 : 인천광역시건축사회(2009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032-437 3381~4, <http://www.inkira.or.kr>

### 제4회 2009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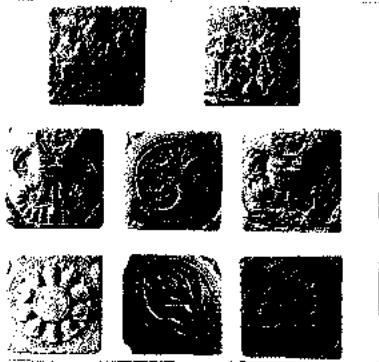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건축가협회는 일상 생활 장소를 문화적 공간으로 개선한 단체와 개인에게 격려와 포상으로 공간문화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2009년도 시상계획을 공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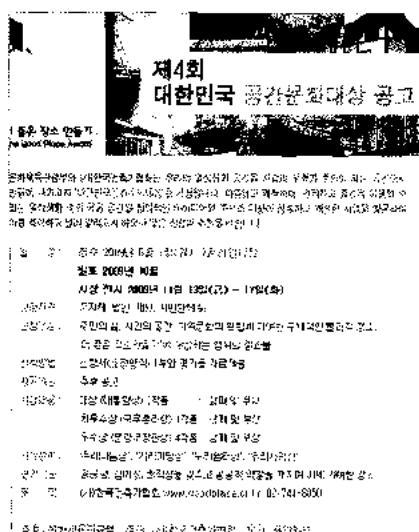
시상 분야는 4개 분야로서 '거리, 광장 등을 창의적 구상으로 좋은 장소를 만든 사례에 주는 거리마당',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누리쉼터', '거리마당, 누리쉼터 등을 만드는데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사례에 주는 두레

수상자 박성형씨

부여 규암면 날출 각동무늬 벽전

시상식 행사장 전경





나눔', '우리역사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하여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우리 사랑' 중에서 6개 장소를 선정하여 대상에는 대통령 표장(1), 최우수상에는 국무총리 표장(1), 우수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장(4)을 시상한다. 수상자(단체)에게는 부상으로 상금이 수여된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까지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홈페이지([www.goodplace.or.kr](http://www.goodplace.or.kr))를 통해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분야별 장소들은 서류심사를 한 뒤 현장심사를 거쳐 2009년 10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주민의 삶, 지역의 공간,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한 구체적인 물리적 장소나 마을·도시, 민간·지자체·주민단체 등이 사람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과 그 결과물이다. 접수된 작품들은 공공성, 심미성, 독창성을 갖추었는가, 공공적 역할을 가지는가, 그 절차 과정에서 주민, 공공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졌는지 등을 평가한다.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자들은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있을 '200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와 함께 시장 공간들의 이미지가 전시된다. 전시내용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장소들을 평가위원들이 직접 현장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간의 영상을, 사진, 인터뷰 자료 등을 채록·정리하여 전시 작품화해서 공간문화의 이미지를 넓여 줄 예정이다.

이 전시기간 중인 시상식도 같이 열린다.

또한, 대상과 더불어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심포지엄'과 '내가 찾은 좋은 장소' 사진전 모전이 개최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 심포지엄은 공간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되며 2009년 6월 16일(화) 정동극장에서 '도시재생과 공간문화'라는 주제로 1부에는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의 기제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의 사례를 알아보고, 2부에는 최종현교수(한양대학교)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내가 찾은 좋은 장소' 사진공모전은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 중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을 일반 시민들이 찾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자 '내가 찾은 좋은 장소'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좋은장소 만들기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www.goodplace.or.kr](http://www.goodplace.or.kr)

이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사전등록을 권한다.

- 주제 : 비정형 건축과 강구조 설계(Free Form Architecture vs. Steel Structure)
- 장소 : 한고과학기술단지총연합회 국제회의실 소회의실2
- 일정 및 내용

- 시즌 1(6월 30일) : 비정형을 위한 강구조

> 계획 : 비정형을 위한 강구조\_비정형 건축으로의 진화(조종수 교수/전국대)

> 구조 : 비정형에 적합한 강구조의 특성과 설계제작(김종만 교수/승신대)

- 시즌 2(7월 21일) : 프로젝트 적용사례

> 계획 : 비정형 건축의 설계 프로세스-동대문디자인플라자(황재식 소장/남우설계)

> 구조 : 비정형 건축물의 구조 및 시장(김대중 부장/삼성물산)

- 시즌 3(9월 29일) : 기술요소

> 계획 : 개폐식 동 구조디자인(박선우 교수/한국예총)

> 구조 : Free Form 구조시스템(주영규 교수/고려대)

- 시즌 4(10월 22일) : 비정형과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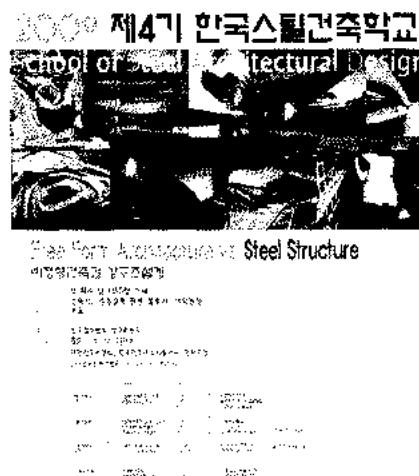
> 계획 : 비정형 건축들의 상세설계와 시공기술(이강 교수/연세대)

> 구조 : 구조설계사무실에서의 비정형 구조 대응방안(정광량 내포/동양구조)

\* 각 강의 사이 한대제철의 강재소개 30분간 진행

-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www.kia.or.kr](http://www.kia.or.kr)

## 2009한국스틸건축학교(SS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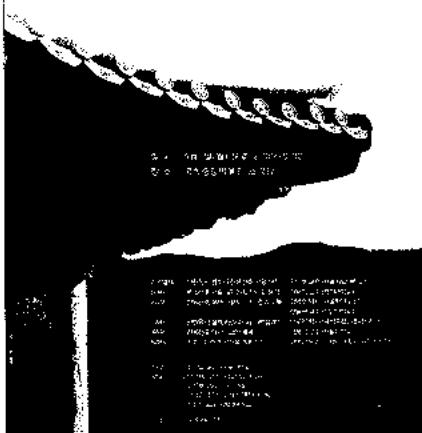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와 한국건축가협회가 2009한국스틸건축학교(SSAD)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비정형 건축과 강구조 설계(Free Form Architecture vs. Steel Structure)'로서 강구조 건축설계의 경험과 실무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구조의 계획부터 시공, 가감까지의 세부과정을 건축사, 건축설계 실무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설계 실무자 교육이다.

## 4차 한옥건축 포럼\_한옥건축 기술기준의 체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지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금성종합건축사무소, 서울대학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학술용역을 의뢰받아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옥건축 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한옥 건축 성능기준, 부자자 규격기준, 설치기준, 아카이브, 한옥마을 계획기준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차례에 걸친 '한옥건축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월) 4번째 한옥건축 포럼은

## 한옥건축 기술기준의 체계



‘한옥건축 기술기준의 체계’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본 연구의 충간연구발표회로 진행된다.

### • 발표 :

- 신한옥의 범주와 한옥건축 기술기준\_송 인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목조건축 기술기준 현황조사 및 분석\_김 왕직 교수(명지대학교)
- 한옥건축 부재·자재 규격기준과 모듈\_김영수 박사(서울학연구소)/한필원 교수(한남대학교)
- 신한옥의 설계프로세스와 시범설계안\_한 국진 박사(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옥건축 아바이브의 체계\_전봉희 교수(서울대학교)
- 지속 가능한 한옥마을 계획기준\_권영상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 • 토론 :

- 좌장\_최일 교수(복포대학교)
- 패널\_박문재 과장(국립신림과학원 복재 성능과), 이문호 대표(가은건축), 유나경 소장(코레스 엔지니어링), 장상식 교수(충남대학교)
- 주최 : 국토해양부
- 문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혜열 연구원 031-478-9664

## KCC, 친환경 건축용 외부도료 ‘숲으로 듀라센스’ 출시



KCC, 친환경 고기능성 건축용 외부도료 ‘숲으로 듀라센스’를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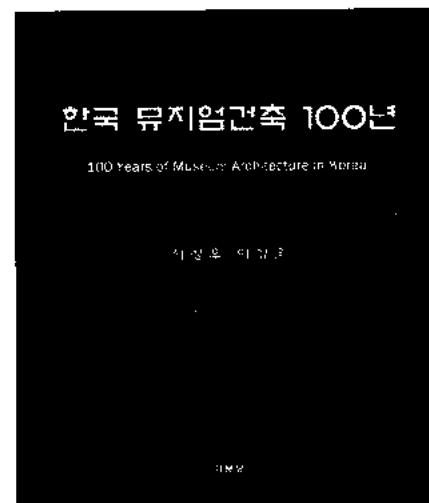
이번에 출시된 ‘숲으로 듀라센스’는 일반 수성도료와는 달리 내후성이 우수한 PURE ACRYL수지를 사용한 페인트로서, 내후성이 일반 KS1급 제품 대비 50% 이상 뛰어나다. 또한, 도막의 경도가 우수하여 빗물, 매연 등으로 인한 외부 오염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여, 도장 후 장기간 경과 후에도 초기 색상 및 외관을 유지할 수 있는 고급형 외부용 마감 도료이다. ‘숲으로 듀라센스’는 곰팡이 방지 기능 또한 포함된 고기능 제품으로서, 여름철 고습조건에서도 곰팡이, 이끼류의 서식을 억제시켜 위생적인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해주며, 특히 침투력 및 부착성이 우수한 바인딩 기술을 적용하여 상태가 불량한 구도막 위에도 양호한 부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강화된 부착성으로 인해 ‘숲으로 듀라센스’는 신축건물에 대한 도장재뿐만 아니라 보수도장재로서, 국내 아파트 보수도장 시장에 기준 KS1,2급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아파트의 보수도장은 통상 5~7년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때 주로 사용되고 있는 KS1,2급 제품의 경우 도장 후 5~7년 동안 건물을 보호하고 초기색상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숲으로 듀라센스’는 아파트 보수도장에 적용할 경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색 및 우천으로부터 건물 외벽을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고, 또한 곰팡이로 인한 오염 등을 차단할 수 있어, 처음 도장했던 느낌을 다음 도장 시까지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다.

• 문의 : 080-022-8200,  
[www.kccworld.co.kr](http://www.kccworld.co.kr)

## 신간안내

### 한국 뮤지엄건축 100년



서상우, 이성훈 저 | 408쪽 | 기문당

신간 ‘한국 뮤지엄건축 100년’은 한국 최초의 뮤지엄인 ‘제실박물관’이 일반에게 공개된 지 100년이 되는 듯 깊은 해에 ‘한국 뮤지엄건축 발전과정’과 업선된 그 ‘주요내상 사례 100개’를 실사를 통하여 분석된 내용을 컬러 사진과 함께 엮어낸 책이다.

또한 한국 뮤지엄건축의 우상과 미래 예전을 위한 바이블과 같은 저서이므로, 이 방면의 연구자나 정책스립자 그리고 뮤지엄을 기획하고 설계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 문의 : 02-515-5001

건축마당  
법령  
**law & ordinances**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4.1] [법률 제9566호, 2009.4.1. 일부개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권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다중이 브이거나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3의2. “간이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개정 2004.10.22, 2005.3.31, 2006.4.28, 2008.3.21, 2009.4.1)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

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종사·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우동산업법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제제연료 사업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1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도 이상의 시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환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회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하수드법」에 의한다.

<개정 2006.4.28, 2006.9.27>

⑤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개방화장실)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각종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 (이동화장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의2 (간이화장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11조 (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제12조 (시설점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개선명령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폐쇄명령·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 (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지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제15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구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

위원회를 놓 수 있다. 〈개정 2006.4.28〉	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으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①공중화장실은 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①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시민법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7조(민간위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조 삭제 〈2009.4.1〉 제21조(과태료)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4.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6조 ①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③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경의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4.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신설 2009.4.1〉 제22조 삭제 〈2009.4.1〉	부 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 200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4.28]	부 칙(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하는 때에는 그 개선비	부 칙 〈제7139호, 2004.1.29〉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⑥내지 ④생략

#### 제10조 생략

### 부 칙(제7934호, 2006.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 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부 터 적용한다.

③(한국화장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화장실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제2항 · 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 실등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하수도법)

〈제8014호, 2006.9.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내지 ④생략

#### 제11조 생략

### 부 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①(생략) ②(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 까지 생략  
〈1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 칙(도로법) 〈제8976호, 2008.3.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부터 〈99〉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 칙

〈제9566호, 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6] [대통령령 제21471호, 2009.5.6, 일부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제3조 (적용범위)

①법 제3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2. 공공용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 · 식물원
-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라. 장사시설 :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②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종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의 상점가

###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도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2009.5.6〉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비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 제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증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증 야외 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증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

### 제6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

법 제7조의2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6.11.9〕

### 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6〉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제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내동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9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6〉

②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9〉

1. 당해 시·군·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위생설비, 요식업 등 환경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군·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1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의2 (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내동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

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2.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물자의 생산·공사(공사) 등을 수행하는 자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풍부한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6.11.9]

####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유치
-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9]

#### 제11조의4(협회의 지도·감독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자예산서
2. 해당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본조신설 2006.11.9]

#### 제12조 삭제 (2009.5.6)

#### 부 칙 (제18492호, 2004.7.29)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9727호, 200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⑯> 까지 생략

#### 부 칙(장사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 2008.5.2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장사시설: 냐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부터 <⑮> 까지 생략

#### 부 칙 (제21471호, 2009.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5.6] [행정안전부령 제79호, 2009.5.6,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증전사업을 하는 종점소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종 신고체육시설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지하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전문개정 2006.11.9]

####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개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봉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 제9조 삭제 (2009.5.6)

#### 부 칙(제244호, 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356호, 200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1)부터 (5)까지 생략
  -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 부 칙(제79호, 200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중화장실관리현황보고서

환경부 고시 제2009-70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1. 목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 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근거

-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 3. 산정방법

-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사전에 조사·예측한 자료가 없거나 조사·예측한 자료의 객관성을 일증하기

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 4.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함을 기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오수농도} (C) = \frac{Q_1 C_1 + Q_2 C_2 + \dots}{Q_1 + Q_2 + \dots}$$

$Q_1$ : 용도1의 오수발생량,  $C_1$ : 용도1의 오수농도,

$Q_2$ : 용도2의 오수발생량,  $C_2$ : 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창고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 중 교육연고 및 복지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인원은 정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기 연 호	건축물 용도	호수별 쟁량		계획준 처리대상인원			
		1일 오후 별 출입	BOD농도 (mg/L)	H고	상정식	비고	
8 속 지 설 설	관광호텔·호텔·호텔· 여관·여관	250회/일	70	-	N = 0.04A	-	
	농어촌민박·풀 기숙사	250회/일	140	-	N = 0.12A	-	
	기숙호텔·콘도미니엄 관광호텔	300회/일	140	-	N = P	-	
	여행장(종교장) 자동차 아영장	70회/일	30	-	N = P	-	
9 속 지 설 설	주도 유족 주점	나이트클럽·카페·제 60회/일	150	-	N = 0.3A	-	
	일반 주점	종업원·단골판경· 도장·스탠드파	45회/일	250	-	N = 0.23A	-
	주전기업소·가스노령소· 25회/일	150			N = 0.125A	-	
	고도점·주도학원·클럽하우스	10회/일	150		N = 0.06A	-	
10 종 업 시 설	공장·화장소· 마을공동화장소·발전소· 성비·길질(기밀로 포함)	40회/일	150	-	N = 0.08P	-	
11 자 활 동 설 설	주거소· 액화석유기소·증진소	50회/일	260	-	N = 16C	-	
	주차장 <sup>①</sup> ·주기장 <sup>②</sup>	50회/일	260	-	N = 16C	-	
12 국 공 동 시 설	교도소·구의소· 소년원·감리원	200회/일	200	-	N = P	-	
	환영소	15회/일	300	-	N = 1.075A	-	
	군체육소	200회/일	200	-	N = P	-	
	공동화장실	50회/일	260	-	N = 16C	-	

본 유 연 호	건축물 용도	호수별 쟁량		계획준 처리대상인원		
		1일 오후 별 출입	BOD농도 (mg/L)	H고	상정식	비고
13 모 체 관 련 기 설	호장시설· 통인당	35회/일	150	-	N = 0.06A	-
	휴게소	50회/일	250	-	N = 16C	-
14 관 광 기 설	관광당	10회/일	150	-	N = 0.08A	-

주) 1)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잡화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총면기수는 대변기수와 소변기수의 합계로 한다. 남, 여자 전용 화장실의 총변기수는 대변기수×1.5로 산정한다.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6)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진화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8)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9) A는 연면적(m<sup>2</sup>), B는 병상수(개), C는 총변기수(개), H는 홀수,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P'는 야간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 S는 타석수(석) 또는 코트수를 의미한다.

건축마당  
보고서  
report

- ACE총회 초청 방문
- AIA총회 초청 방문

##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한 ‘2009년 유럽건축사협의회 (ACE) 총회’를 다녀와서

### 들어가는말

지난 4월 23일부터 3일간 유럽건축사협의회(ACE) 2009년 총회에 초청되어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진 회장과 국제위원장인 필자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가만된 총회는 30여 국가가 넘는 많은 유럽대표단이 참석하여 올해와 내년의 사업 계획과 현안, 국가 간 MRA진행에 관련된 노는 사항들을 발표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핀란드 헬싱키라는 유럽 중심에서 벗어났지만 잘 알려진 도시에서 개최한다는 매력과 아마도 한 ACR의 회장인 유하니 카타이넨 씨가 핀란드 건축사로서 영향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총회 개최지가 아닐까 생각되었다.

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현대건축의 거장 알바르 알토(Aalto)와 그리스비안 굴리센(Gullichsen), 에릭카 가리아도(Kalliomäki) 등 건축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특성을 가진 나라임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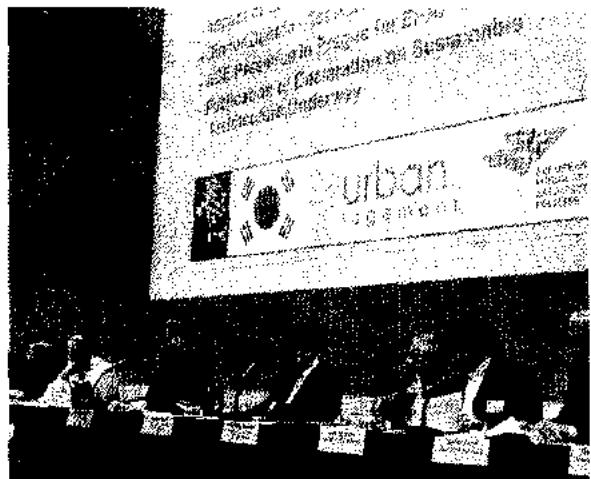
현대 건축의 초기 모임이 시작되는 1920년 초에서부터 알바르 알토는 건축 실무를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파리에서 실무를 시작하는 르코르뷔지에와 같은 연드에 있다.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구성주의, 스웨덴은 고전주의에 훌쩍 젖어 있었고 파리는 푸아리즘(Purism)의 건축운동이 유통화하는 시점에서 핀란드의 건축은 일정한 하나의 건축 운동(Movement)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풍토와 전통적 가치, 그것들의 실용화라는 매우 현실적이면서 동질성 있는 건축 어획을 수용하고 있었다. 매우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성이 강한 핀란드의 환경에서 건축사와 아티스트, 음악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시대적 감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알바르 알토를 포함한 많은 당대의 현대건축인들은 핀란드의 자연과 지역문화 및 환경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계승하려는 노력들이 당시의 국제주의 건축과 차별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정신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절제되면서도 철저한 디테일과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일상의 생활 속으로 소비되는 적응력 등이 모든 것을 보다 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추구하는 핀란드 건축문화의 모습인 것이다. 환경의 건축사가 아닌 또한, 한시대의 건축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우리 협회 최영진 회장과 정재숙 국제위원장



ACE 총회 때 태극기

건축과 시대성을 초월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 건축 스타일 자체가 오늘날 유럽에서는 차별화된 스칸디나비아 건축의 특성으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이다. 공공성과 실용성 속에 녹아 있는 건축의 논리와 실무, 행정 등의 모든 결속력들은 이 시대에 우리 건축사들이 배워야 할 매우 가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30년 전 건축을 공부하는 대학생으로 유럽 건축 답사를 훌자서 가보았던 곳,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적인 도시 스케일과 건축의 편안함은 여전하였다. 친환경 건축과 지속성의 가치는 30년이 아니라 300년 이후에도 인간에게 지루하지 않으면서 시대를 초월하여 현재와 미래 문화에 적응하는 깊이감이 있는 건축이 아니겠는가? –라는 질문은 필자가 헬싱키에 있는 농안 내나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 4월 23일 저녁(첫째 날)\_특별 세션의 토론회와 환영 리셉션

ACE 임원 및 해외 초청 단체장들의 합동 특별 세션이 핀란드건축사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세션에서는 한국 이외에 멕시코, 미국, 캐나다, 러시아가 초청국으로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ACE의 요하니 카다이넨 회장의 환영사를 서두로 각국의 대표단이 소개 되었다. 특별 세션의 메인 토픽은 현재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지표의 하락과 이에 따른 유럽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황을 설명하는 순서로 시작하였다.

영국을 하나의 표본으로 해서 조사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가 진행 되었고 향후 3년간 어려운 건축 경기를 실감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어서 각국의 대표들의 자국 실정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며 토론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유 무역 협상 대상국가간 의견을 나누었으며 협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 현황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

ACE 총무는 현재 유럽연합과 진행 중인 MRA협상 프로세스는 매우 고무적이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멕시코 미국 등 국가와의 협정은 특히 중요한 시안으로 발표하였다. 특별 세션의 초청국가 단체장 간담회가 끝나고 이어서 핀란드건축사협회(SAFA)가 주관하는 환영 리셉션에 참석 하였다. 이 자리에는 ACE 임원은 물론이고 핀란드건축사협회 임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으며 핀란드 건축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 핀란드건축사협회 회장의 환영사와 임원 소개도 시작된 리셉션은 참석자들의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뜻있는 자리였다.

#### 4월 24일(둘째 날)\_총회의 개막과 진행

ACE 총회 오프닝이 오전 9시에 현대건축의 거장 알바 알토가 설계한 핀란디아홀 대회의장에서 개막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과 옵서버 국가 초청 국가를 포함한 40여 국가 대표단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ACE 카다이넨 회장의 환영사 및 개회선언과 더불어 초청국가의 소가가 이어 졌으며

한국에서는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정재욱 국제위원장이 소개 되었다. 개회선언에 이어서 ACE와 MRA협상 대상국인 한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안건에 대하여 브리핑을 한 부회장인 영국의 존 라이트가 진행하였으며 답변으로 각국의 의견제시와 유럽 국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문제가 된 멕시코와의 협상과정에서 몇몇 유럽 국가들은 몇 가지 의문과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한국과의 협상은 현재 현상실무 1룹이 결성되어 1차 회의를 마쳤으며 곧이어 제2차 실무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는 설명과 이러한 결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뒤이어서 여러 가지 의제 결정단계에서는 정책 위원들과 비회원국의 가입 협의안 2008년도 안건승인여부, 새로운 법안의 승인과 위원회 활동 내용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과 승인절차를 거치면서 총회의 유럽 국가간 의견교환이 고조 되었다.

다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 침체의 영향과 유럽건축사들의 업무 축소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인 조사 분석표가 발표되어 순간 매우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으며 오픈 토론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향 제시가 있었다.

지난 4월 7일 이태리 라퀼라시 인근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참극 장면들을 이태리 대표단이 준비한 비디오를 시청하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은 잠시 침통한 침묵과 함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ACE총회의 주제와 의제내용 목차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헬싱키시에서 개발한 저층형 주택단지



핀란디아홀



Rainer Mahlamaki 핀란드 건축사협회장(기운데)과 함께



핀란드건축사협회 환영리셉션\_ 좌로부터 최영집 회장, Gordon Mills 미국건축시인총회(NCRAB)회장, 엑스코 대표, 정재숙 위원장

1. 개회식 선언과 환영사
2. 특별 세션과 초청국가의 MRA와 무역 협정 사항발표
3. 국제 안전의 심의와 발표
4. 토론의 주제와 협의사항 - 정책, 경제, 건축업무, 유럽 각국의 현황, 재무
5. 오픈 토론회 주제들 - 세계 경제와 건축 실무, 건축사의 책임과 인증, 건축교육과 훈련, 공공의 교류와 행사 등이 있었다.

총회를 마치고 저녁에는 헬싱키 시청관에서 마련된 헬싱키 시장주최 리셉션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였다. 사장의 환영 인사와 더불어서 자유로운 담화 시간이 주어졌으며 각국의 대표단과의 건축 관련 의견을 교환하면서 유익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4월 25일(셋째날)\_컨퍼런스 발표와 답사

오전 9시부터 건축 컨퍼런스가 총회와 같은

장소인 핀란디아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노르웨이와 영국 핀란드에서 초빙된 전문가들은 건축사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친환경 설계의 개념과 철학 그리고 경제적 대응이었다.

건축사들의 다양한 설계 접근 방식이 창의적이었으며 자연 친화적인 설계 방법론은 시대적으로 매우 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되었다.

친환경 설계는 현재 전 유럽 국가 건축사들의 관심 대상 분야이며 특히 핀란드 도시 환경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오전의 컨퍼런스 이후 특별히 마련된 초청국가 대표단의 헬싱기 도시개발센터의 견학이 있었다. 시청과 별개로 운영되는 별도의 도시 개발센터 내의 여러 시설을 관찰 하였으며 잘 꾸며진 도서실과 홍보자료 전시실이 눈에 띄었다. 도시계획 담당자의 헬싱기 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역사와 현재 진행 중인 대단위 도시설계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매우 친환경적으로 접근하고 있

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시설계자의 설명이 끝난 후 참가자들의 현장 답사가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건설된 주택단지를 견학하고 다양하고도 치밀하게 지어진 친환경 주택 단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현대 건축의 거장 알바 알토의 나라 핀란드, 자작나무와 호수가 많은 나라, 이 속에서의 건축물들은 저마다 자연 환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결손하지만 매우 섬세한 디테일과 기능을 소유한 기품 있는 건축 환경이었다.

실용성 개념에 바탕을 둔 핀란드의 국민성답게 건축 또한 인간의 거주성을 최우선시 하며 자연의 재료를 즐겨 쓰고 그래서 차분하고 드러내지 않지만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건축을 대할 수 있었던 것 이 매우 흥미로웠다. ■

정재숙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ARCASIA 교육위원장

#### 2009년도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참관기(AIA 2009 National Convention And Design Exposition)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나흘에 걸쳐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Moscone Center에서 미국건축사협회 2009년 총회 및 박람회(AIA 2009 National Convention And Design Exposition)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주제는 '다양성의 힘 : 복잡한

세상에서의 건축실무(The Power of Diversity : Practice in Complex World)'였으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최영집 회장, 한명수 고문(전회장), 신춘규 국제담당 이사, 이영수 국제전문위원과 김성민 국제위원이 참석하였고, 참고로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김창수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미국건축사협회(이후 AIA)와 대한건축사협회의 관계는 한명수 전회장 제임시에 급속히 진전되어 2008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마샬 퍼넬 당시

AIA 회장이 참석하였고 이후로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건축단체인 AIA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1. 미국건축사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1.1 연혁

1857년 2월 23일에 13인의 건축가가 리치드 업존의 사무소에 모여서 AIA로 모

처를 구상하였으며 '회원의 교육적이고 실무적인 원색함을 추구하고, 건축가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협회를 조직하였고, AIA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리차드 앤더슨은 1857년부터 1876년까지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2 조직

AIA는 전국적으로 선출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장, 회장 당선자, 부회장 4인, 각사, 재무관, 18개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된 이사, 준AIA 회원 2인, 분과위원회의 대표 2인, 선출된 국제이사, 학생대표(미국건축대학생 협회 회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된다.

AIA의 지부는 미국내 50개 주와 미국령 인도, 미크로네시아,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에 있으며 국제지부는 유럽과 영국, 홍콩, 일본에 있다.

## 1.3 회장 및 부회장 프로필

■ 회장(2009년) : 마빈 말레카 (Marvin J. Malecha)

현재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의 디자인대학 학장으로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학사학위를, Harvard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설계사무소에서 실무경력을 쌓고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Cal Poly)에서 조교수부터 학장까지를 지낸 후 현대학의 건축대학 학장으로 부임하였고 AIA에서는 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미국건축학교육인증원(NAAAB)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2003년에는 건축교육에 공헌이 큰 회원에게 수여하는 영예의 AIA/ACSA Topaz Medallion을 수상하였다.

■ 회장 당선자 (2010년 회장 예정) : 조지 밀러 (George H. Mi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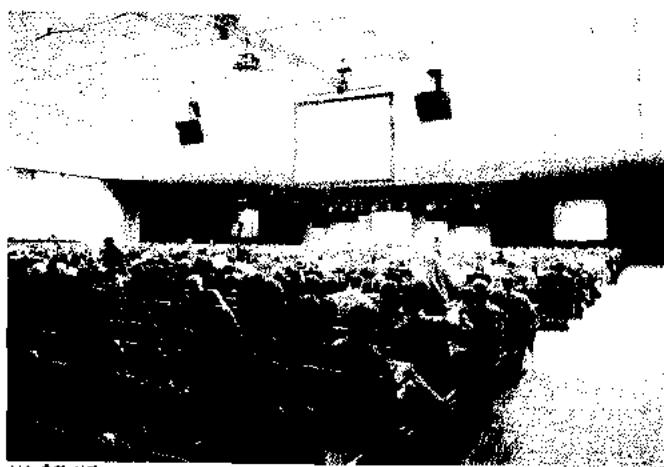
현재 국제적인 설계회사인 Pei Cobb Freed & Partners Architects LLP의 파트

너로서 독일의 베를린에서 태어나서 필라델피아에서 성장하였으며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후 1975년 이래로 현재의 회사에서 우수한 설계 작품을 보여주고 있으며, AIA에서 는 뉴욕 지부를 중심으로 많은 공헌을 하였고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 수석 부회장 (2011년 회장 예정) : 클라크 맨루스 (Clark Manus)

금년 AIA총회에서 당선되었으며, 현재 Heller Manus Architects의 CEO 및 디자인 책임자로서 샌프란시스코의 경관에 큰 공헌을 하였고 미국뿐만 아니라 상하이의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지속 가능한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LEED Neighborhood Development Platinum Certification을 최초로 수상하였다.

AIA에서는 캘리포니아지부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주민참여설계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쌓았고 뉴욕주립대학(SUNY



AIA 총회 전경



계속교육 세미나



건축박람회 전경



AIA Bookstore 전경



해외 귀빈을 위한 환영 만찬 직로부터 이명수 국제전문위원, 리초와 말레이시아건축시협회장, 무바사 후세인 ARCASIA 회장, 최명길 회장, 신동규 국제담당 이사



젊은 건축가 포럼 전경

Buffalo)에서 환경디자인과 신리학에서 복수 학사학위를 받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Kling Partnership, KMD에서 실무를 한 후 개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미국건축사협회 총회(AIA 2009 National Convention And Design Exposition)

총회 및 행사, 계속교육 그리고 건축박람회의 3가 부분으로 구성된다.

### 2.1 총회 및 행사(Convention & Events)

참가자 전체가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3개 행사인 개막식과 젊은 건축가 포럼 그리고 페티식에서 각종 주요한 시상과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흔영리셉션, 국제위원회 주최 만찬, FAIA 수여식, 초청 만찬과 지역별 건축사 모임, 대학별 건축사 동창회 모임 등 공식적으로만 96개의 각종 행사가 개최되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올해 총회에는 전체 AIA 회원 85,000여 명의 약 10%인 8,000명~8,200명이 참석하였고 총 참여인원은 약 21,000명으로 추산되었다.

### 2.2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행사 전일부터 4일간 총 529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각 분야에 걸쳐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되었으며 계

속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3종류로서 세미나(강의로서 대부분 차지), 워크샵, 교육부에 인근의 건축물, 도시설계 등을 현장에 가서 체험)가 있으며 건축박람회인 EXPO에서도 업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전통적인 건축설계 및 실무는 물론이고 관시분야인 BIM, 장애인 시설, 사무소 운영에서부터 사무소 내 여성과 소수민족 문제, 해외 시장 거척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내용이 맹목되었고 심지어 세계적인 청난 산업디자인 회사인 IDEO에서 즉흥적인 그룹토의 같은 워크샵도 준비되어 있었다.

등록비는 회원일 경우 450불, 비회원일 경우 750불이며 초기등록 시는 일정 부분 감액해 주지만 총회 시작 전 하루의 교육은 별도로 교육비를 지불하고 등록해야 한다.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의할 의사가 있으면 수개월 전 강의 자료를 제출하고 AIA가 이를 승인하면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게 된다.

AIA 회원은 1년에 16LUUs(Learning Units : 수업시간)를 취득해야하며 그중 HSW(건강, 안전, 복지) 8 LUUs, SD(지속 가능한 설계) 4 LUUs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주별로 면허 갱신 시 계속교육을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 AIA에서 취득한 교육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 2.3 건축박람회(AIA EXPO)

건축 자자, CAD, BIM 등의 전시를 3가의 전시장에 분산하여 전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약 900여개 업체들이 참여하였다.

### 2.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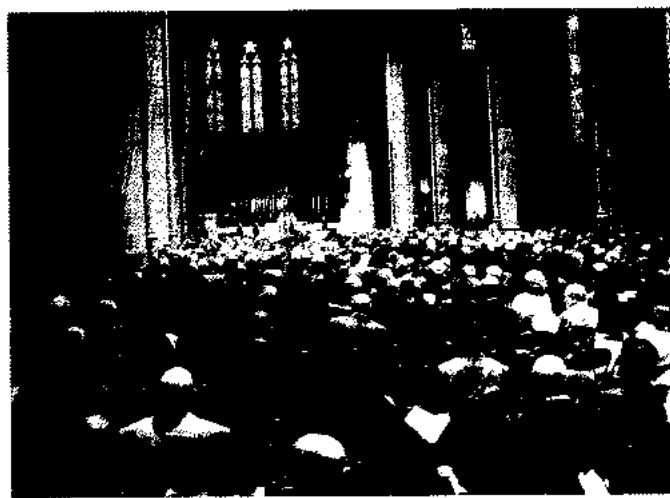
세 개의 형사장(Moscone Center West, North, South) 곳곳에 AIA 지역별 건축상 수상작, 친환경 관련 수상작, 건축과 학생들의 수상작 및 건축시작 수상작 등 14개 분야로 다양한 전시들을 병행 전시하고 AIA Bookstore에서는 건축도서, AIA 관련 자료 및 AIA 로고가 들어간 다양한 기념품들을 판매하였다.

## 3. 대한건축사협회 대표단 참석 주요행사

AIA 총회에 초대된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국 대표단은 총회 전날인 29일 저녁의 해외 귀빈을 위한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5월 2일 '특별회원(P-AIA) 및 해외 대표단을 위한 초청 만찬' 까지 다수의 공식 행사에 참석하였고 틈틈이 계속 교육 프로그램의 유익한 강의와 각종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 3.1 해외 귀빈을 위한 환영만찬(Welcome Reception for International Guest)

4월 29일 저녁에 Marriott Hotel의 Sierra Suite A에서 열렸으며 마술 퍼포먼스 AIA 직전회장이 주최하는 국제 대표단을 위한 만찬으로 해외 건축단체의 국제



AIA특별회원증 수여식

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의 참석자 10여명을 포함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여러 국가 대표들 간의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

### 3.2 개막식(General Session 01 : Op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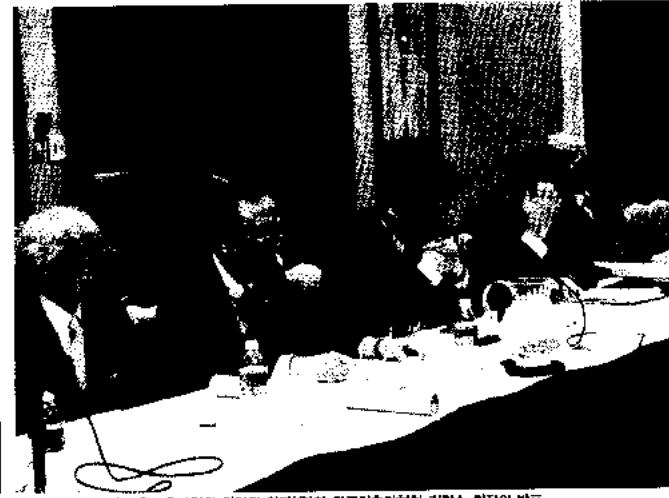
4월 30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Moscone Center West의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AIA 총회의 개막식으로 ‘다양성과 국제적 건축실무(Diversity and Global Practice)’를 주제로 마빈 말레가 회장이 직접 진행을 주도하였고 기조연설자인 영국 Arup의 피터 헤드가 주로 지구환경과 건축에 대하여 강연하였으며 약 5,000여명이 참석하였다.

### 3.3 AIA 명예회원 국제포럼(AIA Honorary Fellows International Forum)

4월 30일 오후에 계속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환경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책임(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mperative)’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칭칭, 이태리의 만프레디 나폴리티, 칠레의 크리스찬 운두라가, 네덜란드의 위니 마스가 환경에 대해 강연하였다.

### 3.4 AIA 명예회원 국제포럼(AIA Honorary Fellows International Forum)

4월 30일 오후에 열린 계속교육의 일부로서 ‘범세계적 전망과 지역적 상황(The Global Perspective and the Regional



해외 단체장 포럼\_대한건축사협회 최영길 회장(우)와 한국건축가협회 김정수 회장의 발표

Context)’이라는 주제로 네덜란드의 조 코헤넌, 스리랑카의 빌라드 조이사, 필립 편의 울란다 레이즈, 이태리의 보무노 가 비아니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에 대해 강연하였다.

### 3.5 AIA 국제위원회 환영회(AIA International Committee Reception)

4월 30일 저녁에 Marriott Hotel의 Club Room에서는 AIA 국제위원회에서 주최하여 한국 대표단 10여명을 포함하여 각 국 국제위원회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 3.6 젊은 건축가 포럼(General Session 02 : Young Architects Forum)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Moscone West의 대연회장에서 약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요 행사로서 이번 AIA 총회의 주제인 ‘복잡한 세상의 건축실무(Focus on Practice in a Complex World)’에 대하여 저널리스트인 John Hokenberry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건축가 조민석을 포함하여 Amale Andros, Craig Dykers, Julien de Smedt가 발표한 후 Whitney Young Jr. Award를 시상하고 샌프란시스코 시장 Gavin Newsom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3.7 한국건축가협회 주최 Korean AIA 환영 오찬(Korean-AIA Reception)

5월 1일 정오에 열린 환영오찬으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미국건축사를 초청하

여 유대감을 갖고, 대회의장을 마련하지는 취지로서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였고 약 60여명이 참석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 3.8 국제 건축실무의 미래에 대한 평가 (Assessing the Future of Global Practice: The International Committee Defin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Practice in Global Markets)

5월 1일에 있었던 계속교육의 세미나로서 AIA 국제위원회 주최로 세계 시장에서의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였고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 3.9 AIA 특별회원증(FAIA) 수여식 (Investiture Ceremony)

5월 1일 오후 4시에 독특하게도 Grace Cathedral에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AIA 회원 중에서 심사를 거쳐 건축 및 사회에 공헌도가 높은 회원에게 수여하는 AIA 최고의 명예인 AIA Fellowship(FAIA)를 올해는 120명에게 수여하였고 그 중에는 주로 해외 인사인 HF AIA(Honorable AIA Fellowship) 수상자 8명이 포함되었으며 수여식에는 약 1,500여명이 참석하였다. 현재 총 FAIA 회원은 약 2,100여명으로 전체 AIA 회원의 2%~3%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 3.10 해외 단체장 포럼(International Presidents' Forum)

5월 2일 오전에 '친환경을 위한 단체의 역할, 경제위기에서 단체의 역할 및 국제적 상호인증'을 회의 안건으로 진행되었고 미국의 AIA회장 및 NCARB(미국연방등록원), NAAB(미국교육인증원), ACSA(미국건축대학생협회) 및 ULA 회장, ACE, ARCSIA, PAN AM, 캐나다, 영국, 호주, 코스타리카, 멕시코, 일본, 한국 2단체 회장 등이 참석하여 3개의 안건을 차례로 발표하였고 약 60여명이 참석하였다.

### 3.11 폐막식(General Session 03 : Closing)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까지 약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oscone Center West의 대연회장에서 거행되었으며 '건축실무의 새로운 목소리(Emerging Voices of Practice)'를 주제로 AIA 회장이 직접 주관하여 미국의 10개 도시를 대표하고 작품상을 수상한 건축가, 학생, 교수의 다양한 작품을 각 4

분씩 보여주며 건축실무에서 나타나는 이 종학문간, 이종문화간 다양성과 새로운 조류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AIA오교류하는 해외 단체장 8명에게 메달과 명예회원증(Honorary AIA)을 수여하였으며 온해에는 특히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 전회장이 수상하는 영광을 가졌다. AIA와 ASAC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육계에서 공헌한 건축교육자에게 수상하는 AIA/ACSA TOPAZ Medallion은 MIT 건축대학장인 Adele Naude Santos에게 수여하였고, 총회 기간에 실시된 선거를 통하여 수석부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재무관 1인을 선출하고 발표하였으며 블라크 매너스가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되어 현 2009년도 미빈 말네카 회장과 회장 당선자인 조지 밀러 2010년도 회장의 뒤를 이어 2011년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 3.12 명예특별회원 및 수상자를 위한 환영회(President's Reception for

Honorary Fellows, Nominators and Presidential Medal Recipi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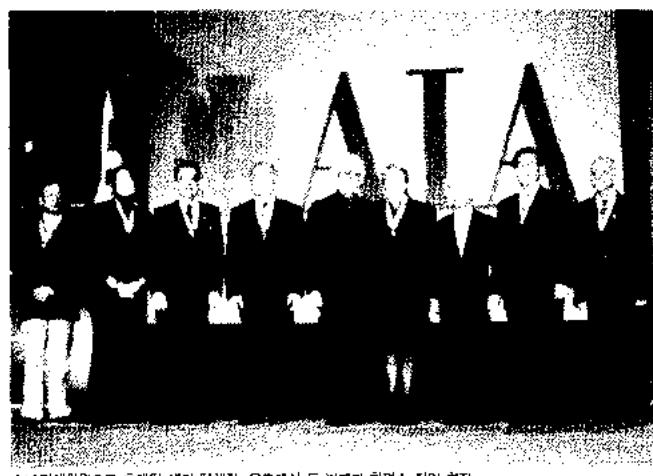
5월 2일 저녁 6시에 AIA 회장이 폐막식에서 소개한 한명수 전임 회장을 포함한 수상자들에게 직접 메달을 달아주는 행사로서 각국의 해외 규빈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 3.13 특별회원(FAIA) 및 해외 대표단을 위한 초청 만찬(College of Fellows Convocation Dinner / President's International Dinner)

5월 2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거행된 대단히 격식을 차린 만찬 행사로서 Westin St. Francis의 Grand Ballroom에서 올해 FAIA를 수상한 120명 등 각종 수상자를 초청하고 FAIA 회원들이 주최하는 만찬으로 약 700여명의 내빈이 정장을 갖추고 참석하여 AIA와 FAIA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신입 FAIA 회원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좌로부터 김정수 회장과 최영진 회장, 마빈 밀러가 AIA회장



AIA명예회원으로 추대된 해외 단체장, 우측에서 두 번째가 한명수 전임 회장



좌로부터 최영진 회장과 싱가풀의 정처아고 UIA사무관, 조지 밀러 AIA 차기회장, 김정수 회장



폐막식에서 한명수 선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소개되고 있다



AIA 회장으로부터 HAI(AIA 명예회원) 메달을 수여 받은 한명수 전임 회장



초청 인천 견경



회장이 한국건축가협회 참가자와 함께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참가자가 같이 모여서 기념 촬영

#### 4. 맷는 말

금년 AIA총회에서 느낀 가장 인상적인 점은 총회가 지극히 실용적이라는 것이었고 이는 개막식에서 잘 나타났다.

우리의 여타 총회에서 보는 고위 인사의 축사, 격려사 등 형식적인 과정 없이 AIA회장이 스타처럼 무대에 등장하여 직접 개회사를 하고 주제를 설명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기조 연설자를 그 분야 최고의 실무전문가에게 맡겨서 약 30분에 걸쳐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발표하여 참석자에게 현실적인 정보를 주었는데 이 역시 우리의 여타 총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우리나라의 많은 총회가 참석자 동원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너무 형식적이고 내용 없는 행사에 대한 참석자의 불만 때문은 아

닌지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이다.

둘째는 실용적인 계속교육 프로그램이었다. 500여개에 달하는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교육내용으로 인하여 8,000여명의 AIA회원이 전국에서 참석하였고, 이는 특히 중소 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첨단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NCARB(미국건축사등록 관리위원회)와 주 정부의 계속교육 요구는 AIA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AIA의 응집력 강화와 수입원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다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건축사의 자긍심 고취와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AIA는 건축가의 자질 향상과 각종 실무 지원 뿐만 아니라 FAIA 제도 등을 통한 건축사 스스로의 자긍심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AIA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정치적 지원을 위하여 1980년에 ARCHIPAC(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Political Action Committee)을 설립하여 모금운동을 하고 건축사에 우호적인 의회 등 연방정부 선출직 출마자를 지원함으로서 건축사가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여 건축사에게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는 방법은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점점 정치화되어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건축 3단체 통합을 앞두고 한국건축가협회 참가자 분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에 참여한 것도 수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 성 민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



##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회원수)

2009년 4월말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총 회 원 수	합 계											
	1인	2인	3인 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건축	5,103	5,103	120	240	10	30	5,233	5,373	1557	1557	269	536	58	1/4	22	88	29	21	1,934	2,576	7	7,167	7,949		
서울	883	883	32	64	3	9	918	956	84	84	156	312	37	1/1	11	44	16	120	1,061	1,428	6	1,979	2,384		
부산	459	459	26	40	2	6	481	505	86	86	21	42	2	6	0	0	3	28	112	162		593	667		
대구	403	403	25	50	4	12	432	466	82	82	7	34	6	18	1	1	2	10	38	128		520	593		
인천	248	248	2	4	0	0	260	252	55	55	5	16	0	0	0	0	0	63	7			316	323		
광주	194	194	1	2	0	0	195	196	38	38	6	12	2	6	2	8	1	7	49	7			244	267	
대전	232	232	9	18	1	3	242	253	32	32	8	18	4	12	2	8	1	17	48	87			290	340	
울산	176	176	7	14	0	0	183	190	19	19	2	4	1	3	0	0	0	0	22	26			205	216	
경기	704	704	3	6	0	0	707	710	225	225	9	38	2	6	1	4	2	12	249	285			966	995	
강원	170	170	2	4	0	0	172	174	24	24	2	4	0	0	0	0	0	5	27	33			199	207	
충북	193	193	4	8	0	0	197	201	34	34	3	8	0	0	2	8	2	15	41	63			238	264	
충남	212	212	1	2	0	0	213	214	40	40	7	14	1	3	2	8	0	0	50	65			263	279	
전북	231	231	4	8	0	0	235	239	20	20	3	6	2	6	1	4	0	0	26	36			261	275	
전남	169	169	0	9	0	0	169	169	18	18	1	2	0	0	0	0	1	7	20	27			189	196	
경북	339	339	4	8	0	0	343	347	31	31	5	10	0	0	0	0	0	0	36	4			1	379	388
경남	383	383	6	12	0	0	389	395	25	25	8	16	0	0	0	0	0	0	33	4			422	436	
제주	107	107	0	0	0	0	107	107	7	7	1	2	1	3	0	0	0	0	9	2			116	119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3급	비 율	
합 계	7,949	10	7,959	100.0%	23
서 울	2,384	3	2,387	33.9%	10
부 산	667	1	668	7.9%	9
대 구	593	0	593	7.7%	0
인 천	323	0	323	3.9%	0
광 주	267	0	267	3.7%	0
대 전	340	1	341	3.7%	0
울 산	216	0	216	2.6%	0
경 기	995	2	997	12.2%	2
강 원	207	0	207	2.6%	0
충 북	264	0	264	3.0%	0
충 남	279	3	281	3.1%	0
전 북	275	0	275	3.0%	0
전 남	196	0	196	1.9%	0
경 북	388	0	388	4.6%	1
경 남	436	0	436	5.0%	1
제 주	119	0	119	1.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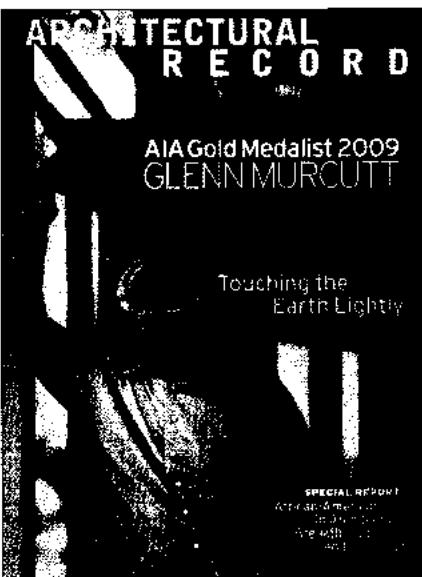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分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373	2,576	86	8,034	
비 율	66.88%	32.06%	1.06%	100%	
사무소수	5,233	1,934	-	7,167	
비 율	73.02%	26.98%	-	100%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에서는 무엇보다도 2009 AIA Honor Award에서 대상(Gold Medal), 건축분야, 인테리어분야, 도시 디자인 분야, 25주년 상, 우수회사분야에 선정된 건축사와 그 프로젝트들을 다룬 기사가 눈길을 끈다.

대상은 Glenn Murcutt이 수상하였으며 1974년의 Laurie Short House로부터 2001년도의 프로젝트까지 소개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Skidmore, Owings&Merrill의 Cathedral of Christ the Light, Grimshaw Architects의 Horncastle Museo de Acero, Vincent James Associates의 Charles Hostler Student Center, VJAA의 The Lavin-Bernick Center for University Life, John G. Waite Associate의 Basiclica of the Assumption, John Ronan Architects의 The Gary Comer Youth Center,

Thomas Phifer and Partners의 Salt Point House,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and FXFOWLE의 The New York Times Building, 그리고, Leddy Maytum Stacy Architects의 Plaza Apartments까지 9개의 프로젝트가,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Robert M. Gurney의 Town House, Diller Scofidio+Renfro의 School of American Ballet, DesignLAB Architects의 IFAW HQ, Christoff:Finio architecture의 The Heckscher Foundation for Children, David Jameson Architect의 JIGSAW, Mark Cavagnero Associates의 Chronicle Books, Studio Architecture의 Barclays Global Investors Headquarters, NBBJ의 R.C. Hedreen, Lehman Smith Mcleish의 Tishman Speyer Headquarters, 그리고, Lyn Rice Architects의 Sheila C. Johnson Design Center의 10개의 프로젝트가 각각 선정되었다.

도시 디자인 분야에서는 Ten Arquitectos의 Orange County Great Park, Skidmore, Owings&Merrill의 Foshan Doughuali Master Plan과 Treasure Island Master Plan, University of Arkansas Community Design Center의 Porchscapes: Neighborhood Watershed & Home, Lee+Mundwiler Architects의 The Central Park of the New Radiant City, 그리고, Sasaki Associates의 Southworks Lakeside Chicago Development의 6개 프로젝트가 수상하였다. 또한 25주년 상은 Benjamin Thompson & Associates의 Faneuil Hall Marketplace가, 우수회사부분에서는 Olson Sundberg Kundig Allen Architects가 선정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대상을 받은 Glenn Murcutt의 프로젝트와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의 수상작들을 선별해서 주로 다루어 보겠다.



최현아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의학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디자인정보시스템 전공 석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

##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2009 Honor Award

2009년의 AIA Honor Award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 작품들이 수상을 한 이유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대상을 비롯한 건축분야의 9개 프로젝트, 인테리어 분야의 10개 프로젝트, 도시 디자인 분야의 6개 프로젝트, 우수회사 분야 수상작, 25주년 상을 받은 모든 프로젝트는 연결과 연결이라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Glenn Murcutt은 오랫동안 대지의 지리를 고려한 건축설계를 해 온 유일한 건축사였다. 우수회사분야에서 수상한 OSKA 역사 35년간 건축, 아트, 공예를 대지와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 왔다.

25주년 상은 1825년에 지어져 가장 소중한 역사적 랜드마크로 사랑받던 Faneuil Hall을 적절하게 재사용하여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 내 모임의 장소로,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좋은 예로서 변모시킨 프로젝트이다. 모튼 프로젝트에 걸쳐서 심사위원들은 이번 수상작들에 대해 건축으로 돌아간 –우리의 감정적인 연결에 호소한– 프로젝트들이라고 요약해서 이야기한다. 성당과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한 건축분야에서의 새로운 아이콘과 같은 건물로부터 인테리어 분야의 발레학교나 사무실, 환경을 이용하여 사람과 장소를 묶어줌으로써 사람을 위한 녹색한 사이트를 만들어 낸 도시 디자인 분야의 수상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프로젝트들은 풍부한 디자인의 표현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았다. 거기엔 빛이 있고, 지속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가 이 지역에,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올해의 수상작들은 새로운 신중함을 함께 가져왔다.

여기엔 어떤 기발함보다 분명한 동선, 향, 기술,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결을 중요시한 디자인들이었다. 도시적인 맥락 위에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긴 하나 내외부의 결합이 녹색한 단독주택도 수상을 하였다. 수상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정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래된 건물을 재사용하거나 옛것과 새것을 통합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

야 할 대다. 올해의 수상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아주 숙련되고 멋진 방법으로 각자의 프로젝트에 훌륭하게 반영하고 있다.

### ■ 대상

#### Glenn Murcutt

Glenn Murcutt는 고층빌딩도, 막시있는 박물관도, 화려한 퍼포먼스도 하지 않는다. 그의 1인 건축사사무소는 주로 호주에서 소규모의 단독 주택을 전문적으로 설계해 왔다.

그런데 왜 LG가 AIA Honor Award의 65 번째 대상을 받은 것일까?

Murcutt을 추천하는 글에서 Tadao Ando는 생태계가 우리를 대부분에게 서보운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이미 Murcutt은 처음 그가 설계를 시작할 무렵부터 지속학적이고 지역의 특징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를 해오고 있었다고 쓰고 있다.

1969년 시드니에 처음 사무실을 개업한 이래 Murcutt은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물들을 디자인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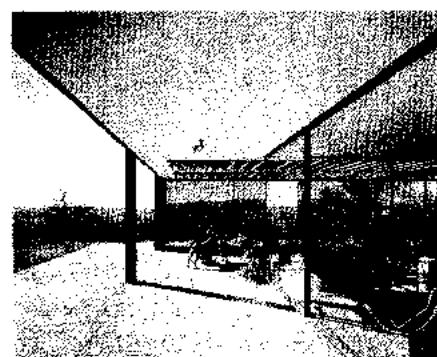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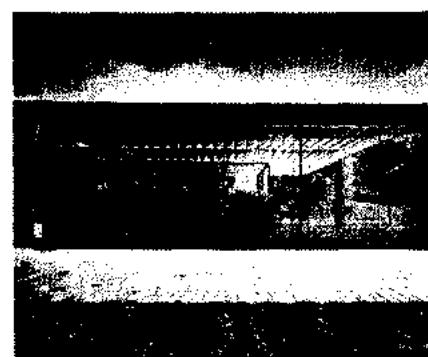
경제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우아하고 작은 규모, 그의 작품이 지역적인 반면 그 영

향들은 그의 강연과 디자인 수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다. 2002년에는 Pritzker상을 수상했다.

Murcutt의 1975년도 프로젝트인 Marie Short House는 New South Wales의 Kempsey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지 위에 가볍게 달는'이라는 개념을 고수하는 경량주택 시리즈의 시작이었다.

Murcutt은 흥수나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기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기둥을 이용하여 지상 위로 몇 퍼트 정도 건물을 띄우고 한다. 그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좁은 직선의 평면을 선호하고 여름의 산들바람과 겨울의 태양광을 최대화한다. 또한 이동식 두꺼운 스크린, 유리문으로 주택을 감싸서 에어컨디셔닝 없이도 4 계절 모두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10년 전 Murcutt은 그의 작업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1999년 건축사인 부인 Wendy Lewin과 함께 New South Wales의 Riversdale에 Boyd 교육센터를 완성하였다. 그는 현재 Hakan Elevli와 함께 Melbourne 외곽에 있는 회교사원을 디자인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과는 Brisbane의 서쪽에 건조한 땅인 Lighting Reach에서 지하광물 박물관을 설계하고 있다.



Laurie Short House



Marie Short House

### Laurie Short House, Terry Hills, Sidney, 1974

한 아이를 둔 젊은 부부를 위한 이 집은 Murcutt이 초기에는 Mies van der Rohe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보여준다. 잡목림 시대의 산불에 취약한 대지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목재는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미끈한 스크린과 유리를 주 재료로 사용하였다. 거친 호주의 환경은 Murcutt이 디자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주어 루버와 다른 차양시스템, 그리고 넓은 베란다를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Marie Short House, Kempsey, 1975

Murcutt은 이 독창적인 프로젝트에 기후 적으로 민감한 전략과 호주의 기존의 선례들을 모두 사용하였다.

광활한 농장 위에 지어진 이 집은 여름의 직접적인 태양광과 겨울 바람으로부터 이 집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채택한 반면 바다의 산들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그가 왈루미늄으로 된 얇고 좁은 넛을 이용한 외부 선크린과 유리나 금속

루버, 그리고 곤충 보호용 스크린을 사용하는 외부 레이어링 전략을 처음으로 사용한 프로젝트이다. 이는 옷을 입고 벗는 것과 유사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어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각 요소는 좀 더 떠해지거나 넓어도록 모두 조정할 수 있었다.

Murcutt은 1980년 이 집을 구입하여 계속 확장 중이다.

### Ball Eastway House, Glenorie, Sidney, 1983

보다 평화롭고 전원 생활을 위해 시드니를 떠나기를 원했던 두 화가로부터 의뢰받아 지어진 이 가볍고 아담한 집은 Murcutt의 작품에 확신을 주는 모델이 되었다.

나무로 된 둘보와 스텔 구조, 낚북으로 친형태를 가진 이 집은 물결무늬의 철판으로 덮여있다.

이 집은 삼겹이 울창한 언덕의 중턱에 위치하여 스텀 기능을 이용하여 대지로부터 둘어올려졌다. 문자그대로 Murcutt의 '대지에 가볍게 닿는'이라는 격언에 충만한 작품이다.

### Magney House, Bingie Point, 1984

시드니로부터 155마일 떨어진 광활한 해안령에 위치한 이 주택은 Murcutt이 이전에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방법 -3층으로 된 외부 벽과 빗물 수집 시스템과 같은-에 주택 내의 환기와 태양광의 보다 나은 이용을 위해 나비 지붕을 추가하여 정성들여 지어졌다. Murcutt의 초기 주택은 육실과 배관을 위해 주로 놀이를 사용하였는데 이 주택에서는 모든 육실과 주방공간을 뒤쪽 벽에 위치시켜 디자인하였다.

### Marika Alderton House, Yirrkala Community, Eastern Arnhem Land, 1994

이 평범하지 않은 주택은 Murcutt의 호주 고유한 건축, 특히 이 자랑 고유의 주택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환기와 전체 주택의 외관을 변형하기 위한 열고 닫히는 파넬들로 되어 있다.

호주 출신의 예술가 Banduk Marika와 그의 가족을 위해 지어진 이 집은 식민지와 호주의 토착문화를 연결시키는 의도를 가지



Ball Eastway House

Magney House



Marie Short House

Marika Alderton House



고 있었으며 이는 집주인인 Marika로 하여금 이 집을 'Bridge House'라고 부르도록 만들었다.

#### Bowali Visitor Information Center, Kakadu National Park, 1994

이는 Murcutt이 호주의 북쪽에 Troppo Architects와 함께 작업한 공공프로젝트이다. 이 팀은 '시작과 끝이 없는 여행'이라는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박물관을 디자인한 것과 같이 박물관장의 거대한 전략과 더불어 다재진 톱과 같은 그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그 지역의 토착민들을 설득하였다.

구조는 긴 나비 지붕과 파빌리온 전체에 걸친 베란다를 만들기 위해 거대한 나무로

된 brise-soleil로 구성되어 있다.

#### Arthur & Yvonne Boyd Art Center, Riversdale, West Cambewarra, 1999

상주하는 예술가와 32명가량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가 시드니로부터 3시간 거리의 전원지대에 지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Murcutt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가장 두드러진 시도의 하나로 기록된다. 와나하겐 프로젝트의 성격상 건축사는 그가 고수해 온 긴 집의 형태의 자연스러운 확장을 참조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Murcutt이 그의 경력을 통해 연구해온 환경적인 공존의 전략을 수용하기 확장하였다. 선율과 이를 둘러싼

지형과의 조화는 Murcutt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표현으로부터 드물게 대표작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

#### Bowral House, Southern Highlands, 2001

시드니로부터 125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주택은 거대한 규모 속에서 지속되는 그의 주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는 전통적인 Murcutt 프로젝트처럼 보이고 느껴진다: 긴 직선형의 형태: 태양의 노출에 대한 성세함; 빛을 수집에 대한 관심. 그러나 다른 프로젝트와 달리 이 집은 거대한 규모를 한껏 즐긴 듯 하다. 예를 들어 230페트가 넘는 긴 아케이드가 그렇다.

작가인 Francoise Fromonot은 이 집을 "Murcutt이 지금까지 지은 가장 헝이상학적인 공간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이야깃했다.

#### ■ 건축 부분 수상작

#### Cathedral of Christ the Light, Oakland/Skidmore, Owings&Merrill/Associate Architect: Kendall/Heaton Associates

Skidmore, Owings&Merrill의 Craig Hartman과 Kendall/Heaton Associates가 함께 디자인한 이 성당은 1989년 Loma Prieta 대지진으로 파괴되었던 그 장소에 다시 재건되었다.

1,350개의 좌석과 118페트 높이의 이 새로운 성당은 콘크리트, 목재, 그리고 유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카톨릭 신앙심의 현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사위원회는 이 프로젝트의 도시, 근처의 공원, 그리고 예배드리려 오는 사람들의 영성의 연결에 주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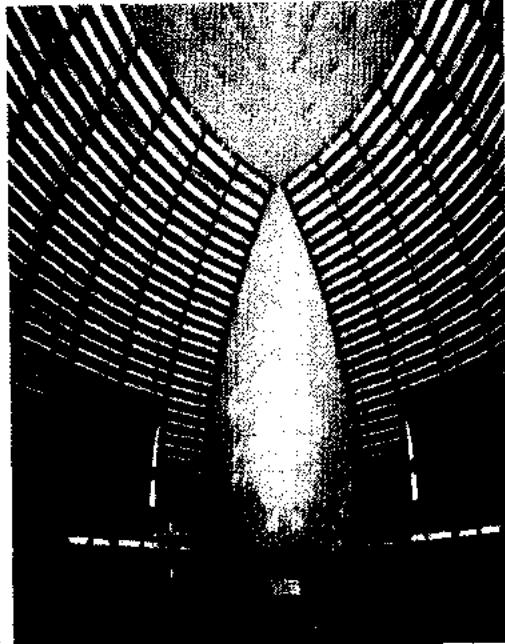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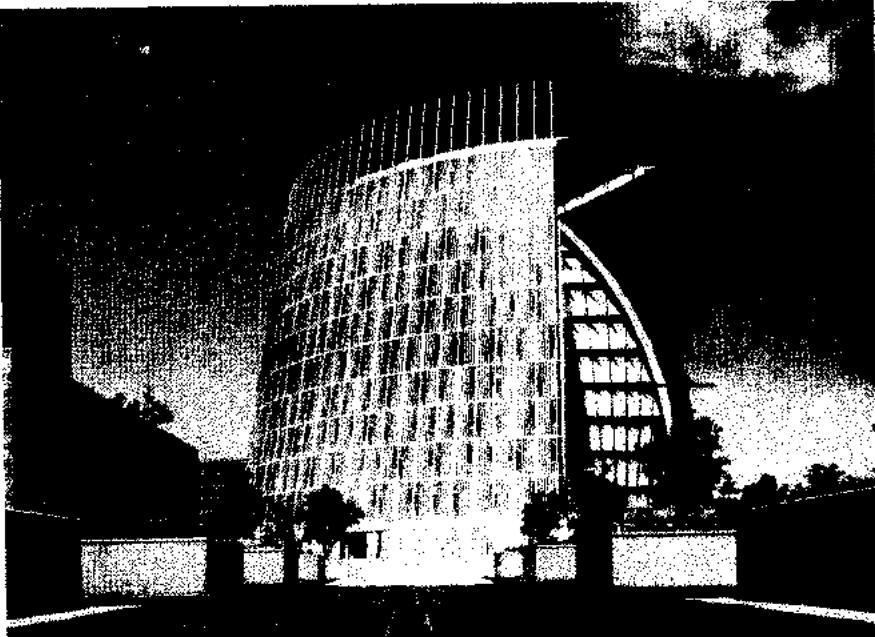
#### Charles Hostler Student Center, Beirut, Lebanon/Vincent James Associates/Associate Architect: Samir Khairallah & Partners Architects

Minneapolis에 기반한 Vincent James

Associates Architect(VJAA)와 Samir Khairallah & Partners가 함께 Lebanon의 Beirut에 디자인한 이 다목적 학생 센터는 Beirut에 있는 American University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초기에 제안된 바와

같이 하나의 전물로 디자인하기 보다는 건축가들은 옥상정원과 더불어 균처의 해안과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 목을 위한 공간, 스포츠 시설, 극장, 지하 주차장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건축과 주변환경과의 통합은 식사위워홀로부터 “귀중한 도시적 장소를 창조하기 위해 지역의 주변상황을 고려하면서 건물의 외관과 재료를 재치있게 사용하였다”는 찬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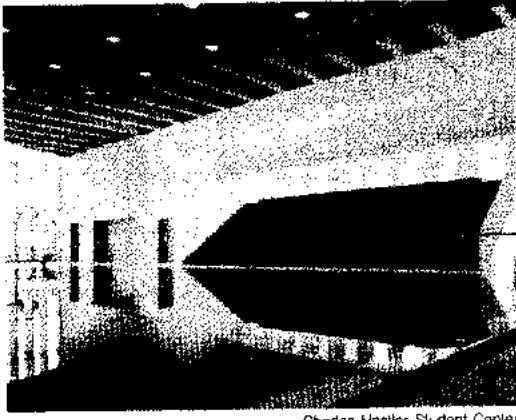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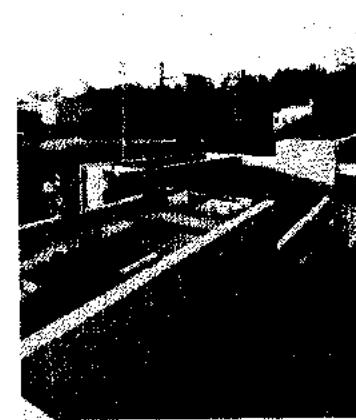
Cathedral of Christ the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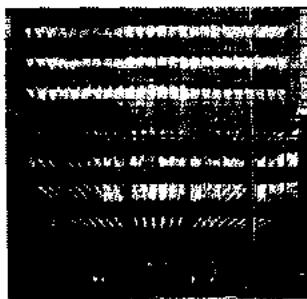
The Lavin-Bernick Center for University Life



Salt Point House



Charles Hostler Student Center



The New York Times Building

The Lavin-Bernick Center for University Life, New Orleans/VJAA/Associate Architect: Wayne Troyer

하리케인 Katrina가 지나간 지 14개월만에 VJAA와 Wayne Troyer는 적은 예산과 다양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

Tulane 대학에 학생 센터를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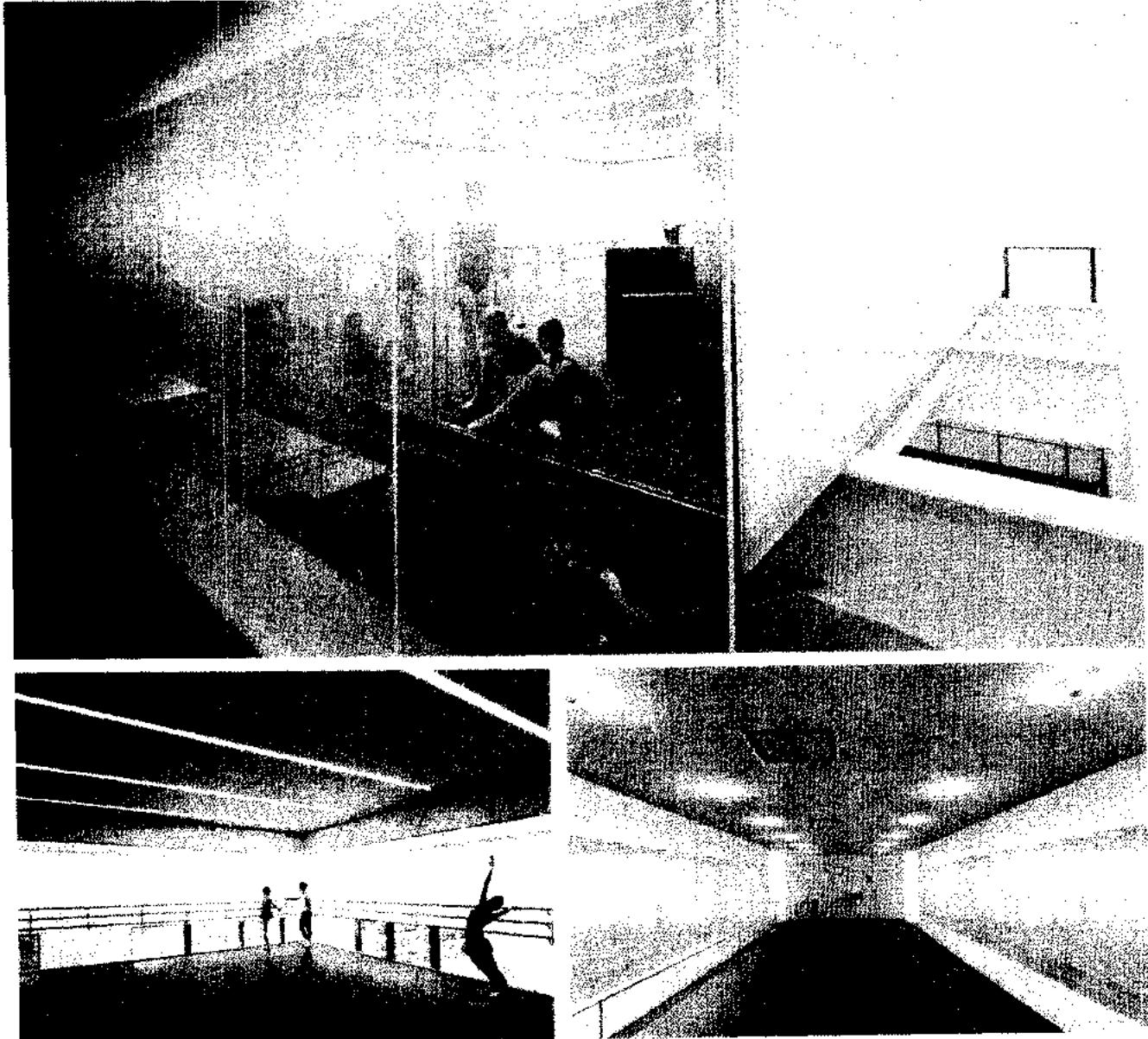
낡은 콘크리트 구조를 이용한 이 학생 센터는 생태학적인 방식으로 건물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혼합 공기조절 시스템의 조합이 있어 커노피, 셔터, 밤코너, 그리고 펜과 같은 New Orleans 고유의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심사위원들은 “이 프로젝트는 건물로부터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끔 하고 그러한 기대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 어떻게 공간을 변형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재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평가했다.

Salt Point House, Dutchess County, New York/Thomas Phifer and Partners

New York의 Hudson 계곡에 자리잡은 이 독창적인 주택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극찬을 받았다. 비록 그 형태는 단조로워도 단순한 사각형 형태 – 이 단순한 구조체는 주변환경 속에서 그 존재를

School of American Ballet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 스테인레스 스틸 스크린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 건물은 단순한 재료와 구조적인 경제성을 통해 그 주변환경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게 되었다.

#### The New York Times Building, New York City/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and FXFOWLE

New York City의 스카이라인에 데려진 이 52층의 상징적인 건물은 “주변의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놀라운 고요함이 건물로부터 퍼져나온다”고 심사위원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층의 커튼월을 사용한 이 건물은 유리벽과 밝색의 세라믹 막대로 이루어진 외부의 선스크린을 결합함으로써 자연광을 사용하고 조절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건축가들의 다이나믹한 빛과 새로운 HVAC기술에 대한 연구가 밑에 장치하는 형식의 HVAC 기술과 태양의 움직임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차광기능을 통해 보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만들어내었다.



#### ■ 인테리어 부분 수상작

##### School of American Ballet, New York City/Diller Scofidio+Renfro

Manhattan의 Lincoln Center에 있는 아메리칸 발레 스쿨은 두 개의 댄스 스튜디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시적 접근으로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다.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대신 기존에 있던 두 개의 오래된 스튜디오의 위쪽 공간을 사용하여 두 개의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어 냈다. 이 새로운 공간은 낮은 층에서 보면 위에 떠있는 듯 보인다. 새로운 공간은 스텝 빙어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주변 벽으로부터 놀아와 있다. 바

닥부터 천장에 이르는 유리는 조망, 태양광, 그리고 아래 층 스튜디오와 무언가를 공유하는 듯한 느낌을 반복해 준다. 더욱이 새로운 스튜디오 사이의 층이 층의 라운지는 학생이나 교사가 필요에 의해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두 명의 우리에서 불투명하게 변해가는 액체 브리스탈 벽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 JIGSAW, Washington, D.C./David Jameson Architect

이 주택은 도심의 복잡한 구석이 위치한 단층짜리 주택을 전적으로 재활용한 프로젝트이다. 완전히 수정된 구조는 양쪽 면으로부터 주택의 각 방에 자연광을 공급하기 위

해 기존에 있던 기초부분을 분할하여 만든 개방된 중정을 향해 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은 거주자의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움직일 때의 경험을 고려하고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고자 하는 디자인 의도로 시작되었다. 퍼즐같은 형태는 우아하고 흥미로운 공간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변화무쌍한 공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로 된 창문은 안위적으로 채광이나 조망권을 해치지 않고 거주자에게 최적의 프라이버시를 허락할 수 있도록 위치하고 있다. 반사력이 이 주택의 주제이며 이는 막힘과 트임의 생동감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된다. ■